건축사 527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3 03
1966년 창간

이임사 임기를 마치며…
에세이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
주택임대시장에서 건축사들의 역할
안 내 건축기획업무 수행시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합시다!
공 고 건축사자격등록 경과조치기간 만료 안내

KOREAN ARCHITECTS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

As you sow, so you reap

황정복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땀 흘린 대가만을 기대하고 결과에 아쉬워하기 보다는 시작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이지만, 대한건축사협회를 위해 새롭게 일할 각오를 다짐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도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우리협회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협회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르는 회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와 함께 우리협회와 건축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즈음에, 거창한 기대에 부풀어 떠들썩한 공약보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 것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우리협회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의 결과, 먼저 심어놓은 씨앗으로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친환경연구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2017UIA서울총회 유치 등 숙원을 이뤄 좋은 싹을 틔웠다. 이제까지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위해 특단의 각오로 발전시켜 다양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한 해결되지 못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고서를 냈다고 뒷짐 지고 만족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 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발로 뛰어 관철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수고한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더 많은 것을 심은 사람들의 대가를 시기하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얻는 게 없다고 불평하며 어리석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결국 패가망신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한건축사협회에만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공짜가 있을 리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한집단을 비난하고 확대재생산하여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협회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어느 부분에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해결자로서의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정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40대를 전후하여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시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직장의 수명이 짧아진 시대에서 삶의 기간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삶의 모습과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길어진 인생의 후반도 건축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경받는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이 필요하다.

우리협회 새 집행부는 제 살 깎기의 악순환을 모두가 힘을 합해 막아내고 건축사의 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건축사로서 새로운 시대의 틀에 맞추어 평생 직업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씨앗을 심기를 바란다.

필자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했다.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 회장,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 수원과학대 건축과 겸임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

주택임대시장에서 건축사들의 역할

Architects' role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김혜현 | 렌트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건설,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8만 6,884가구로 전년보다 6.8% 증가했고, 과거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의 증가는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등의 일반 주택의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저금리 건설자금을 지원한 도시형생활주택이 2009년 이후 약 8만 가구 공급되면서 수도권 주택 물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시원이나 일부 기숙사까지 포함하면 주택의 공급물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주택공급의 증가 배경에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었고,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계층과 고령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 임차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임대 시장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은퇴자들도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주택의 양적 증가 속도에 비해 질적 발전은 더디다.
대부분의 건축주에게 건축이나 설계에 대한 중요성은 낮은 수준이다. 심하게는 비용을 늘리려는 상술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건축주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공사비용의 절감과 안정적인 임대수입이다. 주변에 지어진 신축건물과 동일한 형태로 건물을 짓고, 그 대가로 시공사와 낮은 공사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다. 공사계약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서 공사의 끝은 공사업체와의 분쟁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증하면서 전용면적 12~15㎡ 정도의 소형주택만 천편일률적으로 신축되어 공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경쟁력 없는 외관도 임차인들의 외면을 받는다. 뒤늦게 건축주들도 공실을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건축주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의 콘셉트나 설계의 중요성, 자재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자산의 가치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마켓에 대한 분석과 건축의 콘셉트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부족하다. 건축사들이 건축주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극적으로 세미나, 지면, 칼럼 등을 통해서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알리고, 건축사들에게 쌓여있는 성공 사례를 통해서 좋은 건축과 설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본 언론이나 잡지에 실린 성공 사례들은 건축 규모가 크거나, 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미술작품처럼 감상했던 기억이 많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임차인에게 편리한 평면개발, 비용은 조금 더 들었지만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례 등을 통해 건축사들이 조금 더 친근하고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건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만 틈새시장은 있다. 다행히 그 틈새시장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도 기회가 열려있고 그 기회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부동산정보포털 부동산114 이사로 재직했고, 현재 렌트라이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동산자문역을 맡고 있다.

중곡종합건강센터
JUNGGOK GENERAL HEALTH CENTER

건축주 | 광진구 보건소

설계자 | 남상득_KIRA | (주)씨엔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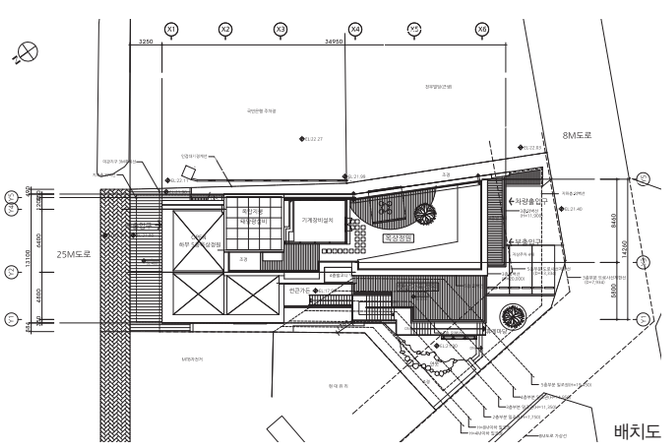
- 설계팀 : 임경빈, 이정만, 백유미, 권도연, 이승재, 이승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ES건축구조엔지니어링
  - 전기설비분야 : (주)성문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주)소정이엔지
  - 토목분야 : (주)나우엔지니어링

감리자 |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우룡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외 1필지
주요용도 | 보건지소,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
대지면적(Site Area) | 750.8㎡
건축면적(Building Area) | 422.9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44.7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6.34%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6.96%
규모(Building Scope) | B2-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샌드스톤, 알루미늄판, 로이유리
설계기간 | 2009. 07. ~ 2009. 12.
공사기간 | 2010. 02. ~ 2012. 01
사진(Photographer) | Lee, Joong-hoon

Client | Gwangjin-gu
Architect | Nam, Sang-deuk
General Contractor | Wooryung
Location | 110, Gingorang-ro, Gwangjin-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ES Structure Engineer
HVAC Engineer | SOJEONG ENG
Electrical Engineer | SUNGMUN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Sand stone, AL. Panel, low-E glass
Design period | 2009. 07 ~ 2009. 12
Construction period | 2010. 02 ~ 2012. 01



배치도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노인들의 보건과 문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공공성의 측면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 나아가 토털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인간과 도시, 자연이 조화로운 신 개념의 미래형 종합건강센터가 제안되었다.

기본개념

중곡종합건강센터의 기본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이해와 상호존중에서 출발한다. 도시적 맥락과 접근을 고려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종합건강센터의 단조로운 이미지를 탈피한 적극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인간과 도시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상호 확보하고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을 도모하였으며 지역민들의 휴식과 문화,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으로써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다양한 도시의 축을 수용한 매스 및 입면구성으로 주변과 건물이 서로 조화되도록 계획하였고, 종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부족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난점 및 극복방안

주변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미건조한 건물들이 계획대지와 인접해 있었고 외부의 미흡한 자연환경 등 여러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곡종합건강센터는 도시디자인을 고려하여 내부로의 인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심 속의 친환경 여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획건물의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인접대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주목하였다.

대지의 분석

중곡동 현장은 동, 서측의 인접건물로 인해 조망이 좋지 않았고 전면도로의 소음으로 차단의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대지의 북측 25m 도로와 남, 서측으로 각각 8m, 6m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남측으로의 열린 공간이 필요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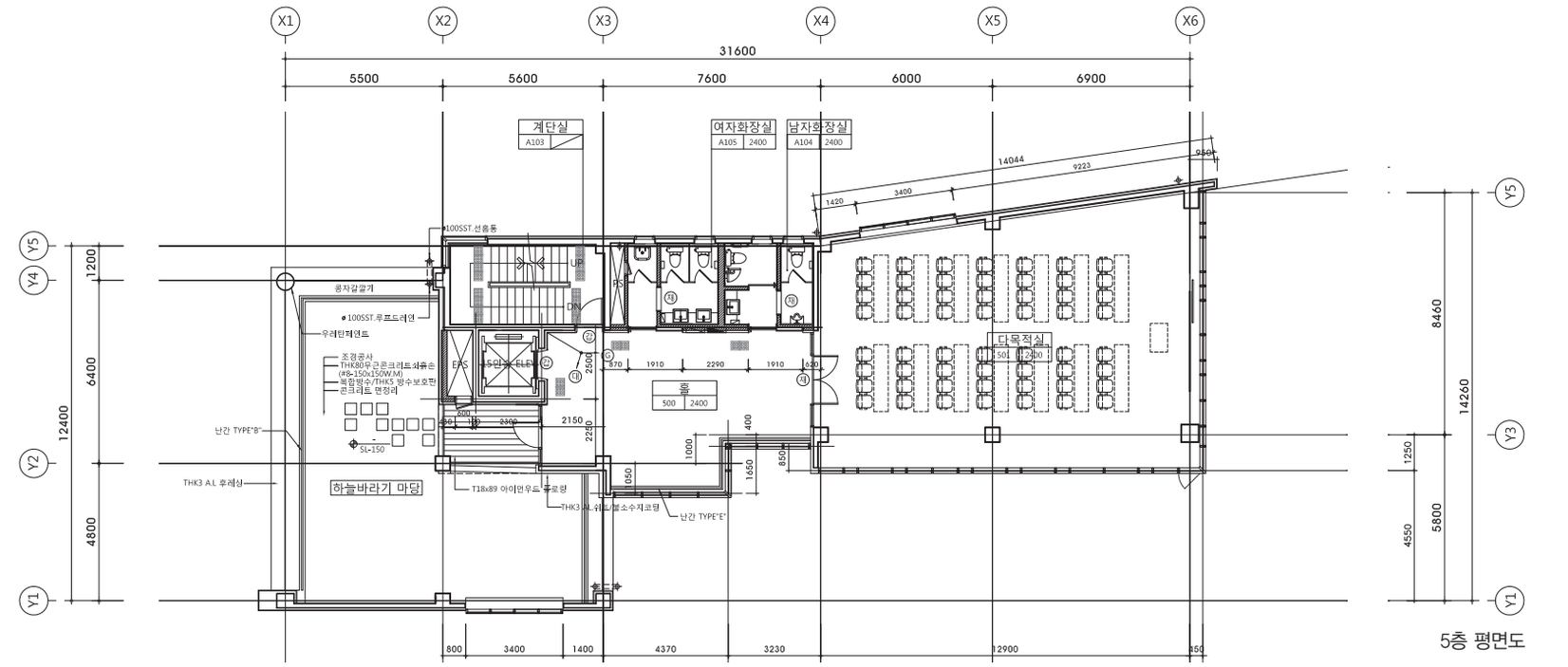
지하층은 자연채광과 환기에 탁월한 선근으로 설계되어 주차장과 교육실로 이어질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고 조경식재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보건지소가 들어설 1층의 홀은 동선을 분리하여 주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거리를 최소화하고 주간시설과 야간시설의 조닝을 구분함으로써 동선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길과 바람이 만나는 곳, 오솔길을 사이에 두어 대지와 대지의 연계역할을 하고 인지성을 부가하였다. 휴게마당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였다.
지상 2층 보건지소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계단을 통해 2층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진입의 다양성을 열어두었다. 3층 치매지원센터는 가변성 칸막이를 설치하여 인지재활실의 효율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으며, 4층 정신보건센터 역시 가변적 칸막이로 차후 공간변화에 대비하였다.
지상 5층은 소음이 적은 남측에 다목적실을 배치하고 사용인원을 고려한 넓은 휴게홀을 마련하였으며 잔디정원, 우드데크 등을 설치한 친환경공간을 차별적으로 조성하여 자연채광과 조망을 확보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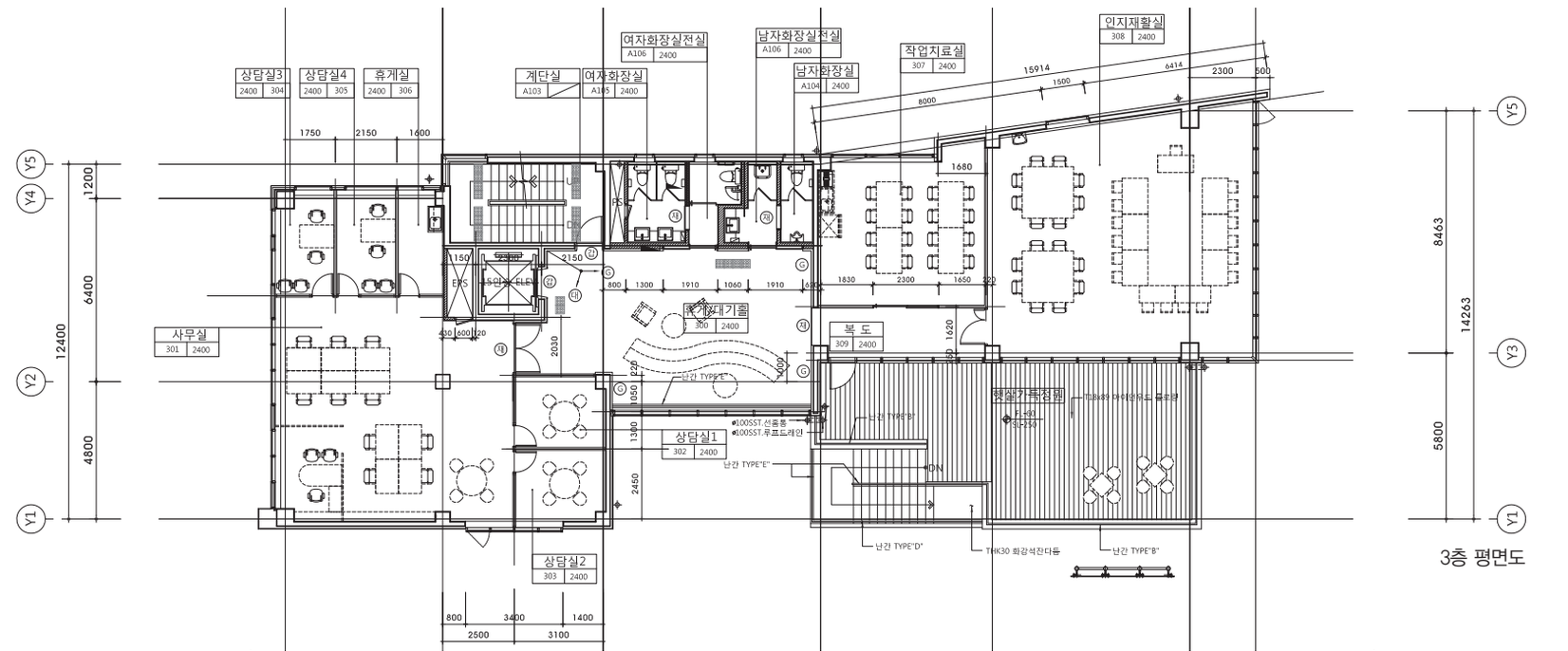
중곡종합건강센터
중곡보건지소 · 치매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북측도로(주출입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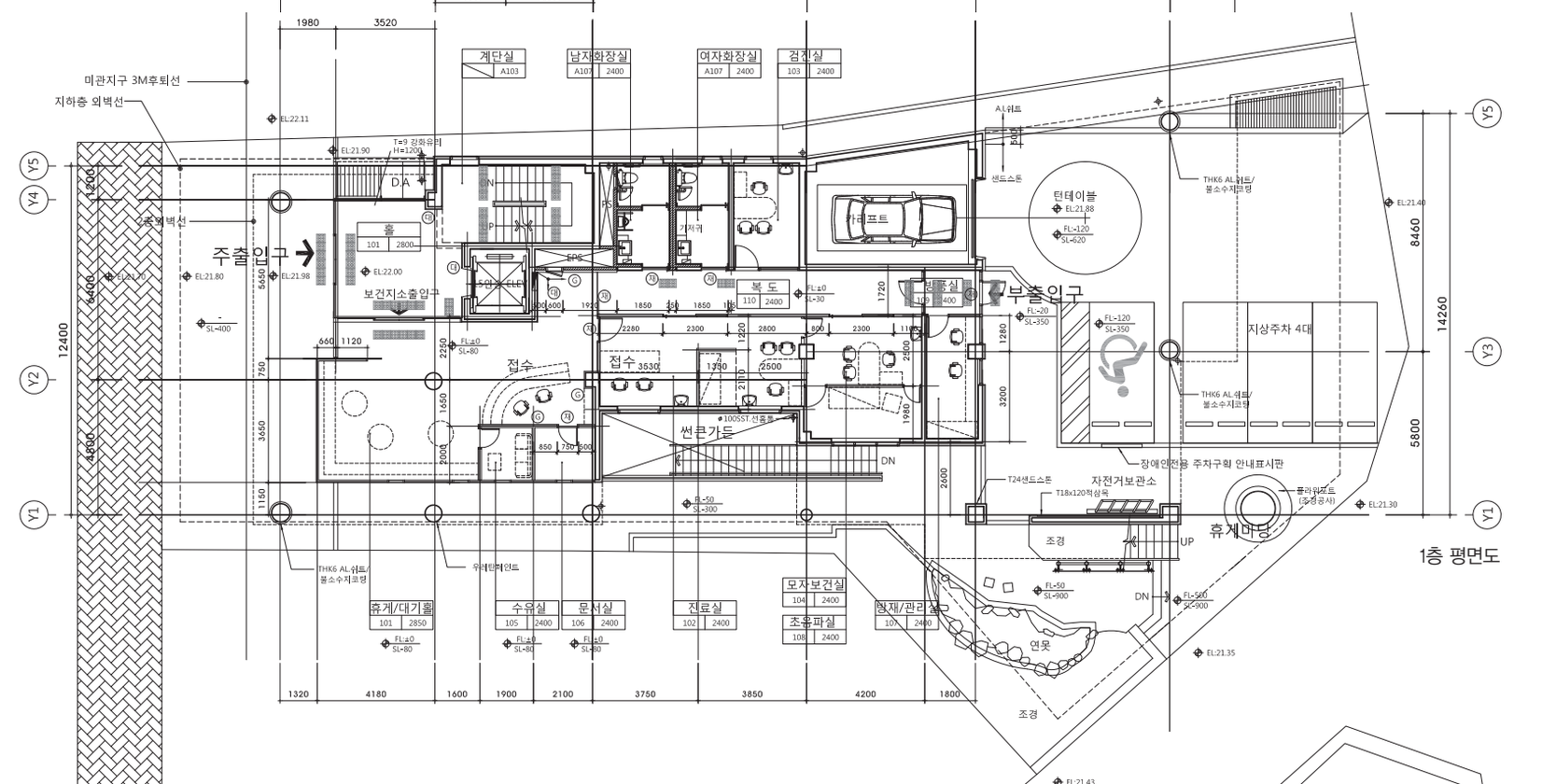
남측도로(부출입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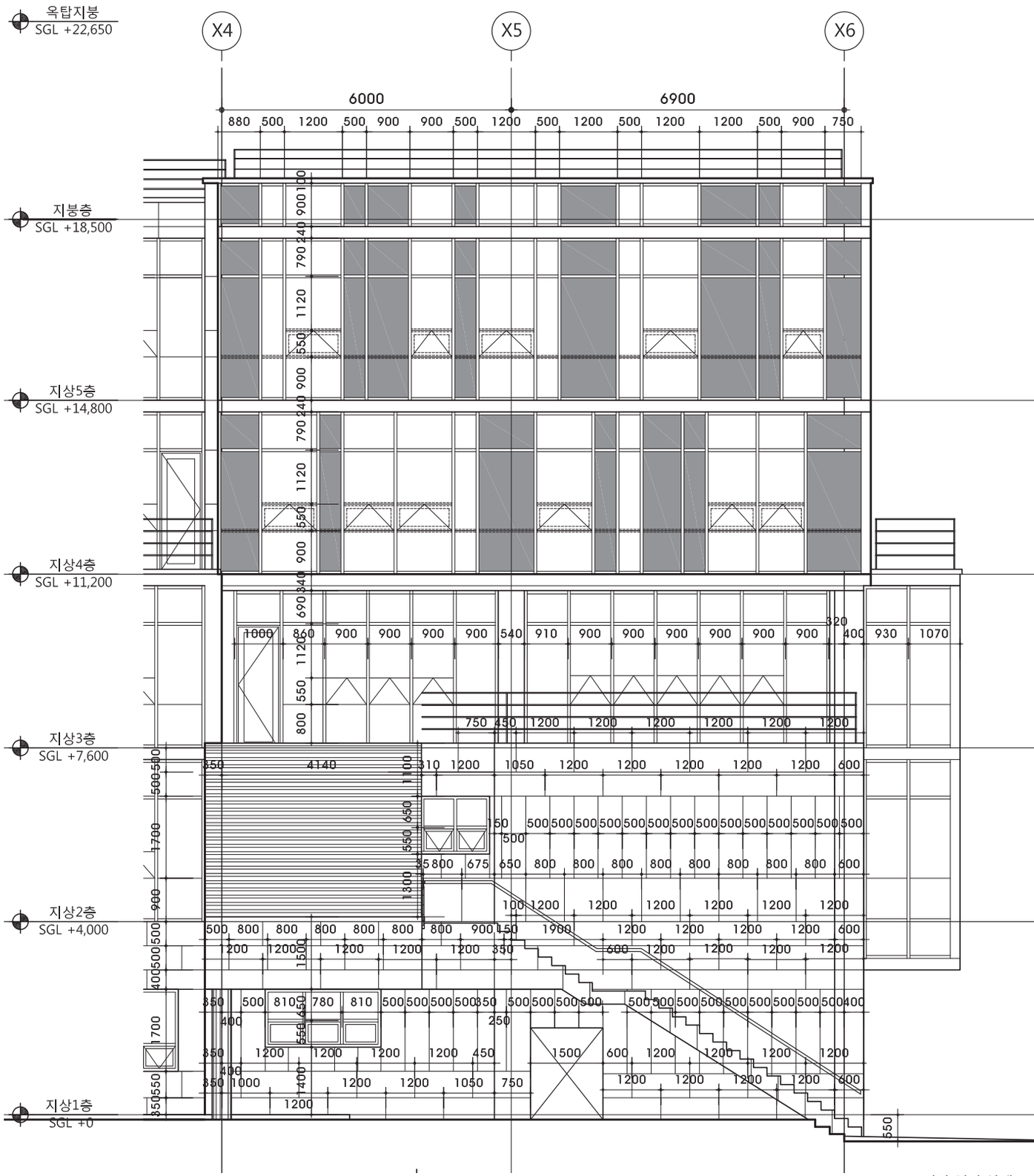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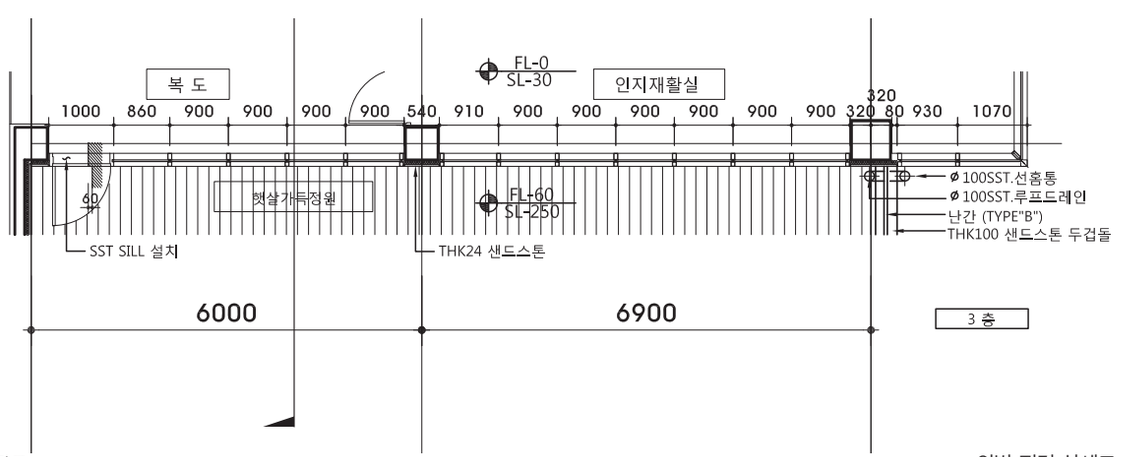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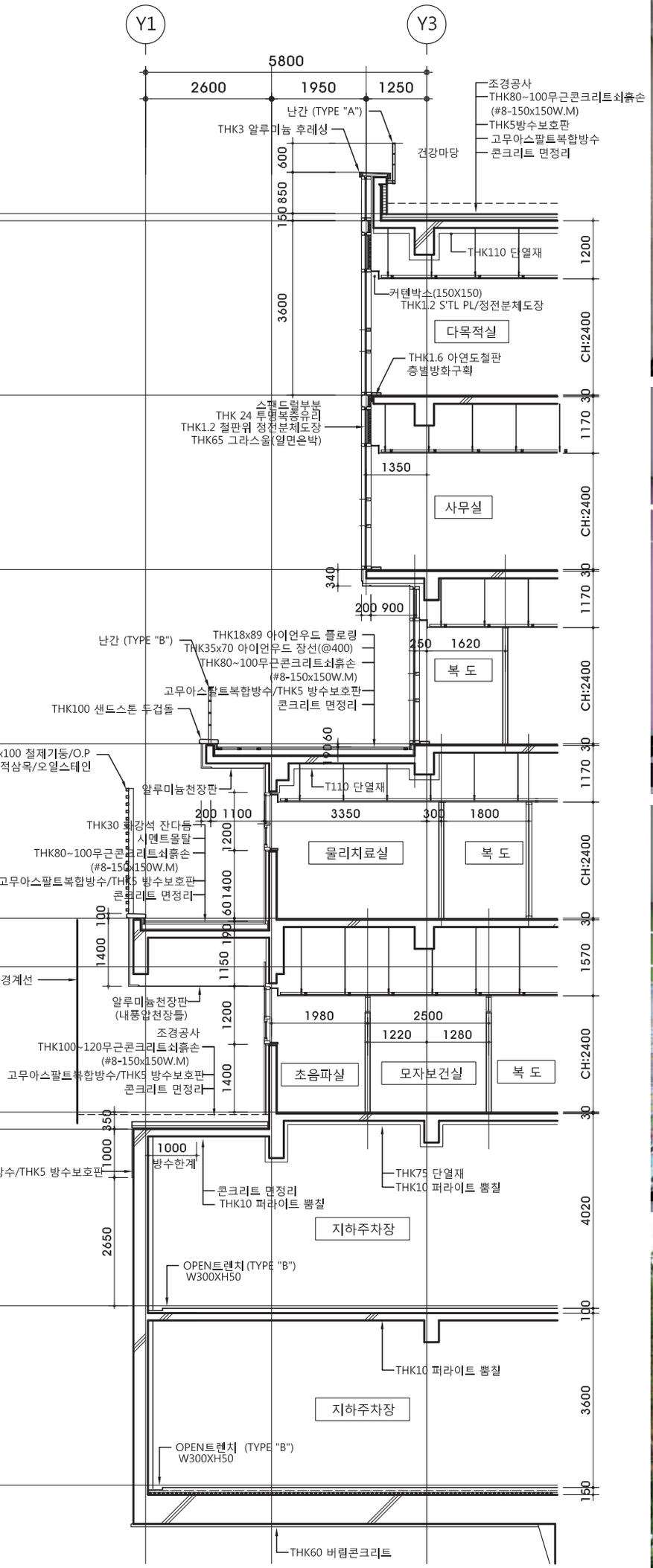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외벽 입면 상세도



외벽 평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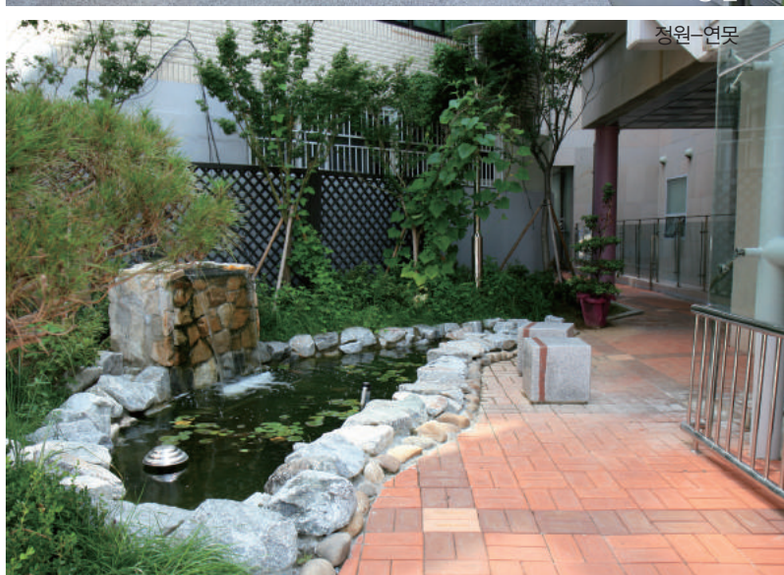

Y1
Y3
5800
2600
1950
1250
조경공사
THK80~100무근콘크리트쇠흙손
(#8-150x150W.M)
THK5방수보호판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
콘크리트 면정리
난간 (TYPE "A")
THK3 알루미늄 후레싱
건강마당
600
850
150
THK110 단열재
1200
커텐박스(150X150)
THK1.2 S'TL PL/정전분체도장
3600
다목적실
CH:2400
THK1.6 아연도철판
층별방화구획
스팬드럴부분
THK 24 투명복층유리
THK1.2 철판위 정전분체도장
THK65 그라스울(알면은박)
1170
30
1350
사무실
340
200
900
난간 (TYPE "B")
THK18x89 아이언우드 플로링
THK35x70 아이언우드 장선(@400)
THK80~100무근콘크리트쇠흙손
(#8-150x150W.M)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THK5 방수보호판
콘크리트 면정리
250
1620
복 도
THK100 샌드스톤 두겁돌
60
x100 철제기둥/O.P
적삼목/오일스테인
T110 단열재
알루미늄천장판
200
1100
3350
300
1800
THK30 화강석 잔다듬
시멘트몰탈
THK80~100무근콘크리트쇠흙손
(#8-150x150W.M)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THK5 방수보호판
콘크리트 면정리
1200
1400
60
물리치료실
복 도
100
190
1150
경계선
알루미늄천장판
(내풍압천장틀)
1980
2500
1220
1280
조경공사
THK100~120무근콘크리트쇠흙손
(#8-150x150W.M)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THK5 방수보호판
콘크리트 면정리
초음파실
모자보건실
복 도
350
1000
방수한계
THK75 단열재
THK10 퍼라이트 뿜칠
콘크리트 면정리
THK10 퍼라이트 뿜칠
지하주차장
2650
OPEN트렌치 (TYPE "B")
W300XH50
THK10 퍼라이트 뿜칠
지하주차장
OPEN트렌치 (TYPE "B")
W300XH50
THK60 버림콘크리트

외벽 단면 상세도

1층 보건지소

2층 홀

3층 홀


정원-연못

충북 오송고등학교
OSONG HIGH SCHOOL

건축주 | **충청북도 교육청**

설계자 | **조도연, 이경환**_KIRA | (주)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오선교_KIRA |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허환, 박진, 김성주, 방소연, 유영관, 임경, 박선영_디엔비건축
  정용현_선엔지니어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신화에스디지
  - 토목분야 : 현대측량 설계공사
  - 조경분야 : (주)나우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건사설비설계사무소
  - 전기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한양에너지

감리자 | **정인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대건산업건설(주)**

대지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727번지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3,306.8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377.4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150.6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2.90%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6.34%

규모(Building Scope) | 교과동_B1 – 5F / 강당동_2F / 기숙사동_3F

구조 | 교과동_철근콘크리트조 / 강당동_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지붕) /
기숙사동_철근콘크리트(벽식)

주요마감재 | 세라믹패널, 화강석버너구이, 알루미늄복합패널, 점토벽돌,
알미늄타공판, 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01. ~ 2010. 08.

공사기간 | 2011. 02 ~ 2012. 01

Client |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Architect | Cho, Do-yeun · Lee, Kyoung-hawn / Oh, Seon-kyo

Project team | Huh, Hwan / Park, Jin / Kim, Seong-ju / Bang, So-yeon /
Ryu, Young-gwan / Im, Kyung / Park, Seon-young_D&B
Jung, Yong-hyeon _Seon Engineering

Location | 727, Osung-ri, Kangoe-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SHINHWA STRUCTURE DESIG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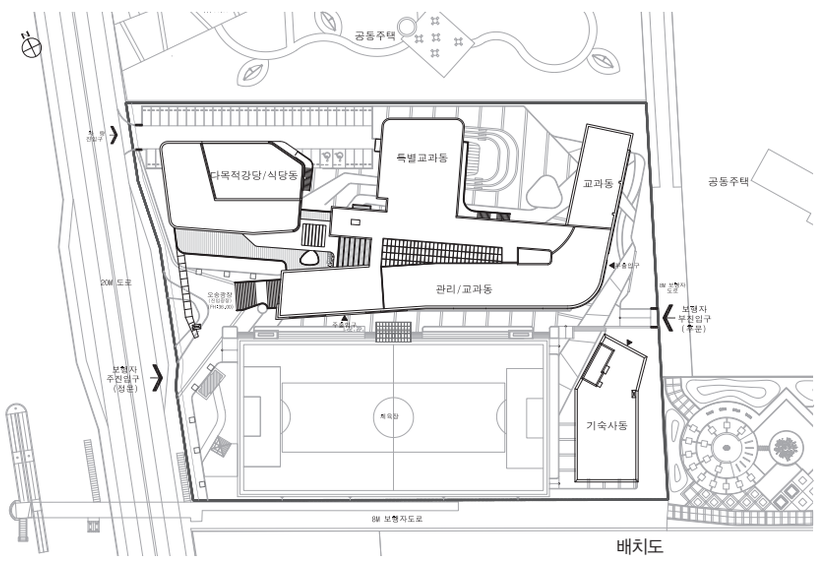
HVAC Engineer | GUNSA ENG

Electrical Engineer | HANYA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Ceramic panel, Granite Burner Flaring, Aluminium Composite panel,
Clay Brick, Aluminium Perforated Plate, Low-E Burner Flaring

Design period | 2010. 01. ~ 2010. 08.

Construction period | 2011. 02. ~ 2012. 01.



배치도

Active Linkage (학습 + 교류 + 휴식)

대지로 흐르는 도시와 자연의 흐름이 연계되어 새로운 동선 커뮤니티를 유도하고, 영역과 형태를 생성하였다.

이동의 흐름에 따라 기능을 배치하고 청소년의 열정적 에너지를 담는 공간은 학습, 휴식, 교류의 역동적 연계(Active Linkage)가 이루어지는 이상적 교육공간을 형성한다.

Site Planning (대지계획)

계획대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위치한 대지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자리잡고 있다. 서측으로 수변공원(돌다리못) 및 20m 도로변으로 개방된 대지형태 인 반면, 신도시 공동주택들에 둘러싸여 남측 절반이 음영으로 가려져 있고, 서측으로 인접한 20m 도로변의 육교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의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840명의 고등학생들을 수용하는 동선과 공간의 형성, 앞으로 100명이 사용할 기숙사 부지 확보 등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 요소가 있었다.

Story (연계)

서측의 돌다리 못과 같은 조망 여건과 주변 환경 요소를 내부공간과 연속시킴으로써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하여, 대지의 제약 조건을 상쇄하고 쾌적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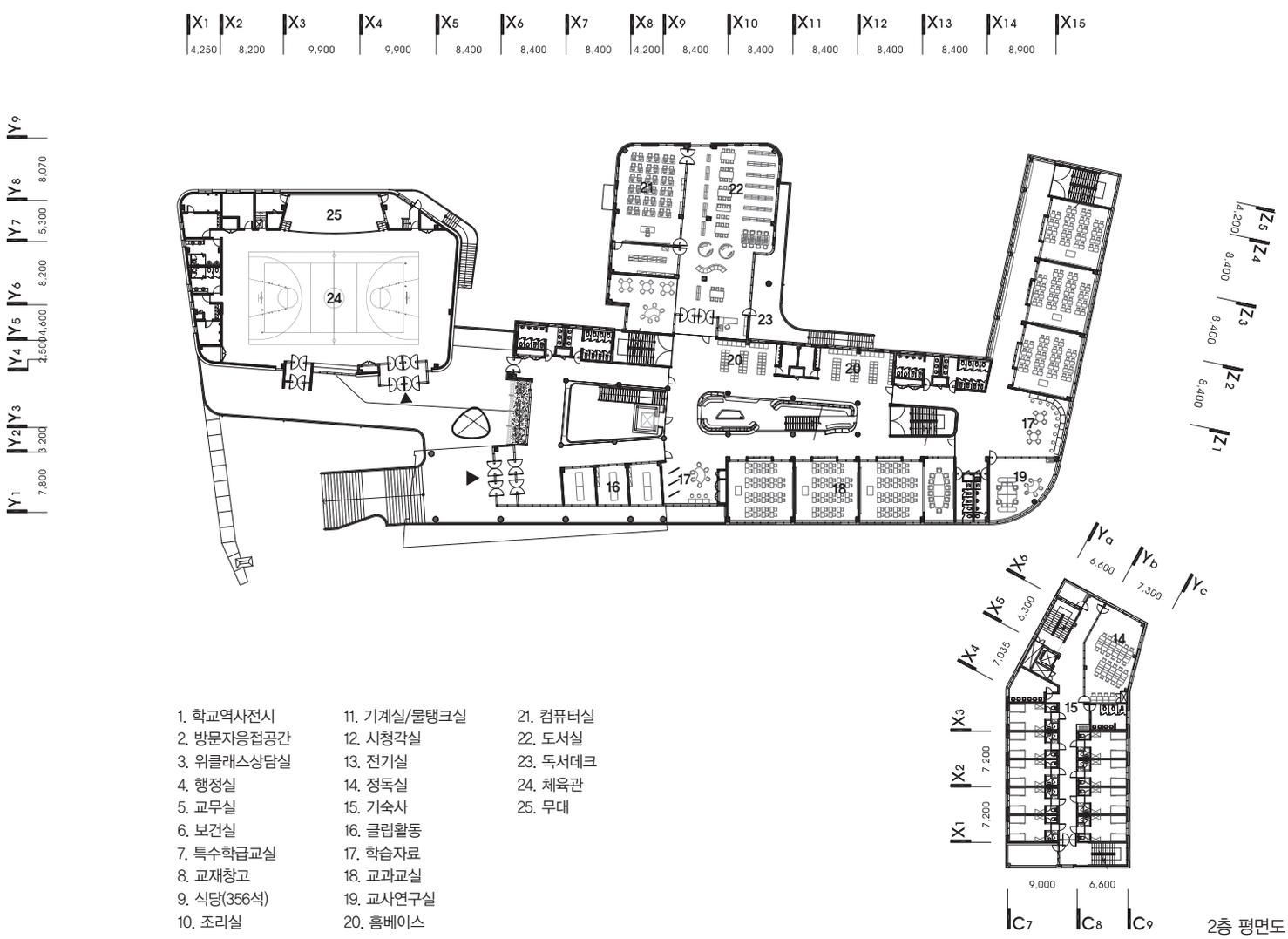
- 도시와 자연의 흐름 : 장방형의 막힌 대지를 열어 주변과 외부공간을 공유하고 자연의 흐름이 연계되도록 한다.
- 동선의 역동적 연계 : 흐름에 따라 기능을 배치하고, '막힌 복도'가 아닌 3개의 교과별 블록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대공간인 공공공간을 구성하여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학습, 휴식, 친교의 모습을 담았다.
- 풍경과 외부공간 연계 : 개방감이 다시 외부공간으로 연계되는 순환 구조로서 '나누는 공간'의 의미를 느끼고 대지의 자연적 환경 요소를 최대한 누리도록 고려했다.

스스로 이야기를 가진 공간, 커뮤니티를 수용하고 연출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환경의 제공이 도시 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운동장에서 바라본 교사동

1층 평면도

후문에서 바라본 교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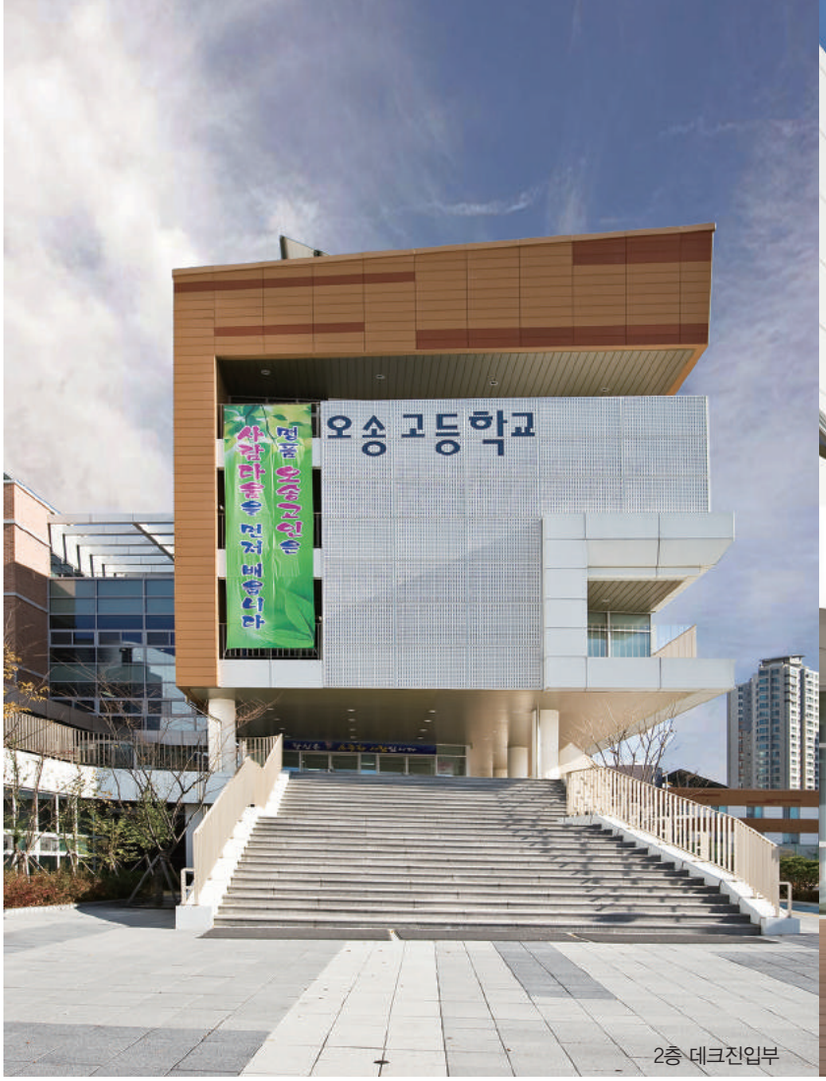


1. 학교역사전시
2. 방문자응접공간
3. 위클래스상담실
4. 행정실
5. 교무실
6. 보건실
7. 특수학급교실
8. 교재창고
9. 식당(356석)
10. 조리실
11. 기계실/물탱크실
12. 시청각실
13. 전기실
14. 정독실
15. 기숙사
16. 클럽활동
17. 학습자료
18. 교과교실
19. 교사연구실
20. 홈베이스
21. 컴퓨터실
22. 도서실
23. 독서데크
24. 체육관
25. 무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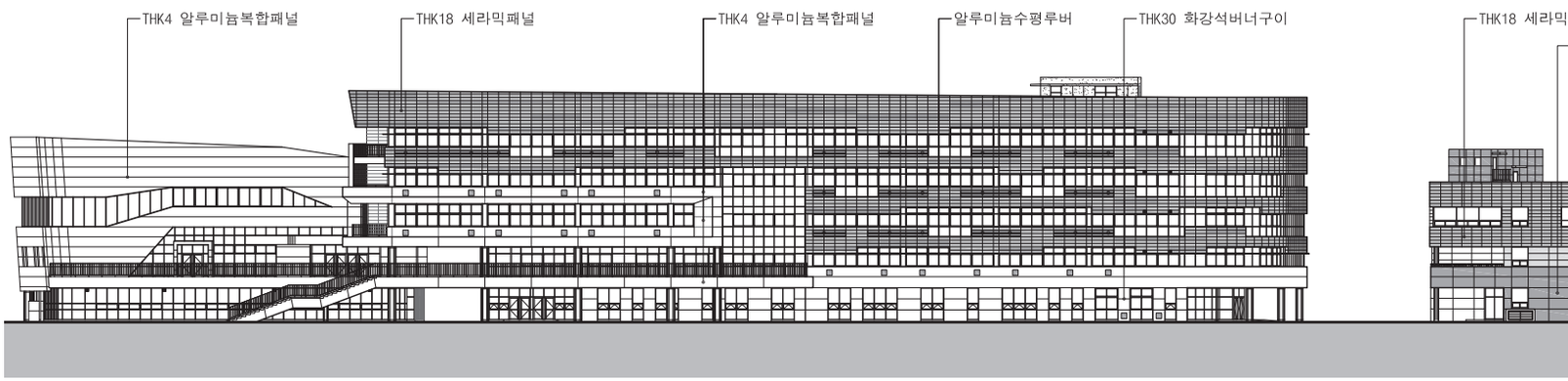
늘푸른마당(야외공연장)

만남의광장(후문진입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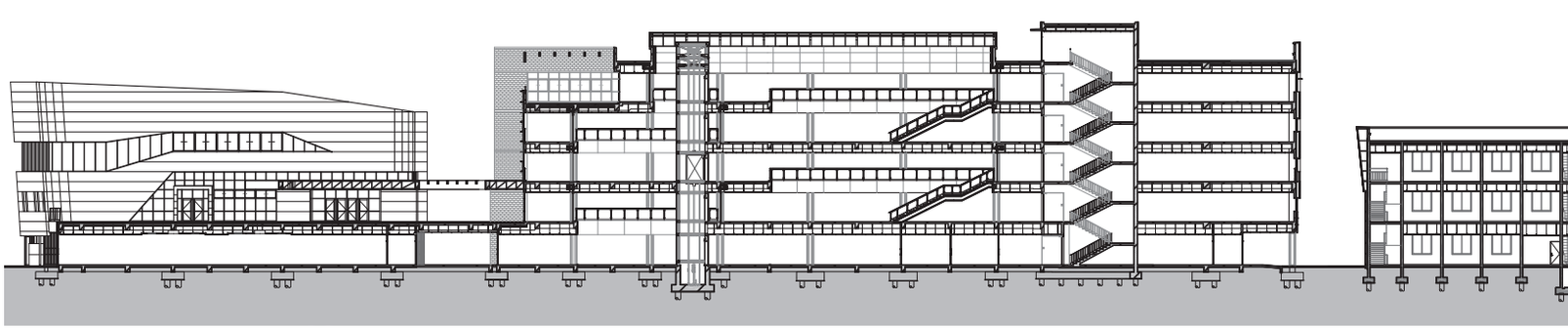


2층 데크진입부

X1 4,250 | X2 8,200 | X3 9,900 | X4 9,900 | X5 8,400 | X6 8,400 | X7 8,400 | X8 4,200 | X9 8,400 | X10 8,400 | X11 8,400 | X12 8,400 | X13 8,400 | X14 8,900 | X15 | C7 9,000 | C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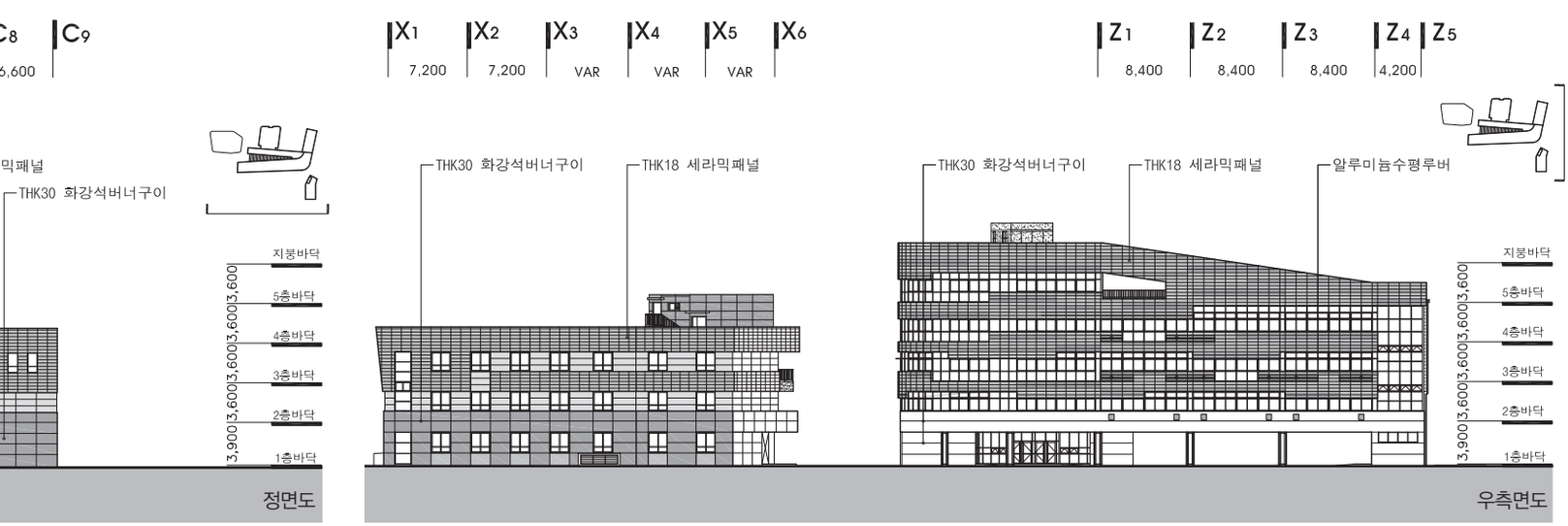
X1 4,250 | X2 8,200 | X3 9,900 | X4 9,900 | X5 8,400 | X6 8,400 | X7 8,400 | X8 4,200 | X9 8,400 | X10 8,400 | X11 8,400 | X12 8,400 | X13 8,400 | X14 8,900 | X15 | X1 7,200 | X2 7,200 | X3 V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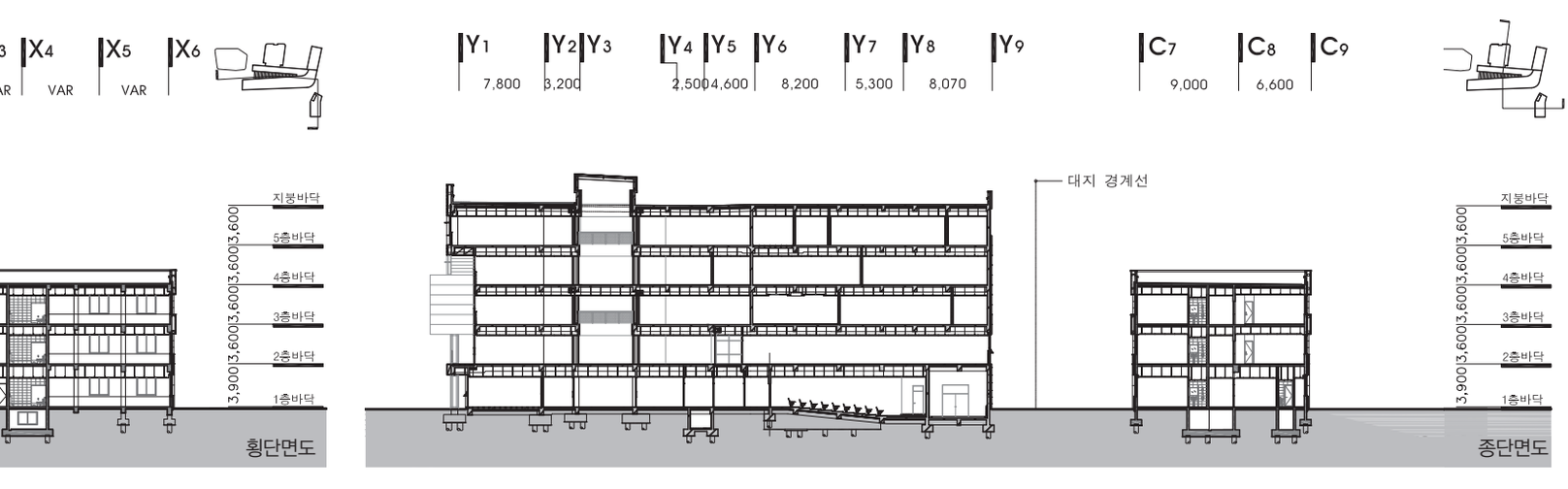


2층 옥외데크

야간전경

실내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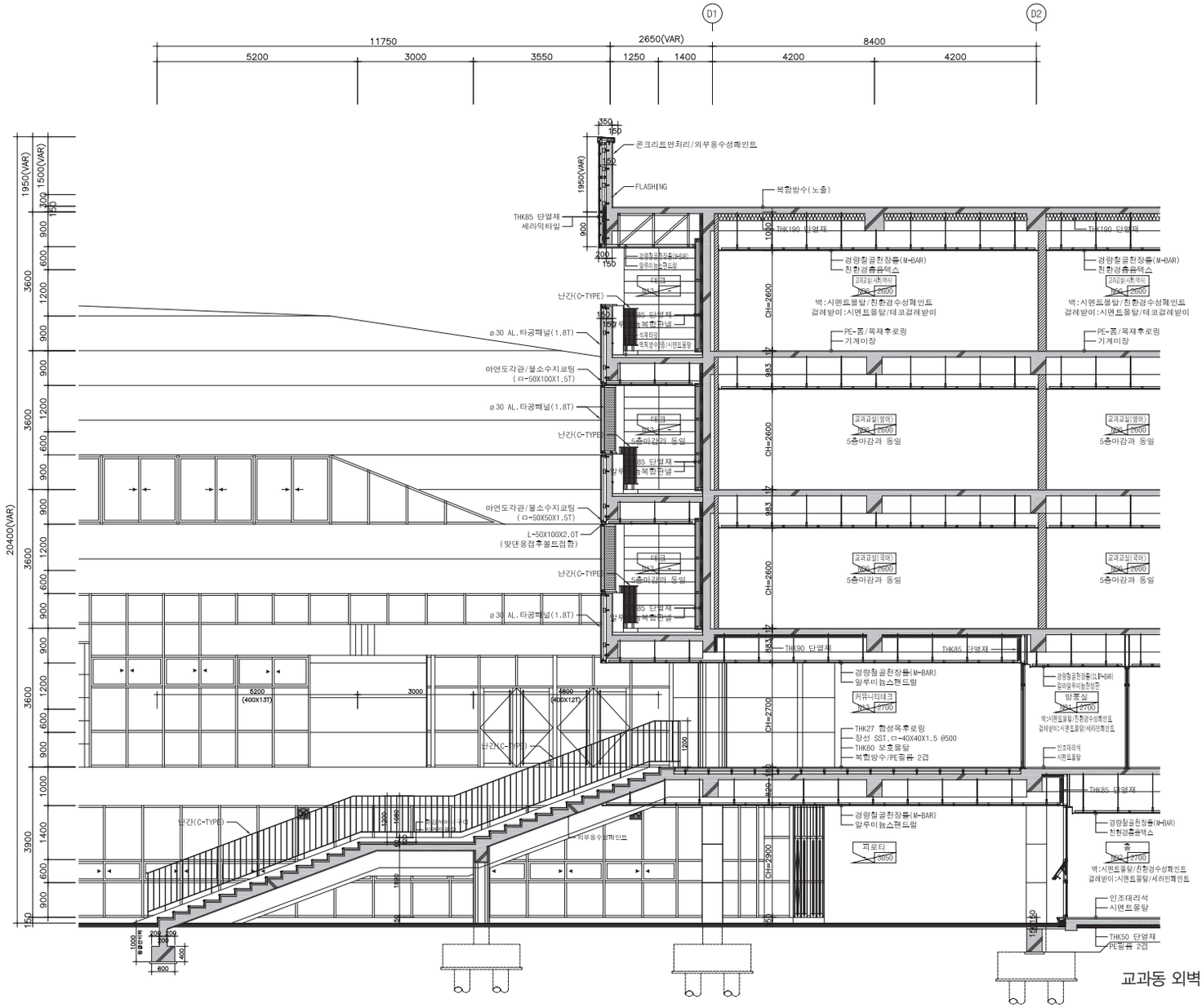


1층 학교역사전시실

방문자응접공간

2층 Common Space

Wee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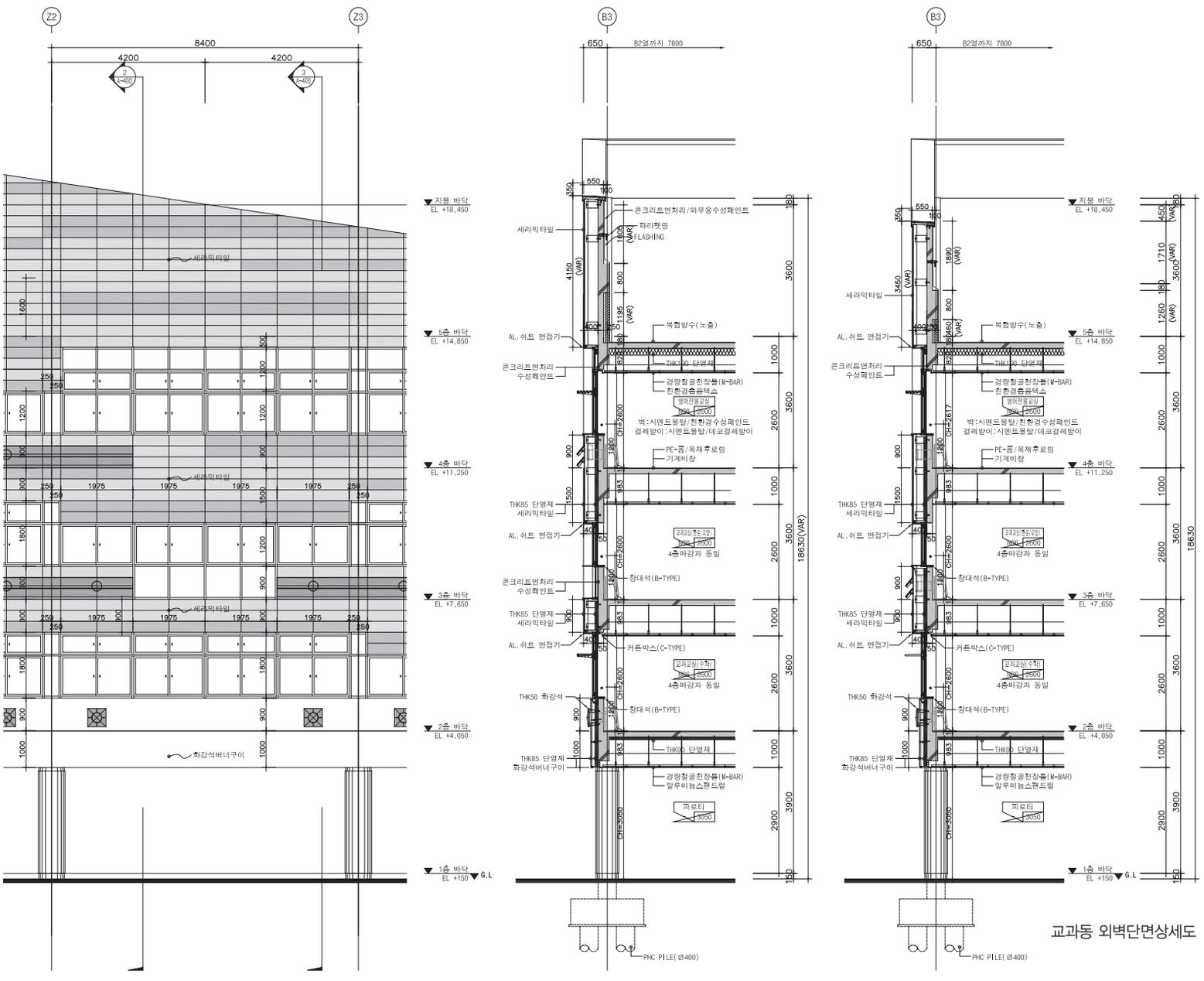
교과동 외벽단면상세도

기숙사

북카페

도서실

3층 공용공간



WORK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서관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서관

건축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계자 | 김진구_KIRA, **김은미**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이형재(Design Partner), 채성규, 박기홍, 이의진, 원영권, 윤은주, 김민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CH엔지니어링, 아이스트
  - 토목분야 : 다솔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우원M&E
  - 전기통신설비분야 : 정우종합기술
  - 소방분야 : 남도티이씨
  - 조경 : 씨토포스
  - 인테리어 : 앨엔케이디자인

감리자 | 가람건축

시공자 | 계룡건설 + 동부건설 + 현대산업개발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6,191.9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194.87㎡
연면적(Gross Floor Area) | 29,922.4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7.59%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3.77%
규모(Building Scope) | B3 – 7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붉은벽돌, 티타늄징크, 노출콘크리트, FC패널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12. 09. ~ 2010. 07. 30.
공사기간 | 2010. 08. 01. ~ 2012. 08. 25.

Client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rchitect | Kim, Jin-ku / Kim, Eun-mi

Project team | Lee, Hyung-jae(Design Partner) / Chae, Seong-kyu / Park, Ki-hong
Lee, Eui-jin / Won, Young-kwon / Yun, Eun-ju / Kim, Mi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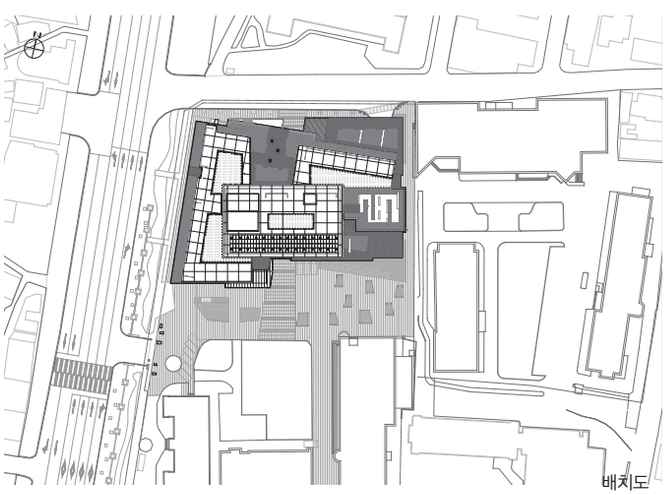
Location | 86, Daehak-ro, Jongno-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CH Engineering
HVAC Engineer | WOOWON M&E
Electrical Engineer | Jungwoo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Brick, Titanium Zinc, Exposed Mass Concrete, FC Panel
Design period | 2009. 12. 09. ~ 2010. 07. 30.
Construction period | 2010. 08. 01. ~ 2012. 08. 25.

도시는 저마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곳으로써의 특징이 살아 있을수록 그 가치는 배가된다.
대지가 위치하는 대학로는 4대문 안의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최근 도시계획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공공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적 지침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다. 대학로의 경우는 2000년대에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지침들이 마련되면서 공간에서 입면에 이르기까지 도시 및 건축적 제약이 사업에 많은 부분 영향을 주었다.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역시 대학로의 컨텍스트를 연결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로써의 새로운 얼굴과 최적의 연구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은 역사와 도시,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축이었다.

대문과 담장을 없애고, 중앙에는 넓은 광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저층부는 두 개의 매스로 분절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했다.
규모의 50%가 넘는 교수연구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변건물들의 규모가 4~5층인 점을 고려하여 3~5층 중층부에 집중배치하고 주변과 유사한 볼륨으로 분절, 붉은 벽돌로 마감하여 규모가 주는 위압감을 상쇄시키고, 대학로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했다.

두 개의 축에 의해 사다리꼴로 만들어진 공간을 친환경 아트리움으로 활용해 낮은 천장고의 답답한 느낌을 상쇄시키고, 겹중복도의 계획을 편복도로 느껴지게 하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사선제한에 의해 볼륨이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중저층부 지붕을 활용한 다양한 옥외 데크는 아트리움과 함께 소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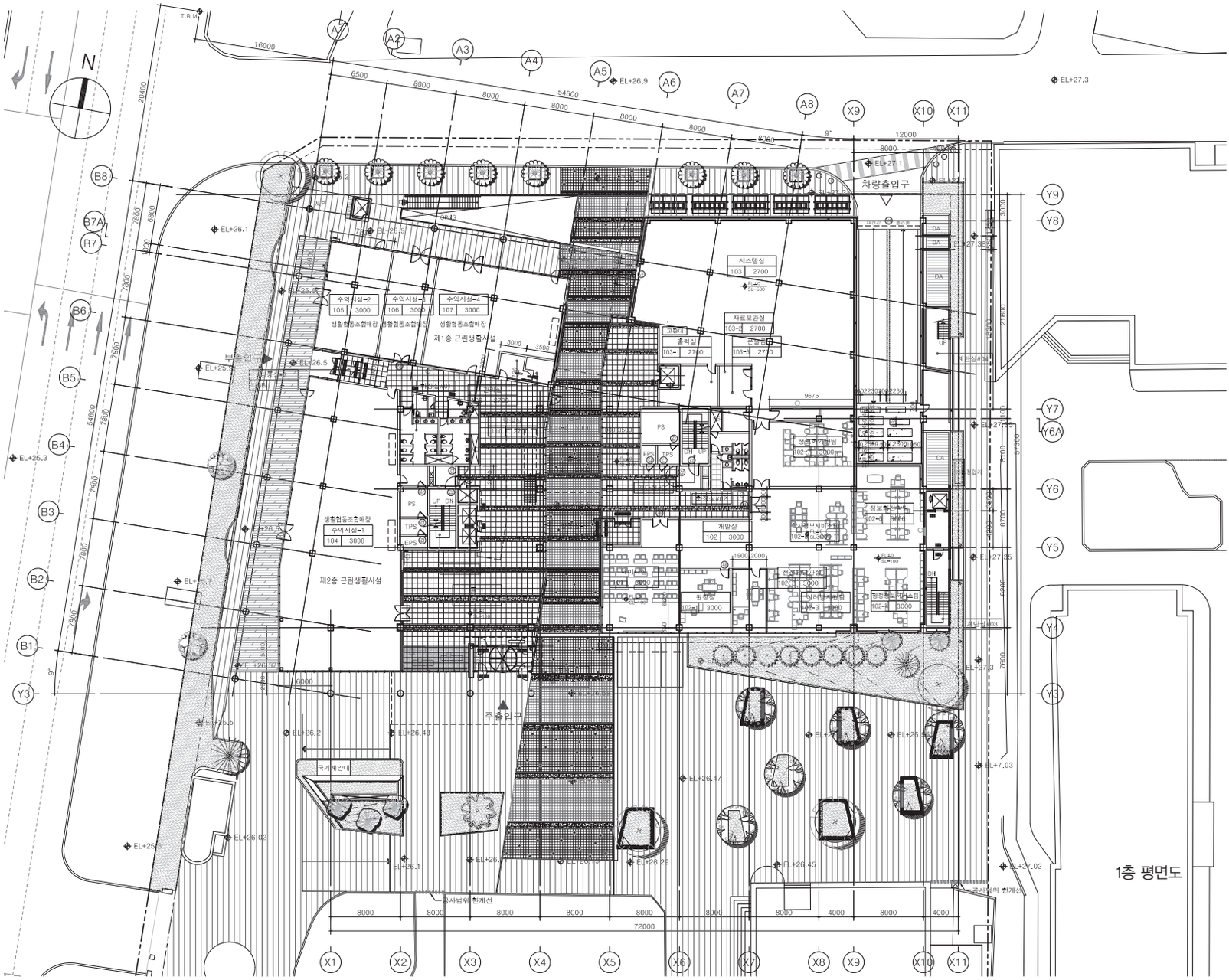


배치도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중앙광장

대학로변은 주변과 유사한 볼륨으로 분절, 벽돌로 마감

대학로변에서 바로본 서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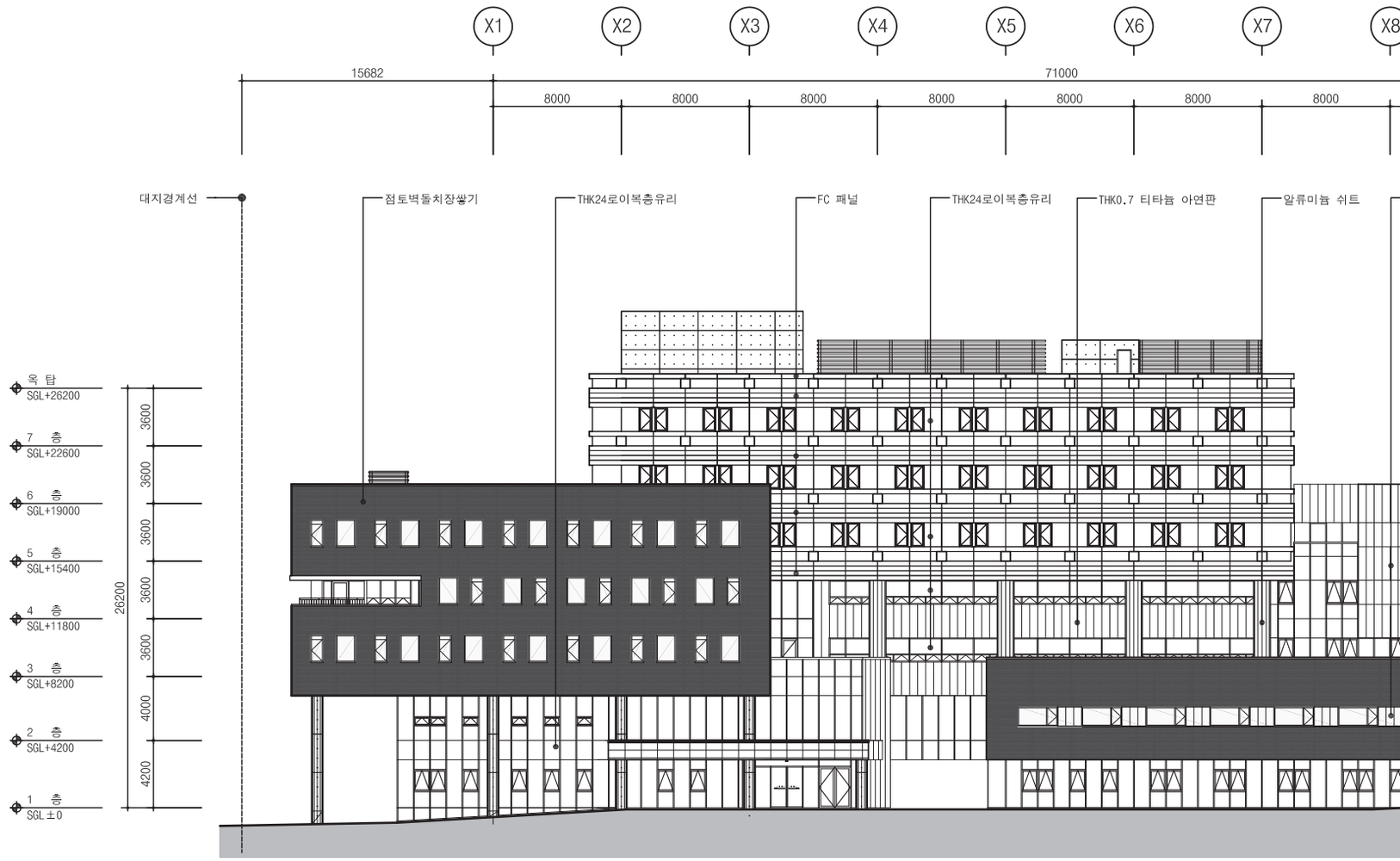
저층부 지붕을 활용한 3층 휴게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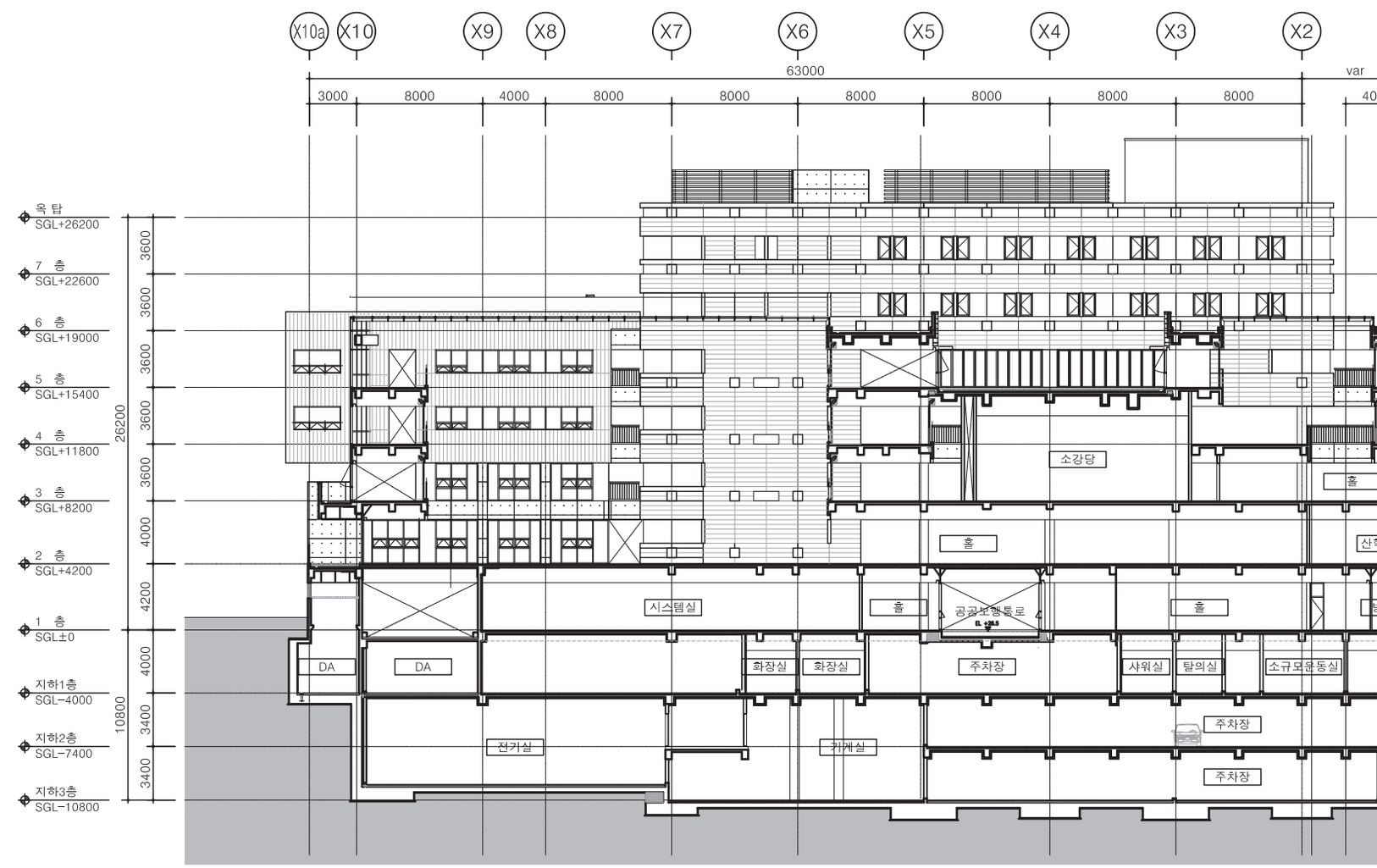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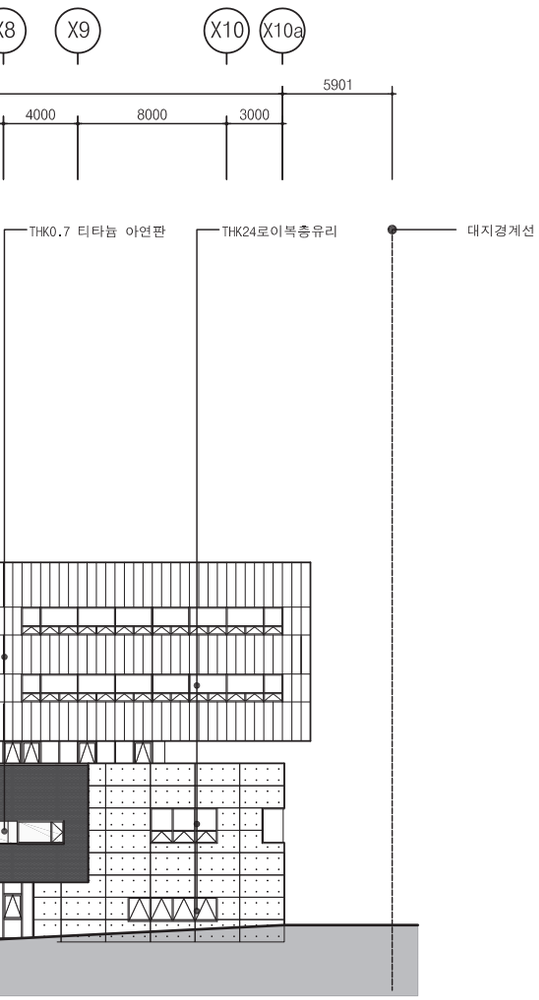
1층 두 건물 사이의 공공보행통로로 시민들이 통과하는 모습

5층 휴게데크의 모습으로 전면 세미나실의 홀딩도어를 열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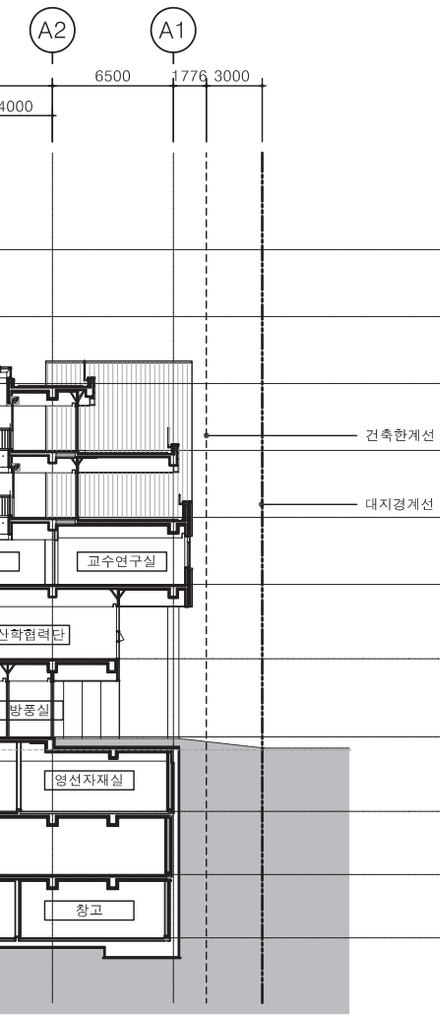
친환경 아트리움의 모습, 휴게와 회의실로 사용


X1
X2
X3
X4
X5
X6
X7
X8
15682
71000
8000
대지경계선
점토벽돌치장쌓기
THK24로이복층유리
FC 패널
THK24로이복층유리
THK0.7 티타늄 아연판
알류미늄 쉬트
옥 탑
SGL+26200
7 층
SGL+22600
6 층
SGL+19000
5 층
SGL+15400
4 층
SGL+11800
3 층
SGL+8200
2 층
SGL+4200
1 층
SGL ±0
26200
3600
4000
4200


X10a
X10
X9
X8
X7
X6
X5
X4
X3
X2
63000
3000
8000
4000
옥 탑
SGL+26200
7 층
SGL+22600
6 층
SGL+19000
5 층
SGL+15400
4 층
SGL+11800
3 층
SGL+8200
2 층
SGL+4200
1 층
SGL±0
지하1층
SGL-4000
지하2층
SGL-7400
지하3층
SGL-10800
26200
10800
3600
4000
4200
3400
소강당
홀
시스템실
공공보행통로
DA
화장실
주차장
샤워실
탈의실
소규모운동실
전거실
카페실
주차장



남측면도



단면도

5층 세미나실을 휴게데크와 연결하여 다용도로 사용가능

2층 홀에서 로비를 바라봄

1층 대학로변의 북카페로 시민들에게 개방

SI Automotive 사옥 및 플랜트

SI AUTOMOTIVE OFFICE BUILDING AND PLANT

건축주 | **SI Automotive Co.,Ltd.**

설계자 | **유영재**_KIRA |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이홍엽, 원혜연, 오애향, 이중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제원E&C, 동성중공업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기성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서진설비설계사무소
  - 토목분야 : 한길

감리자 |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홍성건설**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498번지

주요용도 | 공장(사무동)

대지면적(Site Area) | 32,958.1㎡

건축면적(Building Area) | 18,854.58㎡

연면적(Gross Floor Area) | 20,091.0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21%

용적률(Floor Area Ratio) | 60.96%

규모(Building Scope) | A동 3F, B동 2F, C ~ H동 각각 1F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 T4알루미늄 복합패널, T30현무암마감, T24투명토이복층유리, T100EPS횡패널,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9. 01. ~ 2011. 12. 05

공사기간 | 2012. 01. 09. ~ 2012. 08. 10

사진(Photographer) | 이원은(studeo by geo)

Client | SI Automotive Co.,Ltd.

Architect | Yoo, Young-jae

Project team | Lee, Hong-yeop / Won, Hye-youn / Oh, Ae hyang / Lee, Jung-hwan

General Contractor | HongSung Cons.

Location | 498, Daewon-ri,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Structure | S.C, R.C

Structural Engineer | Jewon E&C, DSHI Co.,Ltd.

HVAC Engineer | Seojin Facilities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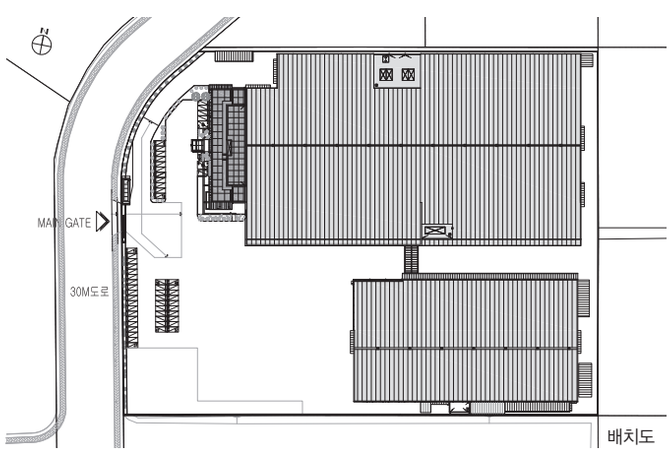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Gisung E&C

Civil Engineer | Hankil Co.,

Finishing Materials | T4 Aluminum composite panel, T30 Basalt, Exposed concrete, T24 Efficiency low-E windows, T100EPS R-Panel,

Design period | 2011. 09. 01 ~ 2011. 12. 05

Construction period | 2012. 01. 09. ~ 2012. 08. 10



배치도

사무동 전경

SI Automotive는 『경쟁력과 창의력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사옥과 대규모 플랜트를 건축하게 되었다. SI오토모티브의 사옥 및 플랜트 디자인을 결정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은 '회사가 현재도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강한 믿음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표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단, 목표를 향해 날아가기 직전의 활과 화살의 모습을 디자인 콘셉트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건물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살이 강하게 멀리가기 위해서는, 수평이 아니라 전방을 향해 위로 치켜올려진다. 이를 디자인요소로 정하여, 건물의 상부 직선은 남쪽의 넓은 공간으로 치켜올려져서, 강한 상승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또한 활을 단단히 잡고 최대한의 힘을 집중시키고 있는 손의 모습을 담기위해, 거칠지만 강한 느낌의 노출콘크리트로 하부 기단부를 형성하여 강한 상승과 그것을 받쳐주는 탄탄한구조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노력 하였다.

건축물의 외부에 주로 사용된 건축자재는 현무암인데, 무광이면서 유공질인 현무암이 주는 편안함은, 강한 상승감을 추구한 건물외관의 형태로 인해 사용자가 느낄지도 모르는 시각적 피곤함을 상쇄시킬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외부에 사용된 현무암 석재판을 실내의 로비 부분과 주계단실, 그리고 실내정원 벽체에도 적당량 사용하여, 외부의 디자인적인 질감과 편안한 느낌이 실내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도록 고려 하였다. 또한, 사무공간부분과 플랜트공간부분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업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동선체계를 구축하였다.

개방된 남쪽방향 공간으로, 마치 태양을 향해 강하게 비상하는 모습의 건물형태처럼, SI Automotive의 미래의 모습도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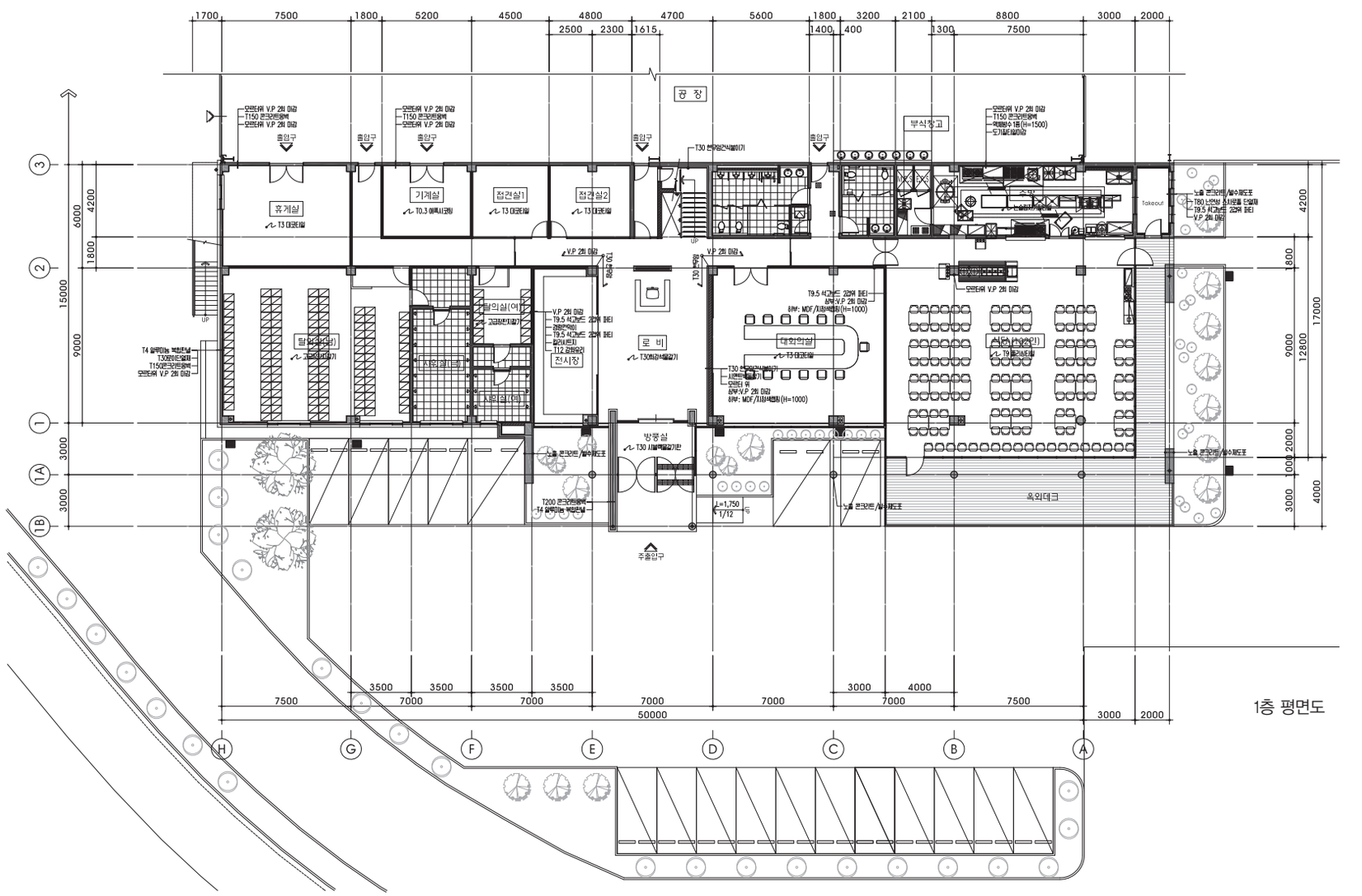
주출입구

사무동

사무동

공 장
소외의실
서버실
사 무 실
사 무 실
사장님실
옥외데크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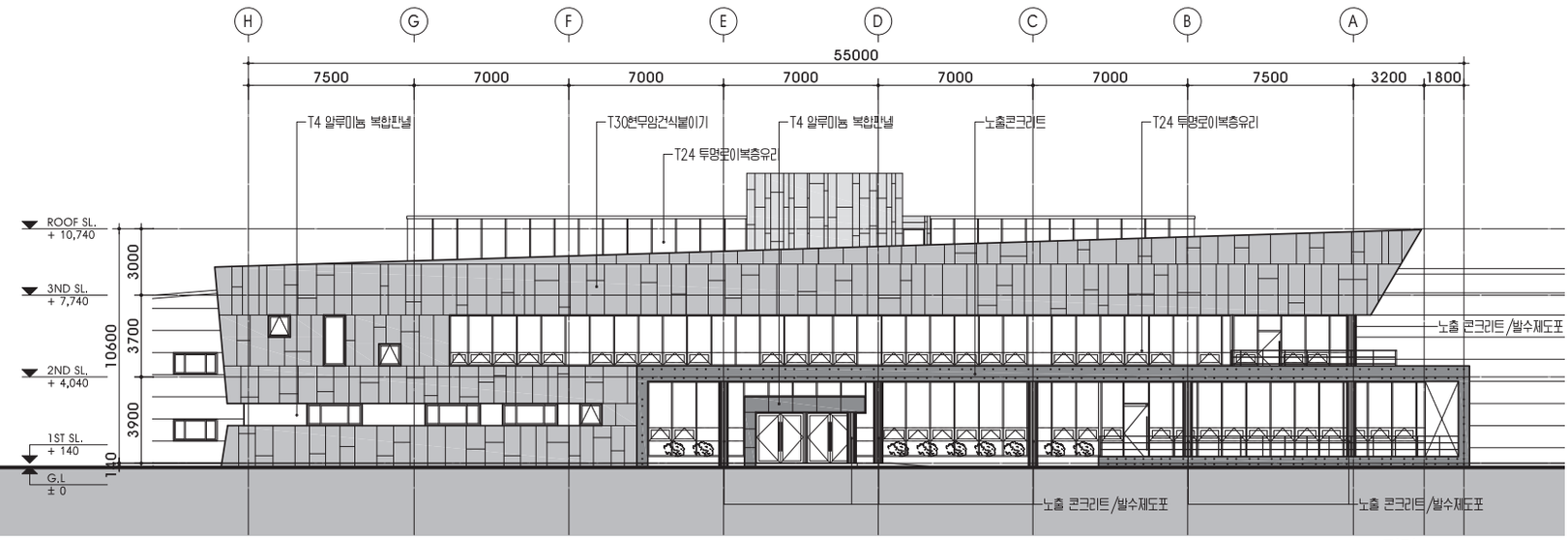


공 장
부식창고
휴게실
기계실
접견실1
접견실2
탈의실(남)
탈의실(여)
시위실(남)
시위실(여)
전시장
로 비
대회의실
방풍실
주출입구
옥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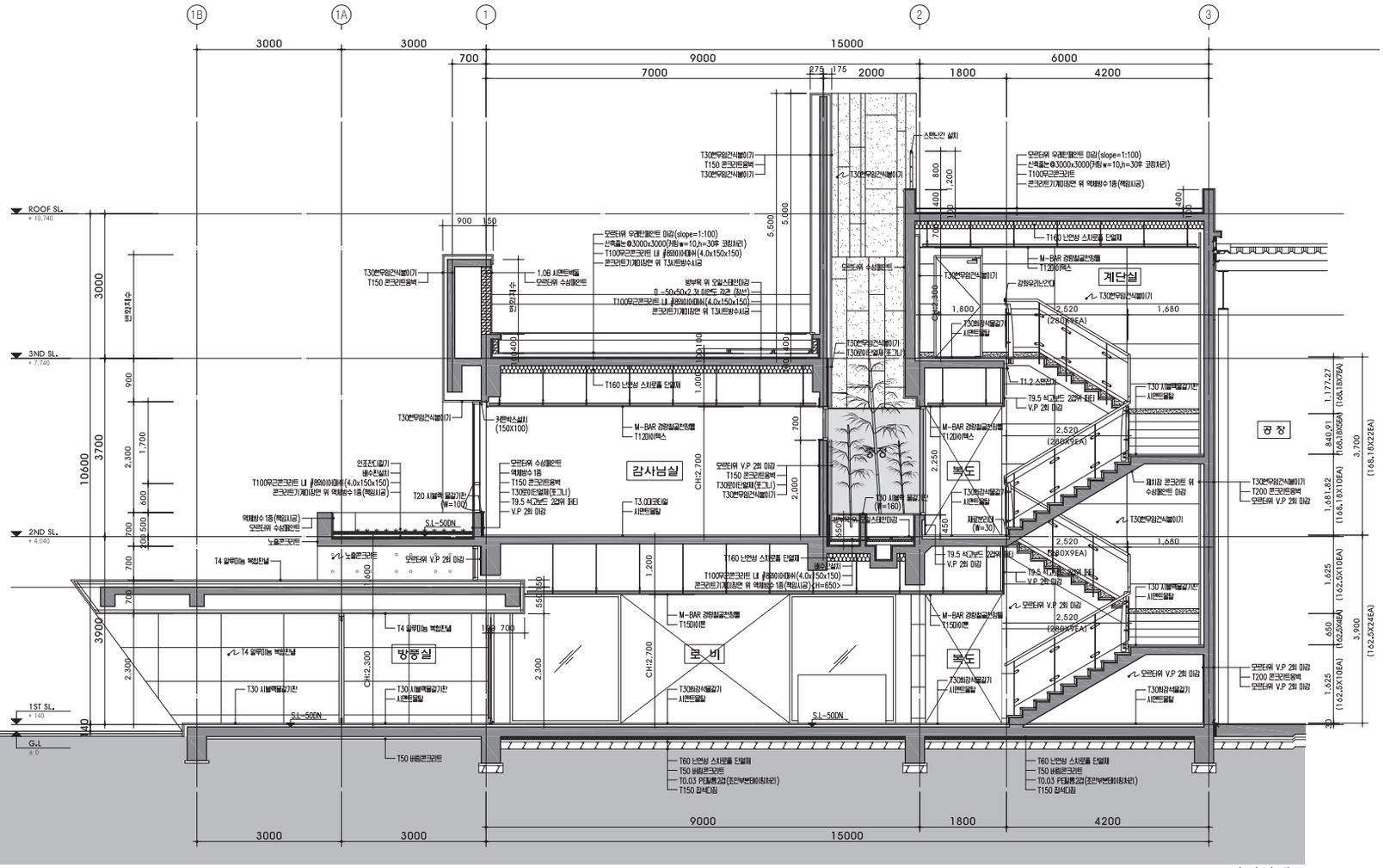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사무동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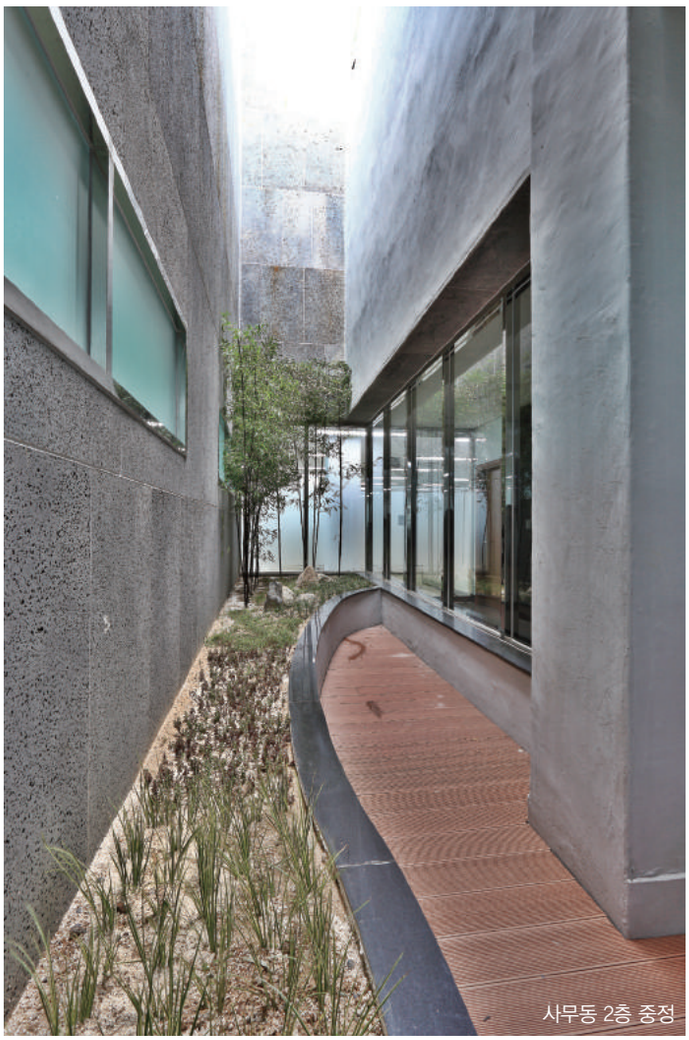
식당



정면도



단면상세도



사무동 2층 중정

사무동 옥외 데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기술교육센터 및 제2기숙사

GYEONGGI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SMALL AND MEDIUM BUSINESS TECHNOLOGY TRAINING CENTER &
SECOND DORMITORY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기술교육센터 및 제2기숙사

건축주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설계자 | 이만수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 설계팀 : 한윤택, 박종일, 박상혁, 안한주, 송원욱, 박수영, 이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하이구조
  - 기계 · 전기 : (주)건창기술단
  - 토목 : 나우엔지니어링

감리자 | (주)종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2-2 경기공업대학내

대지면적(Site Area) | 47,331.3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137.34㎡(증축부분)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803.40㎡(증축부분)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63%(증축부분)

용적률(Floor Area Ratio) | 39.73%(증축부분)

규모(Building Scope) | 1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적벽돌, 베이스패널, THK24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기) | 2010. 09.~ 2011. 01.

공사기간 | 2011. 02.~ 2012. 02.

사진(Photographer) | Park, Won-sun

Client | Gyonggi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Architect | Lee, Man-su

General Contractor | SAMIL ENTERPRISE

Location | 2122-2, Jeongwang-dong, Siheu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 S.C

Structural Engineer | HI Structural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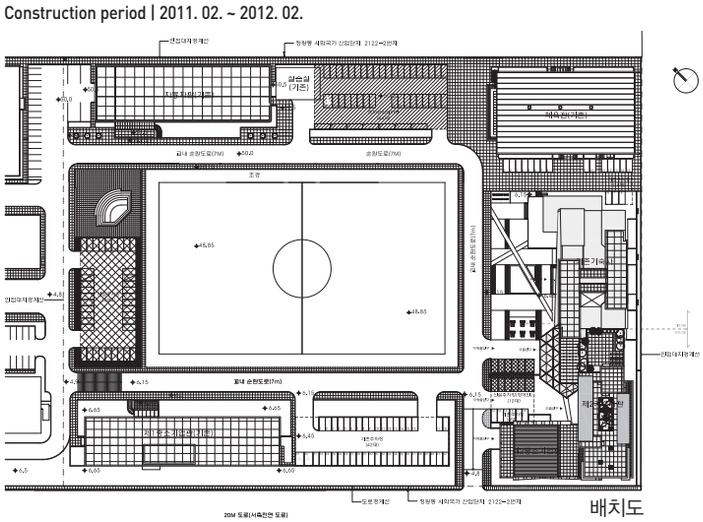
HVAC Engineer | KUNIL MEC

Electrical Engineer | KUNIL MEC

Finishing Materials | Bace Panel, Pair Glass, Brick, Al-Sheet

Design period | 2010. 09. ~ 2011. 01.

Construction period | 2011. 02. ~ 2012. 02.



배치도

주출입구

UNIQUE UNION

공단 안에 세워진 오아시스와 같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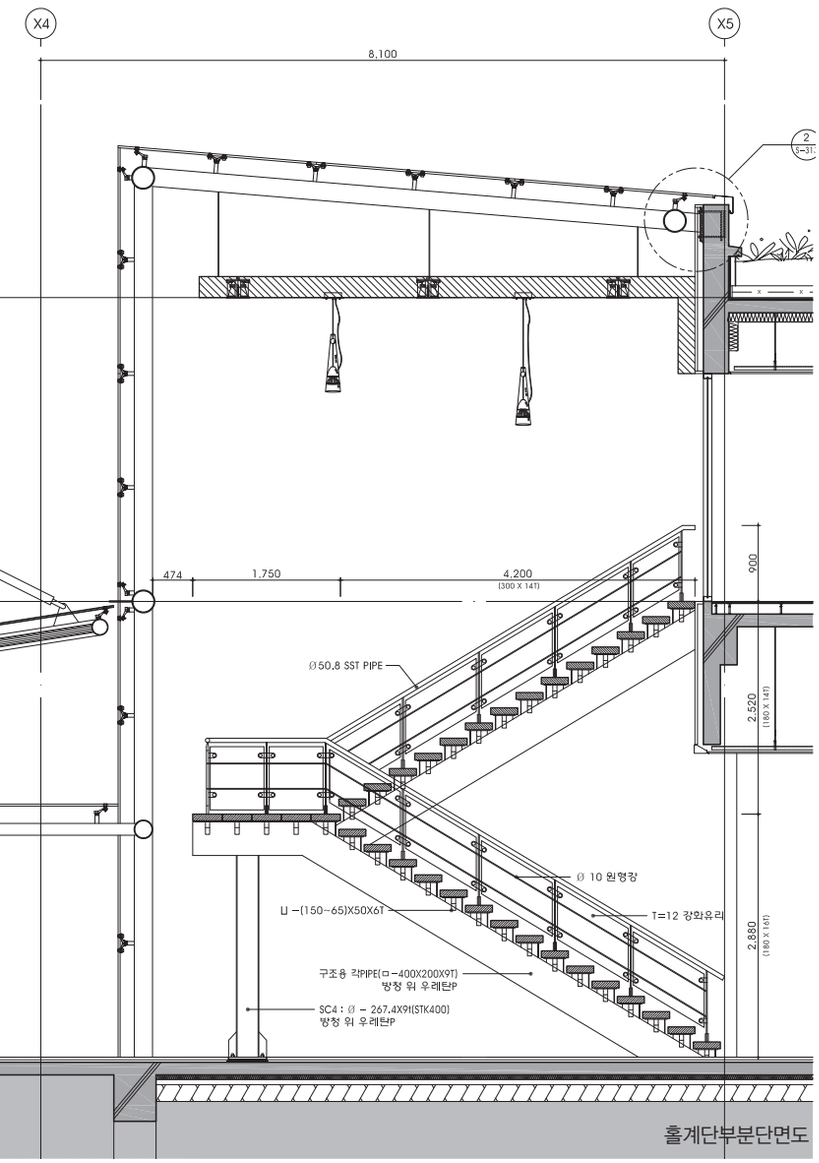
맨 처음 사이트에 들어섰을 때 들은 생각이다.

주변가로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거리에는 지나는 사람보다 화물차가 더 많다. 인접한 기아자동차공장부지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승용차들이 출고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있다. 푸르게 열린 하늘을 풍경삼아 학교에서(어쩌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제1기숙사건물이 외로이 삐죽 서 있다.

학교 측에서는 제1기숙사 옆에 부족한 시설을 메워줄 제2기숙사와 저층에 주변 공단과의 산학협력을 도모할 중소기업관을 짓는 것을 요구하였다. 부족한 학교 부지를 감안하여 저층에는 중소기업관을 상부에는 제2기숙사를 짓기로 협의하였다.

막연히 제1기숙사와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노라. 1층에서는 함께 공유할 공간과 각각의 독립성이 보전되면서도 동시에 동선이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노라. 적은 예산을 감안한 저예산 설계 등등이 학교 측 요구사항이다.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설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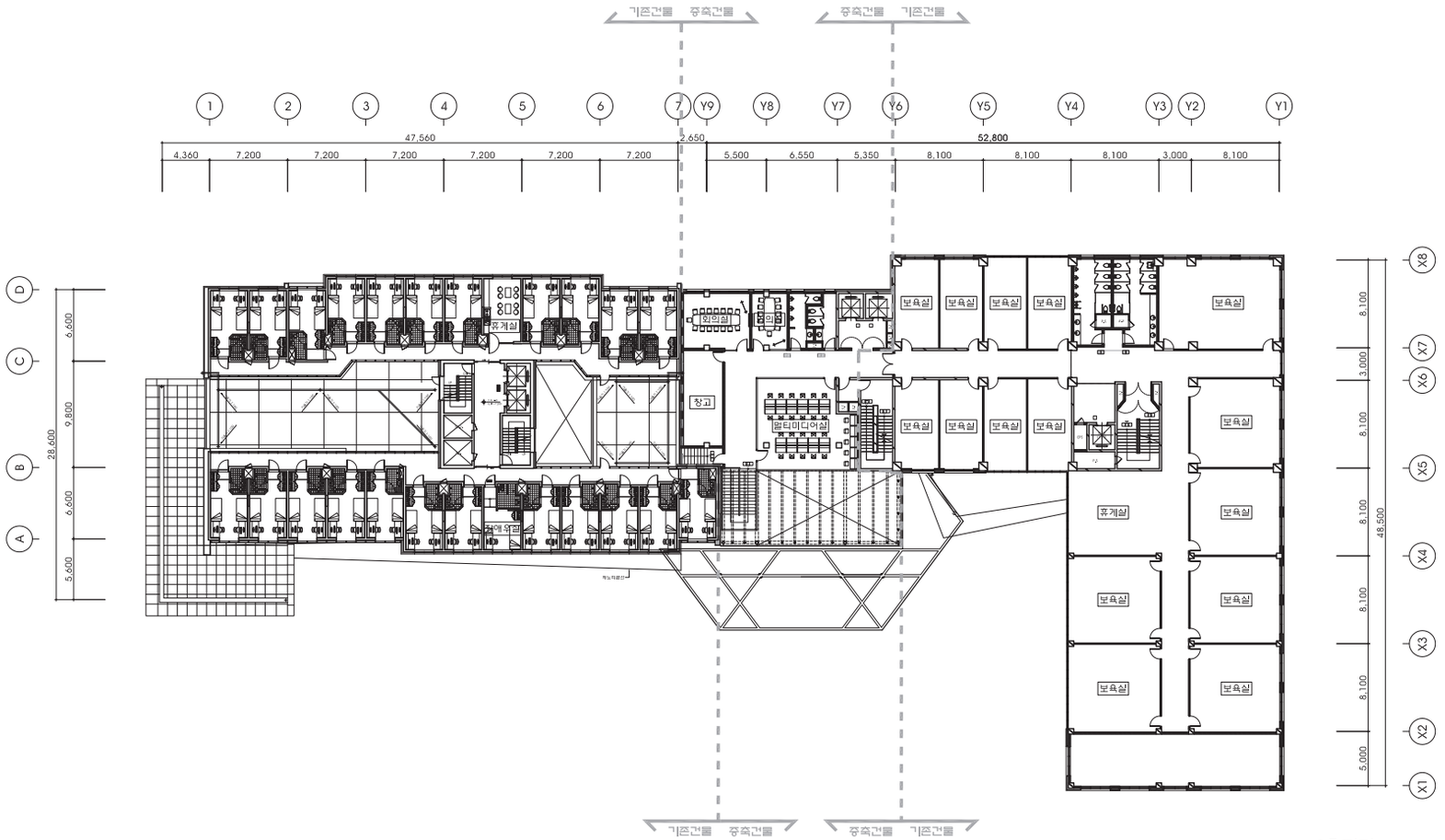


홀계단부분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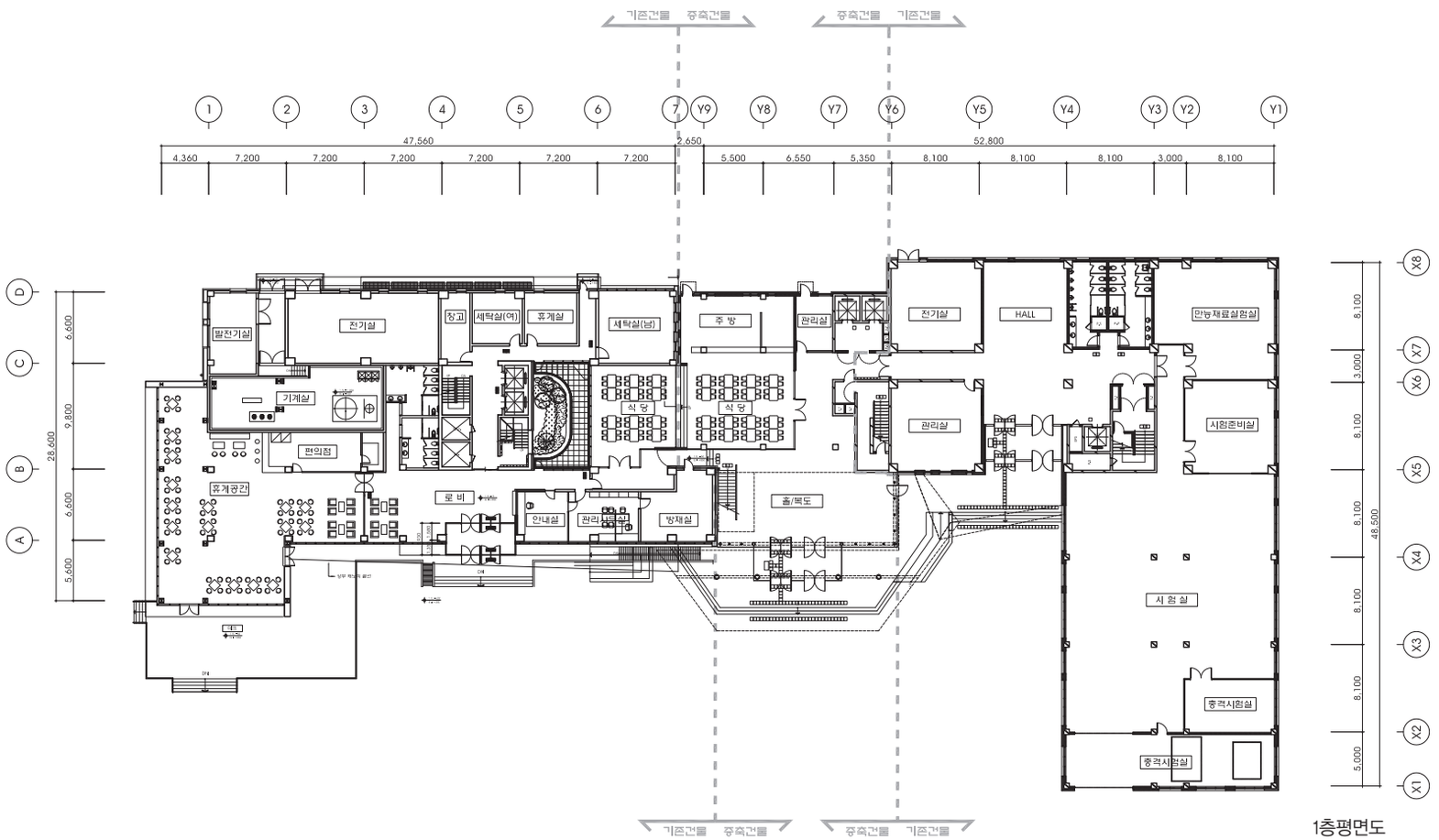
로비

먼저 기존 제1기숙사 건물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벽돌로 주조를 이룬 외관과 기능적인 평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설.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만족스레 이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왠지 생뚱맞다. 주변의 환경도 그렇지만 기념비적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고, 친근하다고 여기기엔 너무 높다.

과도한 형태적 유희보다는 기존의 건물과 잘 어우러진 건물을 만들어야겠다. 시간을 두고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으며 친근한 건물을 만들어야겠다. 기능에 충실하여 실용성을 가진 건물을 만들어야겠다.
평면적 동선의 연결과 통일성을 갖는 재료의 사용을 통해 처음 보는 사람이 동시에 지어진 건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조화를 이루지만 일률적이지 않아야 하며, 기념비적이지 않으나 특징이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었다.
적은 공사비는 계획에 많은 제약조건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정해진 조건에서 알뜰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히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들여야 할 수고인데도, 남의 돈으로 지을 땐 그리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들어버린 습관에 관념을 지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기존건물과 제2기숙사는 기능이 같고 서로 떨어져 있어 큰 문제는 없었으나, 중소기업관과의 동선연결은 기숙사의 사생활보호에 방해가 되었다. 소방→방범→관리의 우선순위로 평면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기능적이며 실용성 있는 평면이 구성되었고, 1기숙사와는 적절한 간격을 띄웠다. 동선의 연결은 상부에 하늘다리를 검토하였으나, 실제 이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도면에서 지워버렸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덩그러니 비워 놓으니 주차장으로 쓰기엔 좀 부족하고, 외부 조경공간(쉼터)정도 쓸 공간이 남는다. 프랜트박스, 낮은 앉음의자 그리고 토석벽돌을 이용한 바닥패턴 등… 고민을 하던 중학교에서 실내에서 동간 연결동선을 요구하였다.
얼마동안 쌓았던 머릿속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우드락으로 스터디모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제1기숙사, 제2기숙사, 중소기업관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와 작은 로비. 조경공간(쉼터)은 3층 낮은 하늘정원으로 이동.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을 감안하여 투명한 유리를 활용하기로 하고 운동장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였다.
마침 놓인 위치도 북측인지라 여름철 과도한 햇볕으로 인한 고민은 좀 줄었다. 비나 눈이 내릴 때를 대비하여 캐노피를 계획하였다. 역시 철과 유리를 이용하여 로비에서의 열린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건물
증축건물
증축건물
기존건물
1
2
3
4
5
6
7
Y9
Y8
Y7
Y6
Y5
Y4
Y3
Y2
Y1
47,560
2,650
52,800
4,360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5,500
6,550
5,350
8,100
8,100
8,100
3,000
8,100
D
C
B
A
6,600
9,800
6,600
5,600
28,600
X8
X7
X6
X5
X4
X3
X2
X1
8,100
3,000
8,100
8,100
8,100
5,000
48,500
휴게실
회의실
창고
멀티미디어실
보육실
휴게실
기존건물
증축건물
증축건물
기존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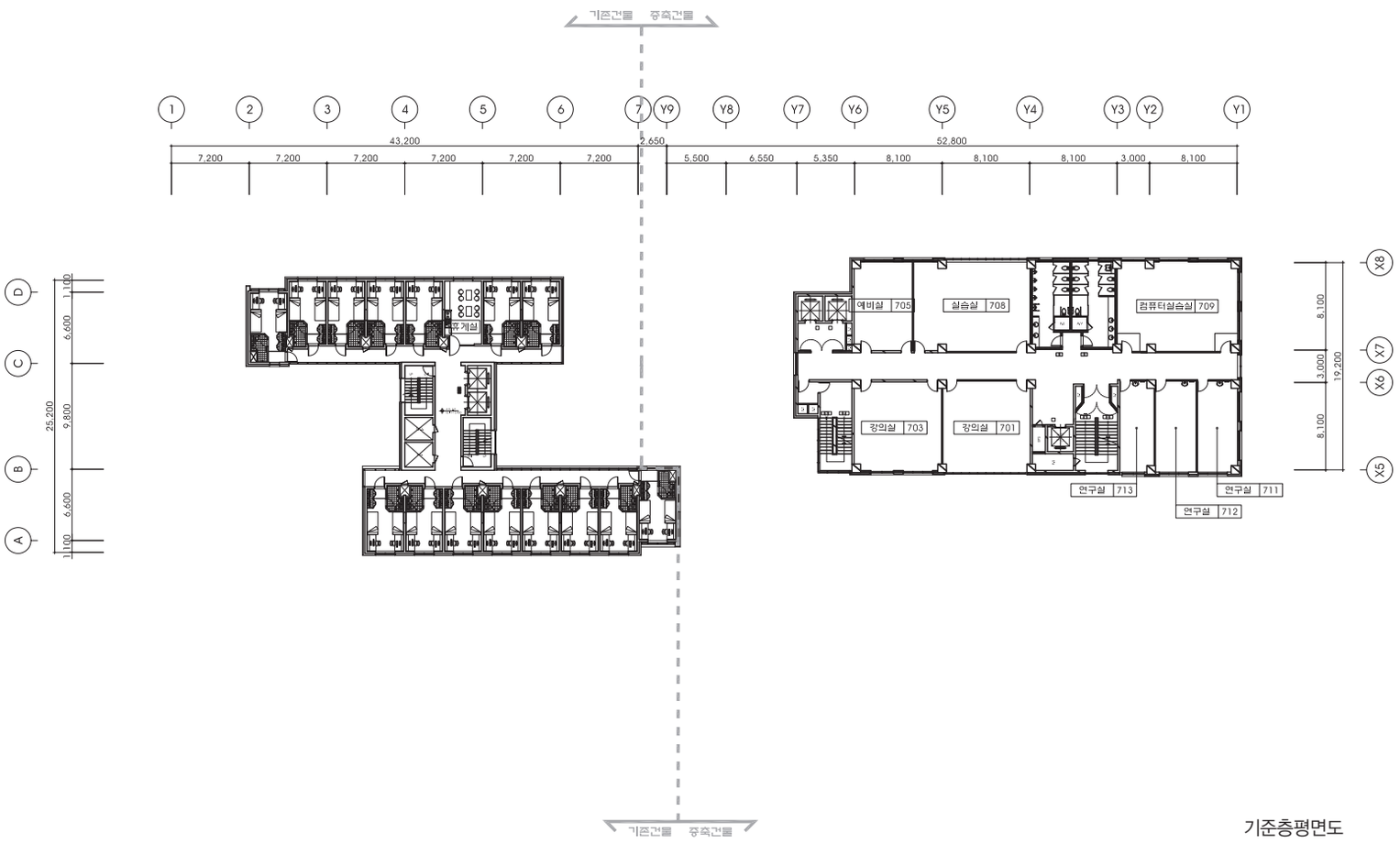
2층평면도


기존건물
증축건물
증축건물
기존건물
1
2
3
4
5
6
7
Y9
Y8
Y7
Y6
Y5
Y4
Y3
Y2
Y1
47,560
2,650
52,800
4,360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5,500
6,550
5,350
8,100
8,100
8,100
3,000
8,100
D
C
B
A
6,600
9,800
6,600
5,600
28,600
X8
X7
X6
X5
X4
X3
X2
X1
8,100
3,000
8,100
8,100
8,100
5,000
48,500
발전기실
전기실
창고
세탁실(여)
휴게실
세탁실(남)
주 방
관리실
전기실
HALL
만능재료실험실
기계실
식 당
식 당
편의점
관리실
시험준비실
휴게공간
로 비
안내실
관리실(남)
방재실
홈/복도
시 험 실
충격시험실
충격시험실
기존건물
증축건물
증축건물
기존건물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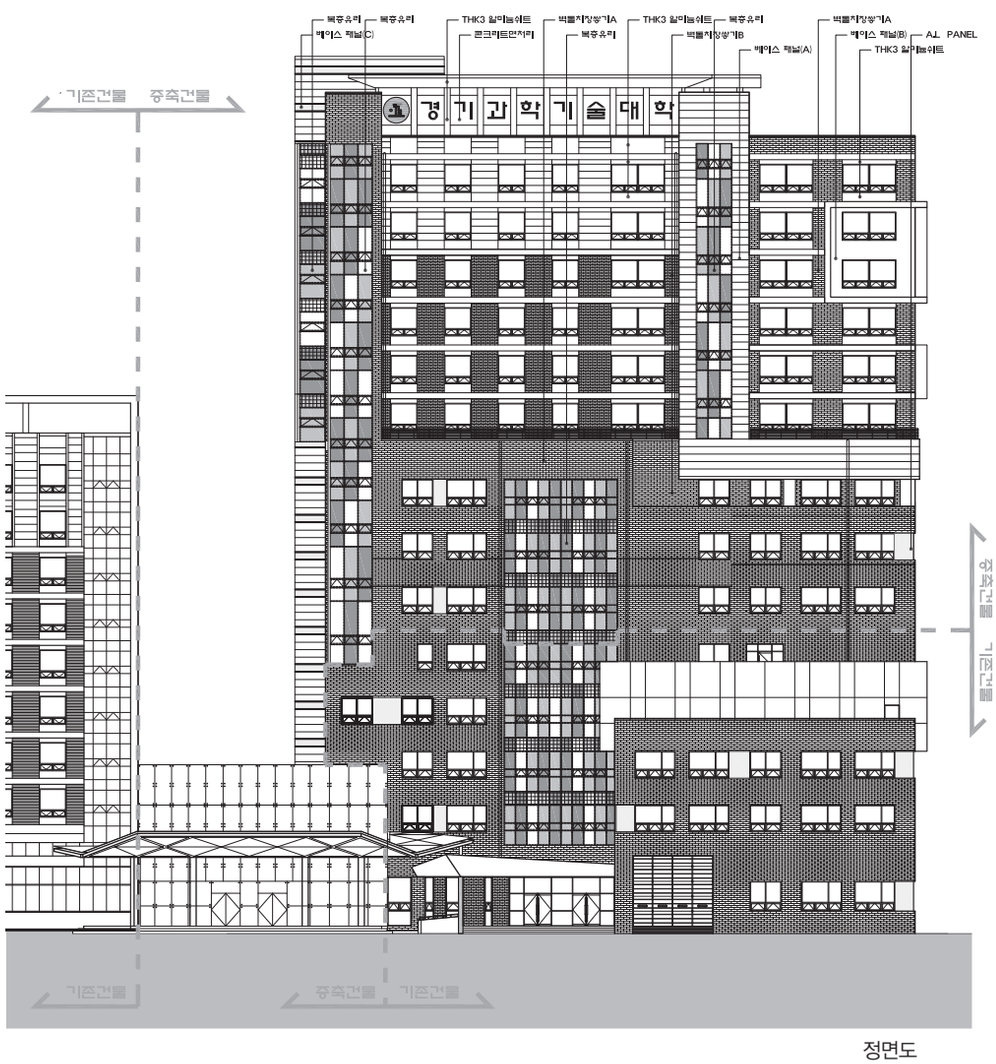
로비

계단실



기준층평면도

3층 컨퍼런스홀


복층유리
복층유리
메이스 채널(C)
THK3 알미늄쉬트
콘크리트면처리
벽돌치장쌓기A
복층유리
THK3 알미늄쉬트
벽돌치장쌓기B
복층유리
벽돌치장쌓기A
메이스 채널(A)
메이스 채널(B)
A.L PANEL
THK3 알미늄쉬트
기존건물
증축건물
경기과학기술대학
증축건물
기존건물
기존건물
증축건물
기존건물

벽돌치장쌓기A
메이스 채널(A)
메이스 채널(C)
복층유리
벽돌치장쌓기A
복층유리
증축건물
기존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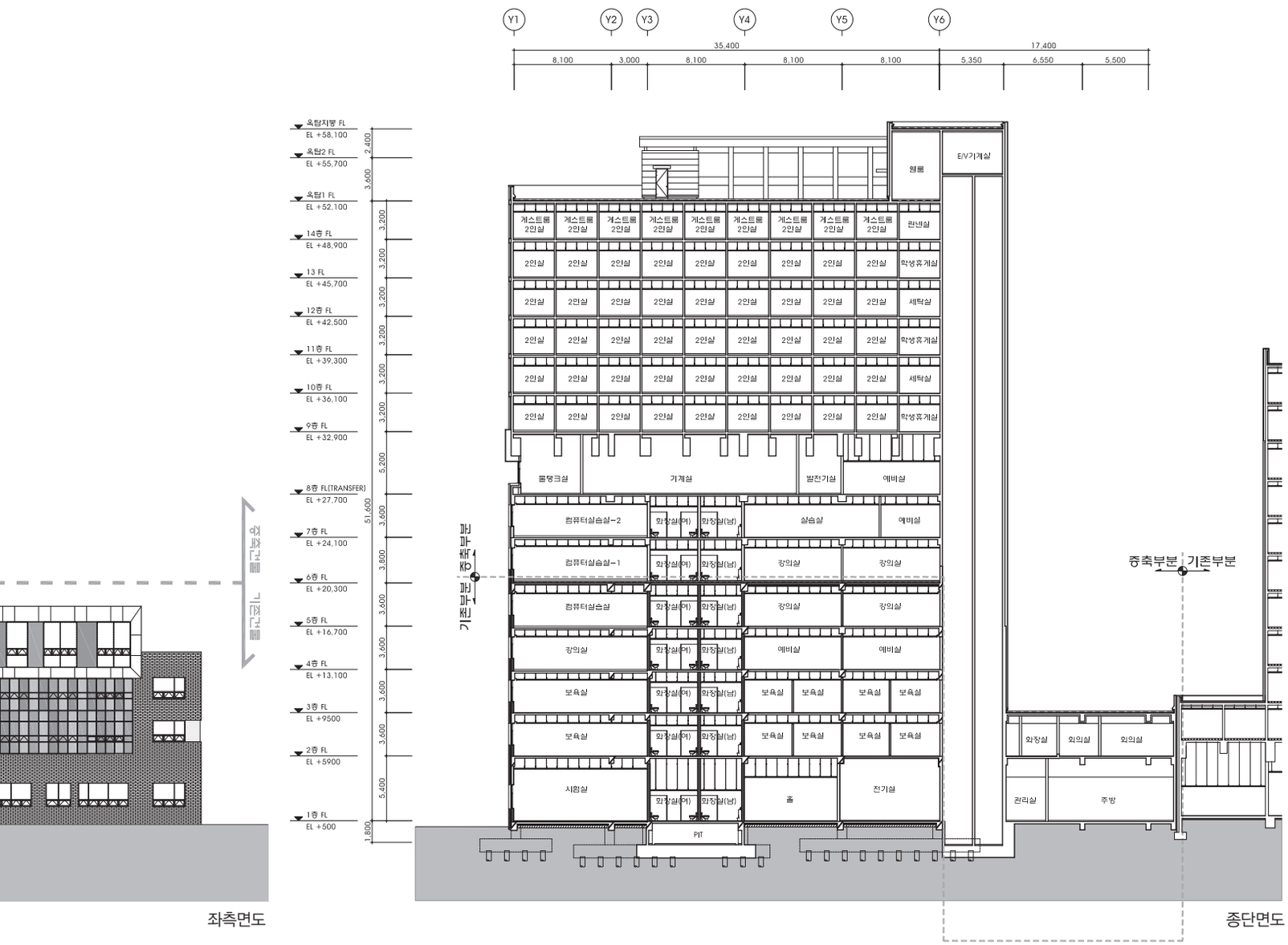
정면도

3층 컨퍼런스홀 주출입구

휴게실

1층 학생식당

게스트룸



근현대 인쇄 전시관 _당선작

MODERN AND CONTEMPORARY PRINTING MUSEUM

발주자 : 청주시

설계자 : 유보영 KIRA | (주)무심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전인목(서원대학교 건축학과), 신형식, 김태수, 박우태, 배은미, 황명진

전문기술협력
– 기계 : (주)세명이앤씨
– 전기 : (주)태창전기설계사무소
– 전시 : 열린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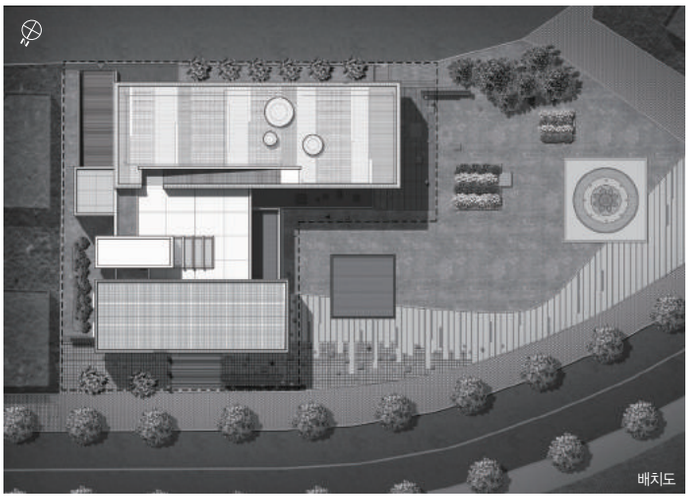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909번지 외 4필지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대지면적	1,035.70㎡
건축면적	601.88㎡
연 면 적	1,418.98㎡
건 폐 율	58.11%
용 적 률	94.6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전통)와편쌓기, 화강석버너구이, 적삼목널, 스터코마감, 로이3중유리

프로젝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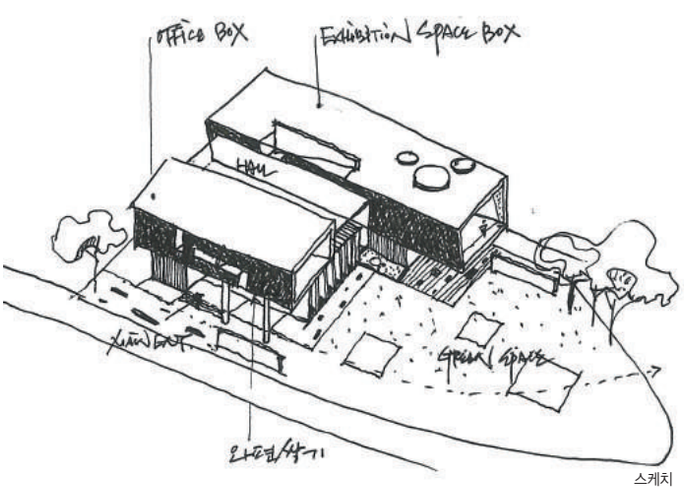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청주시 직지문화특구 내에 위치하여 기존의 고인쇄문화와 연계되는 근현대 인쇄문화에 대한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고인쇄문화의 상징인 이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주변의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주조전수관과의 조화 및 연계를 고려함은 물론 부지와 인접하여 조성 계획인 녹색쉼터와의 유기적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동선 및 건축계획

평면은 전시공간구성의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스형태를 취하며, 수공간의 상부를 오르는 일방향 계단은 녹색쉼터로 열린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면서 1층 전시공간과 2층 전시공간을 연결한다. 1층은 로비, 상설전시실과 부출입구에 인접한 수장고로 구성되어지며, 2층은 상설전시실과 북카페, 기획전시실, 인쇄문화교육실, 사무실로 구성하였다. 특히 2층의 북카페 및 휴게테라스는 전시동선의 휴식처로서 녹색쉼터로 열려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하여 인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입면은 전통형태의 비례 및 재료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특히 녹색쉼터로 열리는 입면에 고려시대 금속활자 유산인 문선과 식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인쇄전시관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2개층이 오픈된 홀을 중심으로 전시공간과 부속실들의 단면고를 기능적으로 달리 하였고, 인접건물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충분히 이격하여 배치하였다.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인 인쇄활자문화를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미래의 인쇄문화강국으로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장소로써 본 프로젝트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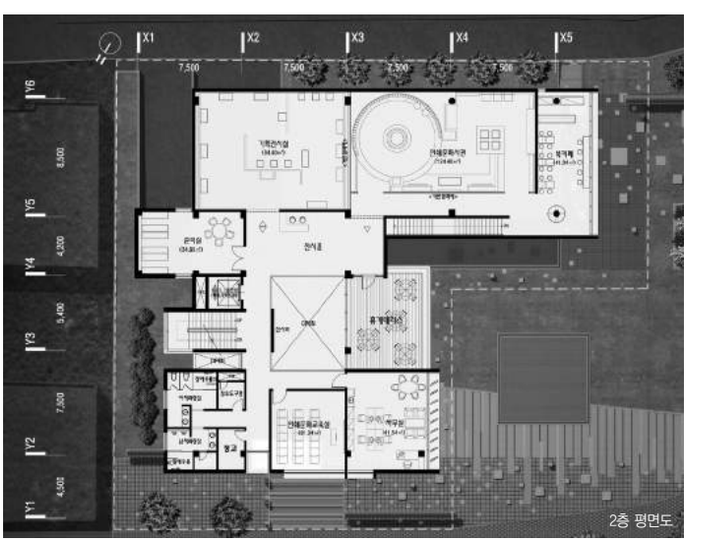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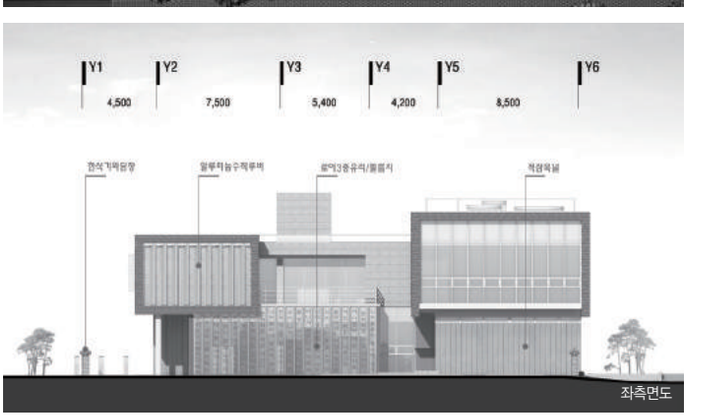
스케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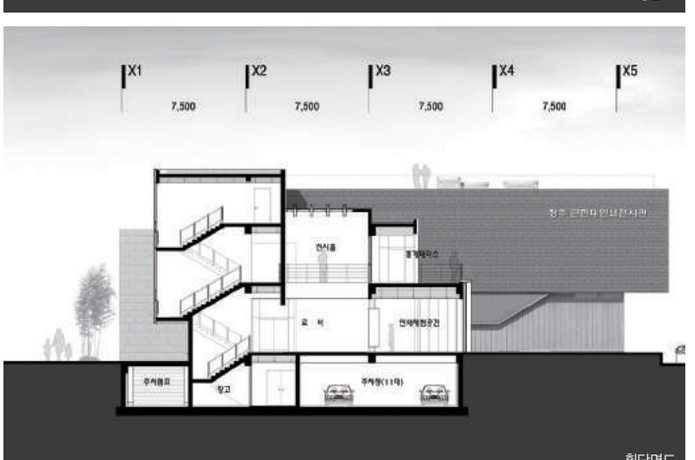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부산박물관 수장고 _당선작

BUSAN STORAGE OF THE MUSEUM

발주자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계자 : 조현석 KIRA | ㈜아이엔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송주영, 우성호, 임호택, 김창희,
조장현, 성창욱, 박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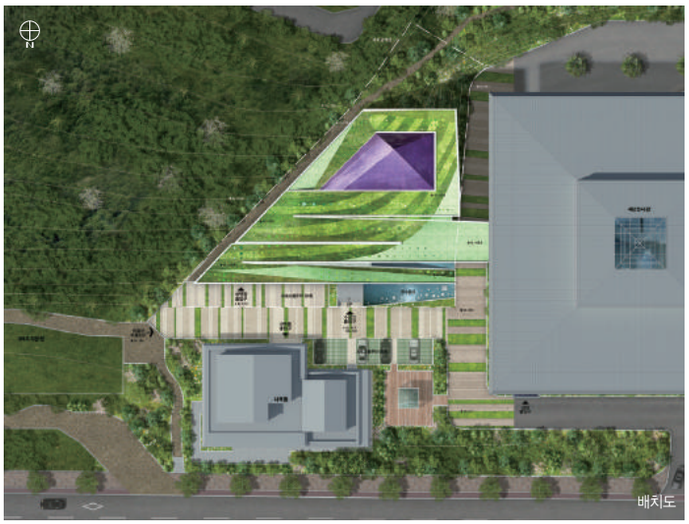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대성구조진단
- 기계/설비 : (주)세정이엔지
- 전기/통신 : 우일엔지니어링
- 토목 : (주)백인엔지니어링
- 조경 : 쌈지조경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내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문화시설, 지역특화발전특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대지면적	1,800.00㎡
건축면적	1,023.29㎡
연 면 적	3,409.59㎡
건 폐 율	56.85%
용 적 률	110.74%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자연석월패널, 화강석,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수장고는 유물보존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시설이다. 그러나 부산박물관 수장고는 인근의 UN기념공원, 문화회관과 연계한 도시 공간 속의 건축물로써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한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 드러나는 보석의 이미지를 부여한 매스형태와 재료의 사용으로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건물로써의 품격과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경사지를 이용하여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건물이 하나로 인식되도록 경사진 Green Roof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을 창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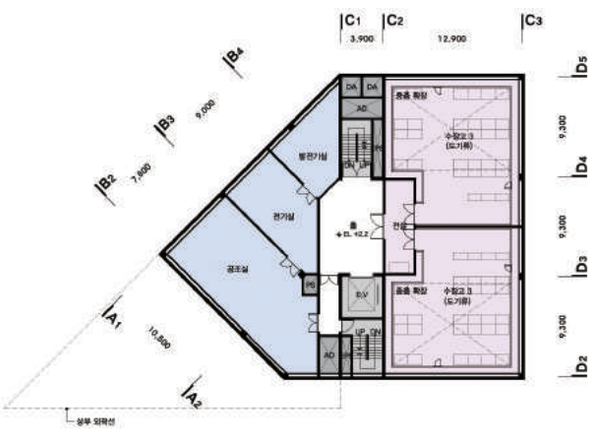
배치계획
- 경사진 기존지형에 순응한 매스구성으로 도시공간과의 조화 고려
- UN조각공원에서 UN기념공원의 녹지축을 잇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배치계획
- 기존 제2전시관, 관리동과의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계획 수립
- 전면 넓은 오픈광장으로 UN조각공원과 산책로 연계고려

평면계획
- 기능별(수장영역, 설비영역) 명확한 공간분리를 통한 조직별 기능 및 보안체계 충족
- 유물의 안전과 보안, 동선을 고려한 제2전시관 연결브릿지 계획
- 관리영역의 중앙집중배치로 관리 및 통제 용이
- 유물의 연구 및 보관을 위한 독립적 공간 구성으로 업무효율 극대화
- 중앙홀을 통한 시설연계로 동선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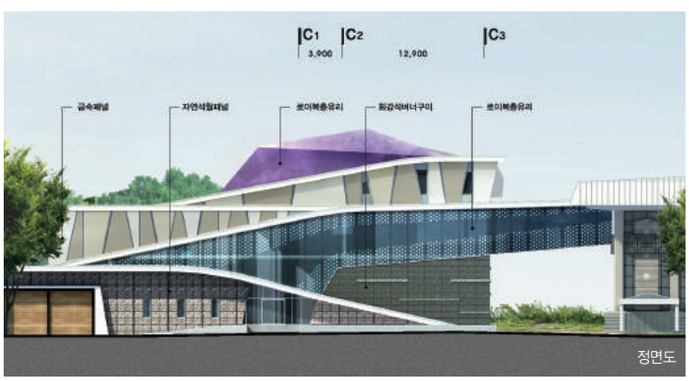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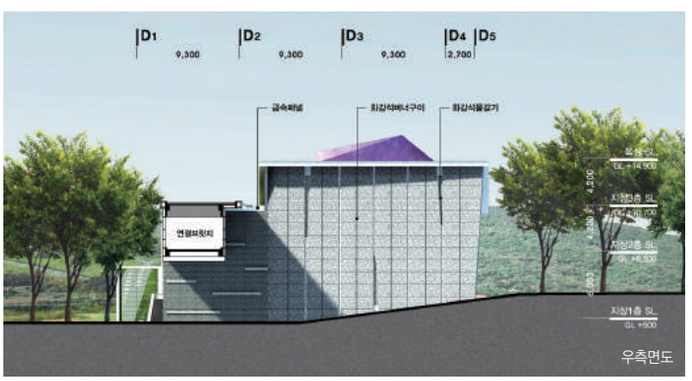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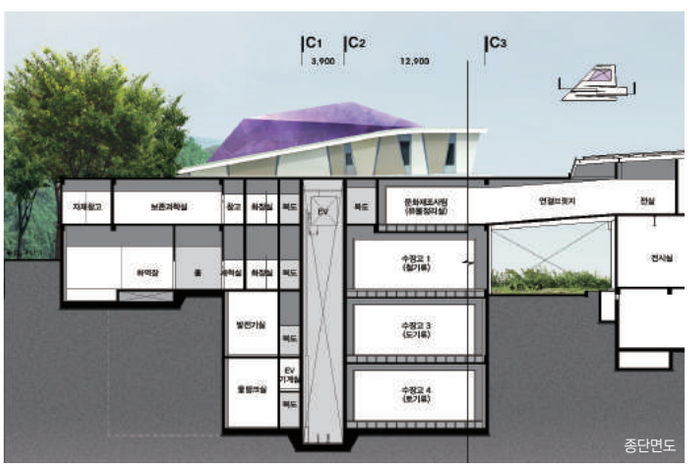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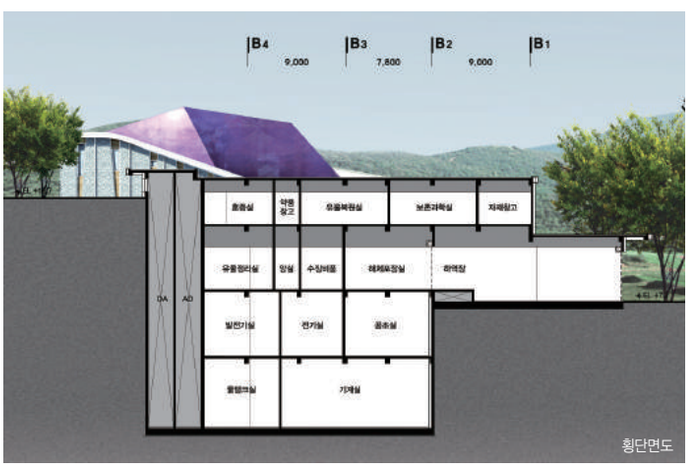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부산박물관 수장고 _우수작

BUSAN STORAGE OF THE MUSEUM

발주자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계자 :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황보기룡, 전태홍, 이호동,
하재민, 권보라미, 황태순

전문기술협력

– 구조 : 동인구조
– 기계 : GE 엔지니어링
– 전기 : 동지 엔지니어링
– 수장고 : 시공문화
– CG : GN그래픽스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내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문화시설, UN평화문화특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박물관)
대지면적	1,800.00㎡
건축면적	1,134.80㎡(수장고 기준)
연 면 적	3,445.24㎡(수장고 기준)
건 폐 율	22.77%(박물관대지 전체기준)
용 적 률	37.01%(박물관대지 전체기준)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2층, 지상 2층
주요마감	외부마감 _ 불투명 유리, 라임스톤 내부마감 _ 우드후로링, 조습투습패널, 친환경 흡음텍스

배치계획

- 기존 박물관과의 배치/매스 맥락의 조화
- 계획대지로 연결되는 자연녹지의 확장/연속성
- UN기념공원에서 열린조망 확보
- 관리동의 남향 확보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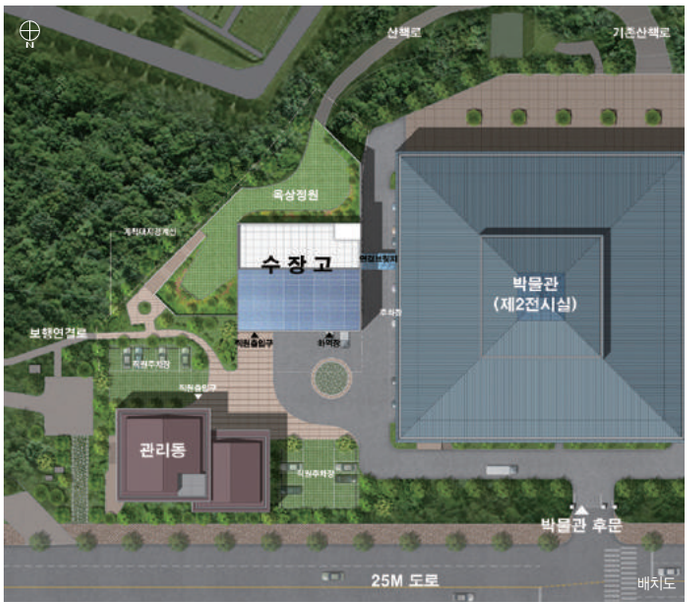
- 차량동선영역과 보행동선영역의 구분
- 자연녹지와 옥상정원의 연결

외부동선계획

- 차량동선 / 유물반출입 차량동선 및 회차공간 확보, 직원주차장 확보
- 보행동선 / 기존주민산책로 확보 및 추가연결로 적극적 배려, 유물반출입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평면계획

- 공용공간의 집약 및 최소화로 전용공간 최대 확보
- 유물전용 E.V에서 수장고까지 유물동선의 최단거리
- 유물 동선과 학예원/관계자 동선의 분리 및 연계
- 전실 공간의 확보
- 수장고 공간 운용의 융통성 부여
- 수도 배관을 고려한 평면 계획
- 진동을 고려한 지하층 영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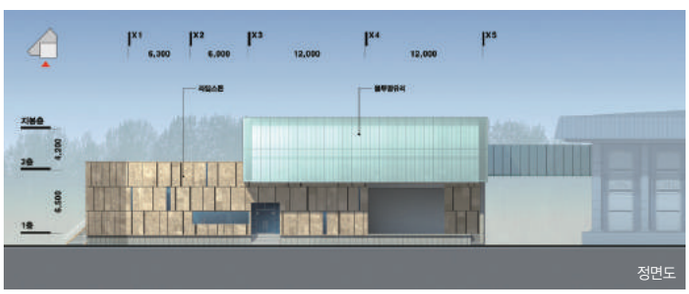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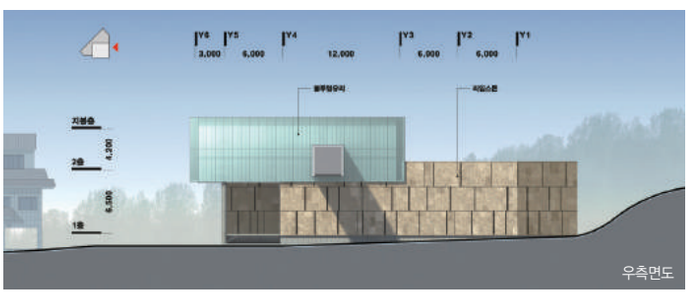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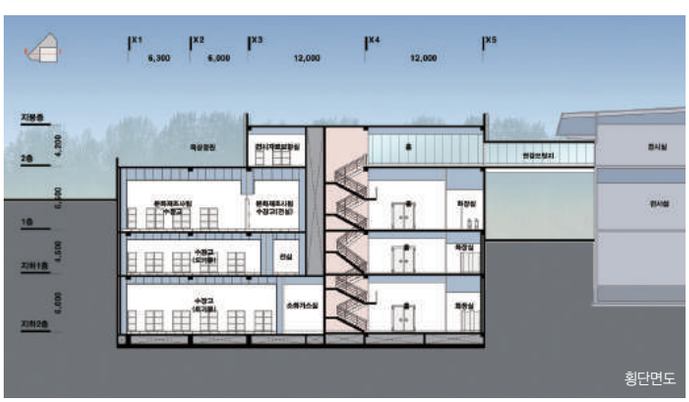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구분소유권의 인정 요건

Conditions of acceptance for a sectional ownership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2001. 12. 甲은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200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4. B와 해당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1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도급을 체결했고, B는 2002. 5.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甲은 2002. 4.부터 해당 아파트를 분양했다.

(2) 甲은 본 토지에 2003. 9. 한국토지신탁과 우선수익자 C, 수익자 甲, 乙로 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C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 2004. 9.로 정하여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3) C는 대출금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을 상대로 2004. 7.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甲을 대위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가압류등기와 함께 채권최고액 3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4. 11.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4) 2006. 6. 丙은 임의경매절차에서 801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丙(원고)은 해당사건 신탁등기는 甲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자가 아닌 한국토지신탁에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집합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甲에 대해 801호의 구분소유자인 자신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호). 이와 같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2)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건물이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등기가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3)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4) 이 사건에서 원심은 2002.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내부의 구분건물 각각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분행위의 존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3. 9. 4.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3. 판례 평석

(1)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 구분소유의 성립을 위하여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4다67691)를 변경하였다.

(2)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등기가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3) 반면,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 신은 구분 소유권은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점,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의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종전 판례를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상업도시의 탄생, 개항장 목포

The Birth of Trade Town, Mokpo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우리에게 있어 근대도시는 서구의 산업도시와는 달리 수탈의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조선 이전부터 존재했던 역사도시의 세가 개항이후에 현저하게 약해진 반면, 신흥도시인 근대도시들은 대부분 개항이후 새롭게 탄생하거나 일제강점기에 도시의 세가 빠르게 성장한 도시들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신흥도시들은 산업의 중심이기 보다는 소비의 중심이었고, 수탈의 중심이었다. 인천과 목포 그리고 군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는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과 함께 등장했다. 1930년대 일본이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북한 지역에 등장한 함흥과 흥남, 청진 등이 대표적인 병참기지화 속에 등장한 생산도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근대도시의 시작은 개항장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77년 1월 30일이 부산항조계조약에 의해 부산이 개항된 이래 1908년에 청진이 개항될 때까지 모두 10개의 항구가 개항되었으며, 이들 개항장에는 4곳의 일본전관조계(日本專管租界)와 3곳의 청국전관조계(淸國專管租界) 그리고 6곳의 각국공동조계(各國專管租界)가 있었다. 이들 개항장은 식민도시들이 갖고 있는 수탈에 용이한 바닷가에 위치할 뿐 아니라 수탈의 통로인 철도와 항구를 가지고 있다.[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화도조약 이후 이 땅의 모든 개항장은 강제 개항의 증거이자 수탈의 상징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개항장이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도시였다고 생각을 바꾸면,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우리에게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을 통해 최성환이 밝힌 목포가 이전의 개항장과 달리 한국 정부의 의지로 개항한 개항장이라는 사실은 개항장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접고, 개항장에 대한 정치적 판단 이전에 개항장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선에는 없던 도시, 상업도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층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뚜렷했던 나라에서, 사농공상의 말단에 위치한 장사가 으뜸의 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조선사회의 지배층인 선비 다음의 위치를 농부가 차지하였던 나라, 조선! 그래서 조선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사짓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은 농사가 세상의 으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농사를 통한 자급자족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상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사회가 지향했던 나라! 선비가 이끌고, 선비가 꿈구는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농업이었던 조선의 사회는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다. 극도의 절제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남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는 자급자족적인 사회! 무역으로 흥했던 고려와는 다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조선에서 장사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생각은 제일의 금기였

1) 김주관, 개항장 도시의 근대성과 식민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제5회 문명연구심포지엄, 2008.7.8

다. 당연히 상업은 억제되었다. 교통의 요지에 번성한 도시는 몇몇 있었지만, 교역을 위한 도시는 없었다.

최소한의 국가 간 교역은 중국과는 외교행사를 통해, 일본과는 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중국과의 교역도 바닷길이 아닌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백제에서 신라 그리고 고려시대로 이어졌던 해상왕국의 전통은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이는 조선이 고려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상업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항구도시를 찾을 수 없었다.

정조 때 수원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면서 상업에 대한 배려를 하였지만, 신도시 화성이 상업도시로 번성하기를 기대한 상업에 대한 배려였다기보다는 신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빠르게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상업의 효용성을 인정한 정도였다. 이는 사농공상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도 상업이 도시에서 갖는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상업이 도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것이 수원의 신도시인 화성 갖는 또 다른 도시적 의미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상업의 역할은 알았지만 그러한 상업의 역할을 도시에서 기대하지 않는 사회였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신도시 화성은 육로 중심의 교통망 속에서 상업도시의 성격이 가미되었으며, 화성의 상업은 교통의 요지가 갖는 강점에 기초한 것이었다. 신도시 화성 이후에도 여전히 물길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시는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조운(漕運)체계 속에서 포구는 존재했지만 조운시스템[2]은 하나의 도시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에서도 상업의 발달이 가시화되었고 이는 포구의 발달과 도시 주변의 변화로 이어졌다.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업의 발달은 한강변 포구의 형성을 의미했고, 한강에서 전국 각지로 연결되는 수로와 육로 교통망의 형성과 발달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강변 포구가 독립적인 시가지를 형성하며 도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민족의 젖줄인 한강은 내륙물류와 삼남으로 연결되는 물류의 중심이었던 탓에 한강 변의 많은 포구가 번잡해지기 시작했지만, 포구 자체에 시가지가 형성되기 보다는 포구에서 가까운 도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번잡해진 정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물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도시의 출현은 개항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개항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상업도시는 강이 아닌 바다를 끼고 있었다. 강을 끼고 성장했던 조선의 포구의 경우 농산물을 중심으로 조선의 조운제도에 기대어 성장했지만, 바다를 끼고 성장한 개항이후의 도시는 농산물이 아닌 2차 산업 생산품의 교역을 위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닌 타자가 대부분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후 우리와 국교를 맺은 나라들이 개항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들여오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상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개항장의 각기 입지와 성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과 인천 그리고 원산이 개항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목포와 군산 진남포 등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순차적으로 개항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개항장에서 개항의 주체와 목적 등이 각기 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화도 조약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산과 인천 및 원산과 같은 도시가 있는 반면, 고종의 칙령에 의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든 목포와 같은 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최성환은 '목포의 해항성(海港性)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에서 목포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해항으로 역사적 기능을 해왔고, 그 기능이 개항 직전까지 유지되었으며, 고종의 칙령에 의해 개항된 항구로 개항 이전에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와 목포해관이 설치[3]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관거류지에 대한 요구를 뿌리치고 각국 거류지를 설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4]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목포는 앞서 개항된 항구와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설치되었던 세 개항장과 달리 목포는 강과 바다를 모두 끼고 만들어진 개항장이라는 사실이다.

부산은 낙동강과 인접해 있지만 개항장은 조선시대 이래 왜관이 존재했던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탓에 강보다는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항장이었고, 인천은 물길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항구가 만들어졌다. 인천은 바다를 통해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단 코스에 입지했다는 사실을 빼면 자체의 지리적 입지만으로 대도시로 성장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도시다. 한편, 원산의 경우 원산진이 설치되었으나, 원산항 인근의 안변남대천은 도시의 형성에 기여할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물길을 끼고 형성된 곳은 아니었다.(건축사 524호, 2012년 12월 호, 『개항과 전쟁,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참조)

조선에서 처음 개항된 세 곳이 조선시대의 물류체제인 조운시스템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모두 도시 형성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항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개항의 조건이 조선의 입장이 아닌 외국의 입장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도시와 포구의 발달은 조선의 지세와 조운시스템의 영향을 받았지만, 개항장은 조선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한 상품시장 확보하

2) 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일. 또는 그런 제도
3) 1897년 9월 칙령 제33호로 개칭 반포된 '각개항장감리관제'에 따라 설치되었다.
4) 최성환,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2011. 3

그림 1. 목포대(구 만호진)

고, 자국에 필요한 1차 산품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4번째로 개항된 목포는 달랐다.

우선 눈에 띄는 중요한 사실은 목포가 강과 바다를 동시에 끼고 형성된 개항장이라는 점이다. 목포는 개항 이전부터 강과 바다를 이용한 조운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목포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조선시대에 이미 인정받고 있었다. 1439년에 세종이 '목포가 왜적 침입의 요해처이므로 만호(萬戶)를 파견하여 병선을 주둔'토록 재가하였다고 한다.[5] 만호의 역할은 하도(下道)[6]에서 목포를 통해 올라가는 조운선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었고, 만호가 설치된 만호진(萬戶鎭)은 이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만호진은 오늘의 만호동(萬戶洞)에 위치했다.

목포라는 지명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이곳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까닭에 목포라 한다'고 하였다 한다. 즉, 목포는 담양군에서 발원하여 광주와 나주를 거쳐 온 영산강이 목포에서 바다를 만나는 곳인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으로 인해 목포는 고대로부터 대외교역로의 길목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외교역이 소멸되면서 조운체제에서 거점 포구로써의 기능과 군항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목포의 개항은 조선시대 내내 묻혀 있던 목포의 옛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목포의 개항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조선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목포는 고종의 칙령에 의해 개항[7]되었는데, 그 시점이 대한제국이 출범한 1897년이었다. 사실 목포의 개항에는 일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부산의 일본거류민들이 목포의 개항을 반대하였는데, 부산의 일본영사였던 가토(加藤增雄)는 '자신은 개항의 절대 반대론자가 아니라, 개항 자체에는 찬성이다. 단지, 개항의 전제로서 조선국 내의 운수교통 등의 개량과 조선상인의 생산 및 구매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상황을 갖춘 다음에 적당한 지역을 개항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이나 인천 등의 거류지 상황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번영상태에 끼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하였다[8]고 한다. 이러한 부산영사의 목포 개항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목포의 개항으로 인해 부산에 거류하는 일인들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본거류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와 부산거주 일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항을 강행한 한국정부의 의지는 목포의 개항이 한국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정부의 목포 개항이 결정된 뒤에는 일본은 목포를 일본만의 전관거류지로 만들어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 추구를 시도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각국 거류지를 설치하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목포가 일본만을 상대로 한 교역도시가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교역하는 도시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관세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한국정부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한국정부의 뜻은 좌절되었다.

상업도시 목포의 탄생

개항장은 기본적으로 국외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이므로 상업도시의 성격이 강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개항된 부산과 원산 역시 기본적으로 상업도시였으며 그 대상은 주로 일본이었다. 그러나 부산은 개항이전부터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왜관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여느 개항장과는 달리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곳이다. 이에 반해 인천은 특정 한나라를 위한 개항장이기 보다는 조선과 통상을 원하는 서구 열강 모두와의 교역을 위한 개항장이었고 이러한 개항장의 성격은 전관조계지와 각국조계지가 공존하는 개항장의 공간구성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은 부산과 달리 역사적 뿌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개항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부산과 달리 일본의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울과의 관계로 인해 서구의 많은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된 도시가 인천이었다.

가장 먼저 개항했던 개항장은 갑작스런 개항과 국제적인 통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조선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개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관세 등이 매우 중요한 국가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학습효과는 목포의 개항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1439년 4월 15일, 최성환 논문에서 재인용
6)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道)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지칭한다. 여기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의미한다.
7) 최성환, 목포의 해항성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2011. 3
8) 양상호, 목포각국공동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4권 1호, 1995년 6월

그림 2. 목포지도, 목포외국인거류지지도, 출처: 조선총독부 토목사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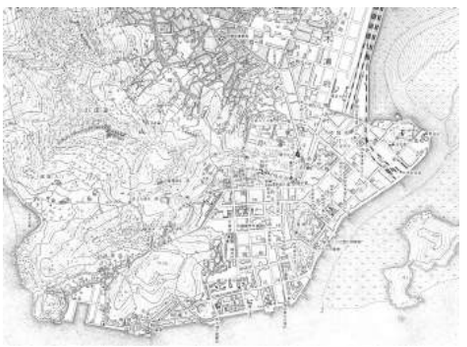


그림 3. 목포 부분, 그림 2와 동일 위치 지도

개항은 더 이상 외국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인식된 것이다. 목포는 그러한 정책변화의 첫 대상이었다.

1896년 10월 30일에 인천해관장이었던 오스본(W. Mc, Osborne)과 측량사 아무어(W. Amour)가 한국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항을 준비했으며, 한국정부는 1897년 7월 3일 의정부회의에서 목포와 진남포의 개항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1일에 목포가 개항되었다. 측량사 아무어는 목포해관의 초대해관장을 지냈다. 목포개항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는 준비 없이 맞이했던 개항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되었다.

목포부사(木浦府史, 1930)에 따르면, 1897년 개항 당시 개항장 지역에는 2,600명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주변에 논과 경작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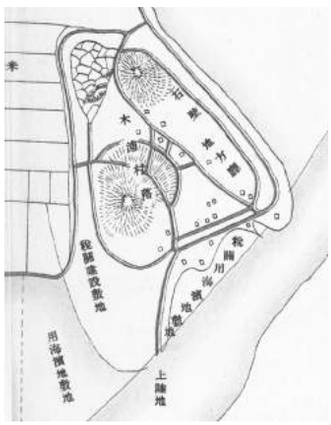


그림 4. 목포, 만호진 지역

그림 5. 만호진 지역, 1932

그림 6. 만호진 남측에 위치한 무선전신소 전경

위치한 것으로 보아 바닷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항장은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 영산강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입지해 있다. 동시에 시가지 예정지역은 논과 개흙(뻘)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야트막한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2)의 오른쪽 끝에는 작은 구릉이 있는데 이곳은 일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영산강에 면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송도 인근이 매립되어 시가지 형성되었다.(그림 5)

(그림 2)와 (그림 4)의 확대된 만호진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들은 수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릉진 만호진 주변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호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옛날에 쌓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표시되어있고, 지방청으로 표현된 부분에 만호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호진의 서남측에는 세관건설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남동쪽에 세관용부지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호진 전경은 그림 1 참조)

(그림 2)의 지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만호진 서측으로 미전(米田)[9]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의 경우 개항장이 구릉을 정지하거나 매립지 위에 건설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경작지가 개항장의 시가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개항장 목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개항장에 포함된 논(米田)[10]과 경작지는 만호진 주변에 살았던 2,600여명의 한인들에 의해 경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토의 소멸은 곧 농부들의 삶

그림 7. 중앙의 논과 뻘

그림 8. 개항장 시가지가된 논과 뻘

9) 미전, 논을 지칭함/ 필자주
10) 미전(米田)은 논의 일본식 한자로 일본에서는 전(田)이 논을 의미한다. 우리는 논의 의미로 논답(畓)을 사용하며, 중국에서는 수전(水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림 9. 인천, 1928, 조선총독부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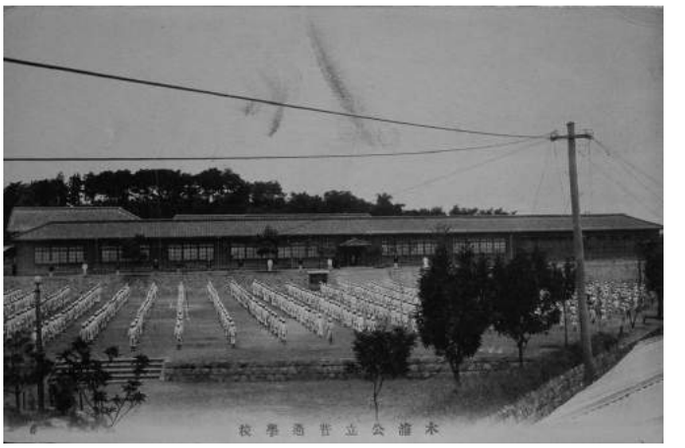


그림 11. 목포공립보통학교

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경작지인 논의 남측에는 이지(泥地)가 광범위하게 위치해 있는데 이지는 남해안 특유의 뻘을 지칭한다. 논과 뻘을 메워서 시가지를 조성한 것이다. 두 개의 언덕 사이에 격자형 시가지가 조성된 이유다.

한편 인천과 비교할 때 개항장을 구성하는 시설 중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인천 개항장에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목포 개항장에는 목포공립보통학교와 목포고등심상소학교 등 교육시설과 기독교 등 각종 종교시설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그림 10과 그림 8 참조) 인천의 경우 개항장에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배치되고, 학교를 비롯한 배후 시설은 구릉을 넘어 개항장의 동북쪽에 위치한 동인천(배다리)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개항장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에 반해 목포는 학교 등의 배후시설이 개항장과 일체화되어 있다.

이는 목포 개항장이 기존의 원주민들을 개항장에 포함하여 조성했기 때문이다. 인천과 원산의 경우 한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했던 원주민들을 개항장 외곽으로 쫓아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원주민을 개항장에 포함시킨 것은 개항의 주체와 목적이 한국정부였으며, 목포가 한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 개항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중심의 상업도시 목포

개항장 목포는 인천이나 원산 그리고 부산과는 달리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목포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앞선 개항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 까지 목포가 갖고 있었던 해항으로써의 오랜 역사적 뿌리가 잠재되어 있었다.

비록 조선시대가 바다와 상업을 멀리하는 나라였던 탓에 목포가 조선시대에 항구도시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근대를 맞이하여 목포가 우리 손으로 선택하고 만들어진 첫 개항장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목포의 입지와 오랜 잠재력에 기초하며, 근대기 우리 손에 의한 첫 상업도시의 남다른 성격은 개항장 목포의 조성과 시가지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대한제국이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포 개항이 동시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1차 산물에 의존했던 조선과 달리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관세 등을 통해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새롭게 출범한 대한제국이 농업중심국가에서 탈피하는 첫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상업도시의 탄생이 갖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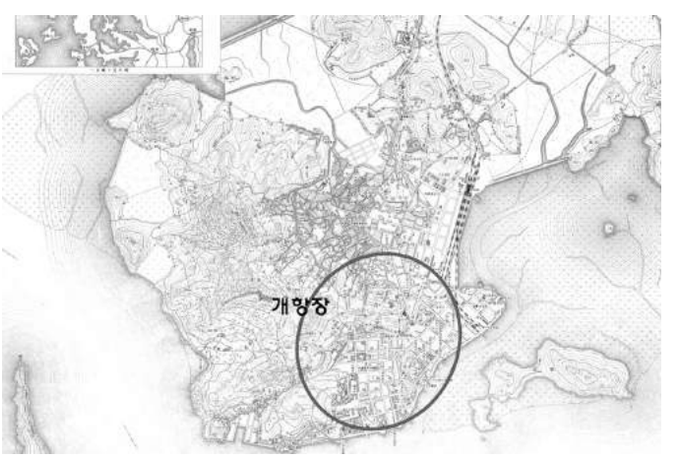


그림 10. 목포, 1932, 조선총독부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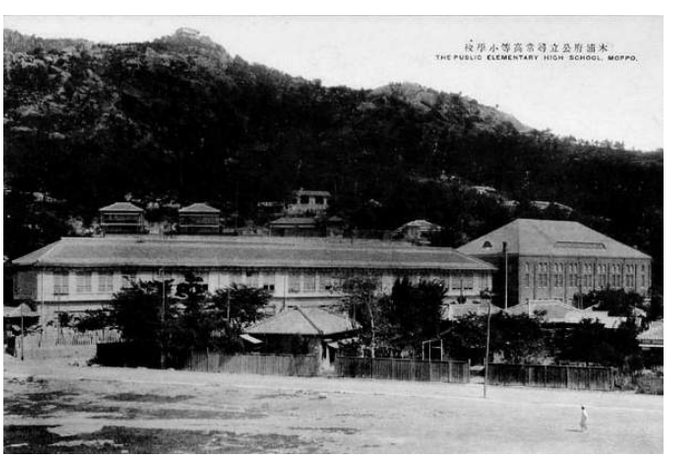


그림 12. 목포고등심상소학교

인천시민의 바르셀로나(가우디 건축) 탐방기

Travel report of Barcelona (Architecture of Gaudi) by a citizen of Incheon

류재경 | 한 건축사사무소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유래되었다던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은혼식(銀婚式)을 작년 12월에 맞이했다. 그나마 무탈하게 살았음에 감사한다. 이 날에 유럽에서는 25년 전의 결혼식을 재현하는 축하행사를 가지며, 은으로 된 물건을 선물하거나 부부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안 큰아들이 아직 공부중이긴 하지만 유럽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다. '수업료 대출금은 자기네가 취직하면서 갚겠다'며 좀 무리해보자는 제안에 집사람이 선뜻 용기를 냈다. 이번 여행지는 그간 아이들 뒷바라지를 감당한 필자에게 찾아보라고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꼭 보고 싶은 곳이 한참이나 머리를 어지럽힌 끝에 학창시절의 꿈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을 비롯한 '가우디'의 건축물은 거의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가 세운 건물 구경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족은 2013년 초 6박9일 일정으로 마드리드로 들어가 세비야, 그라나다를 거쳐 바르셀로나에서 나오는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꿈을 찾아 떠나다

약 34년 전 대학생이었을 때 관심이 많았던 롱샹교회의 '르코르뷔지에'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가우디'라는 건축의 두 거장이 생각났다. 근대건축을 공부하다 두 분의 작품에서 강한 충격과 함께 꼭 현장에 가보리라는 소망을 가졌었다. 모둠의 멤

르코르뷔지에의 롱샹교회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몬주익경기장 황영조 기념공원

버들은 틀림없이 세상을 뒤틀린 눈으로 보는 천재 건축사라고 단정 지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그 건축물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려 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드디어 두 분 중에 한분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런 행운으로 꿈을 찾아 떠날 수 있게 해준 가족에게 감사하다.

우리가족은 좀 남다르다는 주변의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이유는 5년차 의학 공부하는 큰아들까지 친지방문을 포함해 가족나들이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가족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골스럽고 순수한 그들이 참 좋다. 자연과 순수, 꿈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과 연기자가 있다.

금요일에 방송하는 '정글의 법칙과 김병만'이다. 원시상태의 대자연속에서 잃어버린 순수를 찾고 새로운 나에 도전한다는 것에 매료되어 가족이 모두 모여 꼭 시청한다. 자연 다큐멘터리나 휴먼드라마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정글이나 시베리아 등 거친 자연에 맨 몸으로 부딪치며 살아남는 과정에 많은 박수를 보내며 같은 꿈을 꾼다. 그 중심의 미친(?) 연기자 김병만은 필자에게 늘 감동이다. 가난했던 성장기에 이어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신문배달 등을 해가며 버티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 온 청년기도 그렇고, 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향학열도 또한 남다르다. 여행에서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져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맨땅에서 자야하는 상황이 됐을 때도 그는 묵묵히 근처에 있는 큰 잎사귀나 대나무를 연신 잘라다 움집을 만들거나 나무위에 원시적인 집을 뚝딱 지어 멤버들이 안전하게 잘 수 있게 하는 장면에서 자연주의 '가우디'가 생각나는 건 여행에 빠져버린 중독 증세일 것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신비로움을 맛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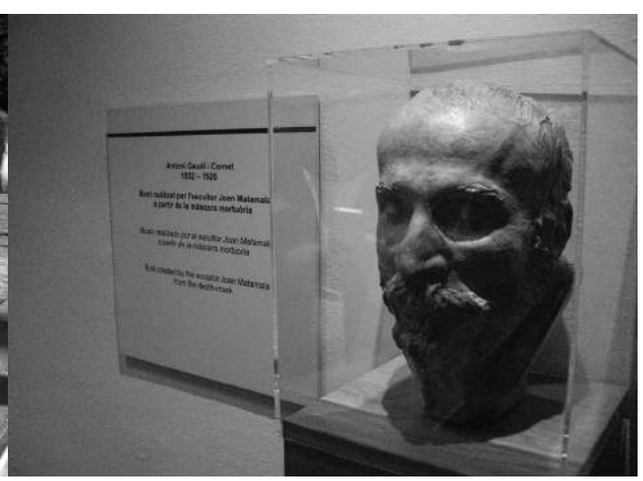
나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도시를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의 켜가 쌓인 도시들이나 고도에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깊은 감동을 받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안내서에 '가우디 건축'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소개를 보고 적잖은 흥분이 생긴다. 하지만 가우디를 많은 이들이 자연에 미쳐 정신 상태가 좀 뒤틀려 있다고 평가한 글을 보고 생긴 궁금증 이 더 커진다. 들쭉날쭉한 파사드는 바로크식 건축 개념과 자연에 대한 영감에 의한 건축 구성에서 다른 건축사와 다를 것이라 믿어보기도 한다. 여행을 앞둔 건축쟁이 나 또한 이러하니 100년 전의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위안을 삼는다.

약동감이 넘치는 투우와 플라맹고가 떠오르는 열정의 나라 스페인, 우리에겐 그다지 익숙한 나라는 아니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몬주익의 영웅 대한민국의 아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눈물겹게 목에 거는 장면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직 기억할 것이다.

과거의 스페인은 매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말해 주듯이 신대륙을 향해 무한히 발판을 넓혀갈 만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탐험의 정신이 드높았지만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대륙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이니 만큼 오욕의 역사 또한 깊은 나라이다. 그래서 스페인을 여행하다보면 과거의 화려한 유적과 함께 이슬람 문화의 잔재들이 뒤섞여 있는 특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베리아 반도의 80%를 차지하는 스페인은 800년 동안 지배한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지방에 따라 풍토와 기후가 다르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여행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화려한 공격축구스타일로 명성이 자자한 '프리메가리그'로 전 세계에 많은 팬을 가지고 있으며 9만8천명을 수용하는 '캄프누'의 FC바르셀로나 스타디움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계절을 채색하는 화려한 '피에스타' 축제는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었다.

바로셀로나의 미래 '가우디'란 누구인가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건축사로 자유롭게 흐르는 선의 형태를 3차원의 표현력을 갖는 건축으로 전환시킨 아르누보 건축사 중 가장 독창적인 건축사이자 디자이너이다. 그는 자연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어 유추한 형상을 시각적, 공간적 표현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인체의 골격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유추해내기도 하여 현대건축의 표현주의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가우디의 작품은 시대와 양식



가우디 흉상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전경

카사 밀라 전경

그리고 작품이 이루어진 시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우디'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에 대해 그는 죽기 전에 "이 작품의 주인(하느님)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비록 미완성 작품일지라도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운 곡선, 섬세하게 조각된 내부가 인상적이다. 그의 건물들은 몇 가지의 뚜렷한 자연적 · 종교적 상징물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구조와 재료를 표현했다고 한다. '카사 밀라'에서는 몇 층의 구조에서 마치 연꽃의 잎맥처럼 철근을 이용했다. 그의 많은 작품에서 그랬듯이 그는 이 두 건물의 형상과 표면에 산이 많고 해안에 자리 잡은 카탈루냐 지방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석회동굴 속에 들어온 듯 굽이치는 곡선, 자유분방하게 드로잉을 한 듯 펼쳐진 건물, 알록달록한 타일조각이 빚어낸 형상, 요란한 장식으로 한껏 멋을 낸 기둥머리는 정말 완전 멋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사 '안토니오 가우디'가 남긴 작품을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가우디 건축'에 문외한인 우리가족도 그의 이름을 들어봤다고 하니 그는 정말 건축쟁이들의 표상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그는 건축의 시인, 자연주의 건축의 거장, 괴짜, 미치광이 등 많은 수식어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 역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평생을 독신으로 건축에만 몰두했던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물에 신에 대한 찬양과 자연의 위대함을 담으려 했다. 도대체 가우디의 끝없는 상상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꿈의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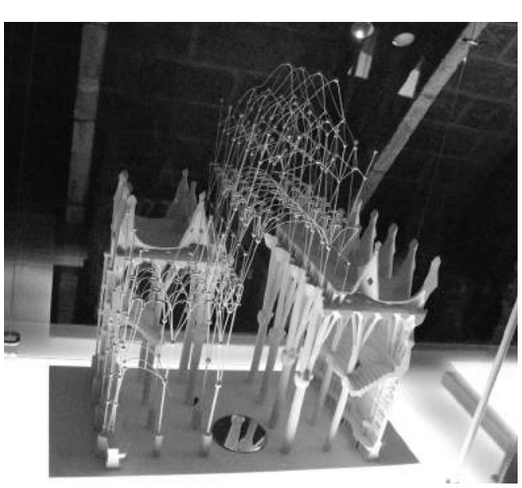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기 전 건축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금세 지겨워 진다. 처음 방문한 성당에서 가지는 경건함과 웅장함이 차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대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족이 즐기지 못하면 어쩌지'란 우려는 괜한 기우였다. 우리가족과 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앞에 서면서 입을 벌리며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 첫째는 규모에 놀랐고, 둘째는 이전에 접했던 성당과는 전혀 다른 조각과 감성으로 가득찬 구조물에 놀랐다, 셋째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입장시간이 남아 있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으로 잠시 상념에 빠져 들 수 있었다. 인터넷 예약이 긴 줄의 기다림에서 해방시켜준 덕분이다. 1883년 건축이 시작된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은 지금도 돌을 쌓아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채석장의 돌이 바닥난 56년 이후 인조 돌과 콘크리트로 쌓고 있다고 한다. 미완성된 성당의 설계도와 모형에서 고딕 양식 성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나선기둥, 감미로운 쌍곡면의 볼트와 측벽, 천상과 같은 쌍곡포물면 천정과 지붕 등이 복잡하면서 세밀하게 상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기능주의 건축물에 익숙한 우리에게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은 참으로 놀라운 인상을 줬다. 높은 평가가 과언이 아니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스페인 안에서도 적잖게 이 비현실적인 건축물에 비판을 퍼부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에 대해 아는 나는 가족들의 평가가 두렵고 궁금하다. 가우디는 이 건축물을 돌과 종교와 예술로 지탱해 나갔는데 스스로 '속죄사원'이라 칭함으로써 건축을 자기희생의 과정으로 여겼다고도 한다. 산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계속 높이 치솟아 갈 것이란다. 실제로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 인근에 있으며 종교적으로 신성시되는 몬세라트 산에 비유되기도 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의 맨 꼭대기에는 대형 큐폴라나 돔이 설치될 예정인데, 완성되면 전체 높이가 170미터나 되고 또한 주위에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130미터짜리 뾰족탑 네 개가 복음서의 네 저자를 나타낼 것이며, 높이 140미터로 성당의 앱스 위로 건설될 다섯 번째 뾰족탑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한다. 세 파사드의 꼭대기에 각각 네 개의 탑이 올려지면 수직구조가 완성되며 이 열두 개의 탑은 12사도를 뜻하는데, 높이는 100미터가 될 것이니 완공된 그날이 빨리 오길, 꼭 완공되길 기원한다. 해가 뜨는 동쪽 파사드는 예수탄생을 의미하며, 해가 지는 서쪽 파사드는 예수수난을 나타낸다. 남쪽의 주요 파사드는 신의 영광에 바쳐진다. 성당의 실내는 숲을 닮도록 했으며, 나무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울창하게 떠받치는 둥근 천장에는 별 같은 형상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의자에 누워 한참을 감상했다. 정말로 대단해서 바라보는 이 모두 헛웃음만 삼킨다.

완공 시 모형 사진


연결부재의 연구 모형

정면 파사드

성당 내부–숲과 나무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의 역사를 엿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은 '비리야루'의 설계에 의해 네오 · 고딕 양식으로 처음 설계되어, 지하성당 부분이 착공되었으나 '가우디'가 총감독으로 임명되면서 당초의 구상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성당의 비전을 펼쳐 웅대한 이미지로 변모시켜 갔다. '가우디'는 평형을 중시하는 고딕 역학 원리를 채택하고, 그것을 중세의 어느 건축사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구했다고 한다. 회중석의 교대는 안으로 기울어 그 자체로 버팀벽이 되는데, 이는 추력과 반추력 체계의 논리적인 연장이라 한다. '가우디'는 줄과 끈으로 실내의 개략적인 모델을 만든 뒤 그것에 석고를 입혀 거꾸로 매달았다. 석고를 뒤집으니 현재의 설계가 나왔단다. 이러한 구조적 아치를 전문 용어로 현수(懸垂)아치라고 하는데 흔히들 이 성당을 "흘러내리는 콘셉트"이라고도 하고 "가장 자연적이면서 가장 인공적인 건물"이라고도 한다. '가우디 건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상적인 발명의 능력이다. 아무렇게나 생긴 듯 한 형상들이 실은 엄격한 논리적 추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의 건축은 입체기하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고정된 비례 체계에 따라 조정되었다. 지배적인 형상에는 포물면과 쌍곡면이 포함되는데, 가우디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만들어냈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 설계인 CAD를 이용한다.

1892년에는 예수탄생 파사드의 공사를 시작했으며 그가 직접 감독하여 완성된 것은 이것뿐이다. 사망할 무렵 그는 예수 수난 파사드와 회중석의 상세한 계획을 완성했고, 성당 전체를 위한 상징과 도상에 관한 계획도 끝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1:10과 1:25의 축척으로 제작된 모형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스페인 내란 때 약탈당하면서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1952년 가우디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계기로 많은 건축평론가와 이론가들이 '가우디 건축'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 그 이후 가우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 되었으며 논문전시회, 연구, 강의가 개최되는 등 가우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작 기존 건축사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자신의 스승 건축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 전례였기 때문이란다.

가우디의 위대한 후원자 '구엘'

'에우제비 구엘'은 카탈루냐 지방의 유명한 억만장자이며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한다. '가우디'가 천재임을 믿어 평생 그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의 굳건하고 위대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믿음이 강한 '구엘'은 '가우디'가 만들어 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도 하였다니 '가우디'에게 천운이 있다는 증표로 현실에서도 가장 귀하게 얻어지는 행운이라고 본다. 그리고 '가우디'는 이런 '구엘'을 위해 그만의 구엘 공원을 계획한다. '구엘과 가우디'는 숨 막히는 상업적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의 건강한 공간의 '가든 시티'를 만들려는 꿈을 펼쳤으나 가문의 몰락으로 그 꿈은 사라지고 현재의 도시 공원으로 거듭났다.

이 공원에 가보면 인형의 집과 비슷한 다양한 타일로 마감한 건물이 좌우에 있고 양쪽 계단을 오르면서 세라믹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뱀 조형물과 3개의 분수, 상부의 놀이마당을 지탱한 숲이 연상되는 기둥이 가득한 노천시장터를 만난다. 오늘의 고급 빌라촌과 색다른 자연 친화적 모습이 연속되어 있어 편안함을 주는 이유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쉼터로 각광 받는다.

구엘은 '까사 밀라', '구엘 공원'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이 가우디의 필생의 역작으로 남게 한 위대한 후원자다. '가우디'는 '구엘'의 도움으로 개인전을 개최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나 그가 세계적인 건축사가 되자마자 그의 삶은 어두워진다. 1911년 열병으로 죽다 살아난 '가우디'는 이듬해 구엘을 비롯한 수 많은 후원자들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그라다 파밀라아'성당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가우디'는 거의 평생을 바르셀로나와 그 근처에서 일했으며 'Sagrada Familia'를 짓는 데 일생을 바쳤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 안타깝다.

'가우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

'가우디'의 놀랄 만한 관찰력과 자연에 대한 대단한 관심은 하늘, 구름, 물, 바위, 나무, 동물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독특한 건축 철학을 만들어 냈다. 자신의 "성지"인 바르셀로나에 만들어 놓은 그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건축물, 마치 떡 주무르듯 해 놓은 집, 사람의 뼈나 갈라진 나무를 흉내 낸 기

성당 천정–별 형상

늘어트리기 모형 사진

지하 작업장 모습

카사 바뜨요 상가 전경

등, 옥수숫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의 첨탑 등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 건축사의 꿈이 얼마나 엉뚱하고도 원대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가우디'는 자신의 작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녔다. 아주 미세한 부분의 장식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가구나 스테인글래스로 만들어진 창호,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의 금속장식 등 공간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공간적, 시각적 요소 모두를 디자인하였다. 오직 하나의 건축물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다른 작품들과는 유사한 면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였다.

현재 '가우디'가 남긴 17개 작품이 모두 스페인 국립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을 포함한 7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은 다른 건축물과 구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882년 착공 이후 1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교황청의 예산 지원 없이 순수하게 관광객들의 입장료만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성당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뛰어난 건축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의 탄생 · 수난 ·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모으고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건축물은 우리에게 '느림의 지혜'와 '십시일반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이 느림보 건축과 관람객들의 입장료만을 재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쁘고 분주하며 단기성과에만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겨보게 한다.

'건축사 스토리'가 세계화의 랜드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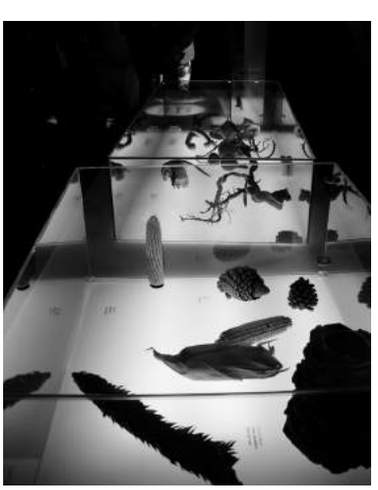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 파리의 '에펠탑',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북경의 '자금성' 등 각 나라에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그 도시의 첫인상으로 남게 된다.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당은 100년 넘게 짓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의 건축사와 오랜 공사기간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있다. 카탈루냐의 언어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던 바르셀로나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답을 주었던 '건축사 스토리'가 세계화의 랜드 마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여 세워진 1889년 세계 엑스포의 산물이다. 철골이 주변의 건축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 스토리마저도 가치를 높이며 건축사 '구슈타브 에펠'에 대한 다른 건축물의 스토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금문교'도 '스토리텔링'에 가세했다. 이 현수교 역시 당시 샌프란시스코와 마린카운티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대해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지진의 공포, 강풍과 안개의 위협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건축사의 재능과 도전정신으로 완공하였다. 지금의 미국인들은 스트라우스 동상을 다리 아래에 세워 일화와 함께 그를 기억하고 있다.

세계에서 7번째 긴 다리로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 역시 지진과 태풍에 견디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게 설계하면서 항만관계자와 인천시민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다. 인천항의 주항로로 통과하는 구간은 주 교각 사이가 800미터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경간을 가진 사장교의 명물로 부각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금문교의 '스트라우스 스토리'처럼 인천대교의 설계와 관련한 스토리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건축사가 만들어낸 건축물은 희로애락의 스토리를 더함으로써 세계화의 랜드 마크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말이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집중력이 아쉽다. '가우디'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어떠한 사람의 해결책을 모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에서 영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 자연적, 생태적인 형태에도 다양한 해결책이 있기에 결코 반복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가우디 건축'은 항상 자연 속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결코 식상하지 않으며 그가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족의 평가가 가장 후회 없는 여행이었다는 만족감에 감사하며 건축이 완공되는 시점에 무조건 다시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위대한 건축사와 후원자 그리고 시공간이 잘 맞아 떨어진 행운아 '가우디'를 영원히 존경하며 자연주의 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해야하겠다고 다짐하며 여행을 마무리 한다.

구엘 공원 입구

카사 밀라 굴뚝–옥상 공원


가우디가 채택한 자연재료들

건축기획업무 수행시 계약서 작성을 생활화합시다!

건축의 최초 단계인 기획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국가와 국민, 건축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함으로써 건축분야의 건전한 육성 · 발전과 건축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성익

□ 건축은 초기 단계인 기획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건축물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고, 건축설계는 후대에 길이 남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조형예술 창작행위이므로 최초 단계인 기획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설계의 목표와 개념, 규모, 용도 등을 정하고, 대지의 상태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개략적인 건축물의 배치 등을 통해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매사에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건축설계도 **기획업무가 제대로 되어야 그 이후의 단계인 계획 · 중간 · 실시설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기획업무는 그 중요성과 업무의 특성으로 볼때, 무상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닙니다.

○ 따라서 **건축사 스스로가 기획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가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의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 건축설계업무는 많은 **관계법률과 기준 등이 복잡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전문영역**이므로 일반국민(건축주)이 건축설계의 절차와 방법, 세부내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계약문화가 성숙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친분 관계에 의해 발주하거나 건축사 스스로가 본 계약까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협의에 의해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건축주와의 분쟁과 건축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무소의 경영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물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로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개물이기 때문에 구두협의 또는 비교견적 형태의 업무요구 등 잘못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업무 수행시 반드시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건축설계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완성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 설계도서 등 **건축 행위로 인해 생성되는 모든 결과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국민(건축주)은 건축설계 행위를 비용개념으로만 인식하여 동일한 내용을 여러 건축사에게 설계요청한 후 가장 싼 곳을 선정하거나 **기획업무 단계에서 실시설계 수준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기획업무 요구에 따라 납품된 설계도서를 통째로 다른 건축사에게 넘겨주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던지, 업무 수행도중 상호 합의절차나 계약변경없이 일방적으로 건축사를 교체하는 등 불법 · 부당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축저작권 침해 사례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의 품질 확보 및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기획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내용에도 **업무의 범위와 설계도서의 저작권 문제, 위반시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선진외국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 개발 · 보급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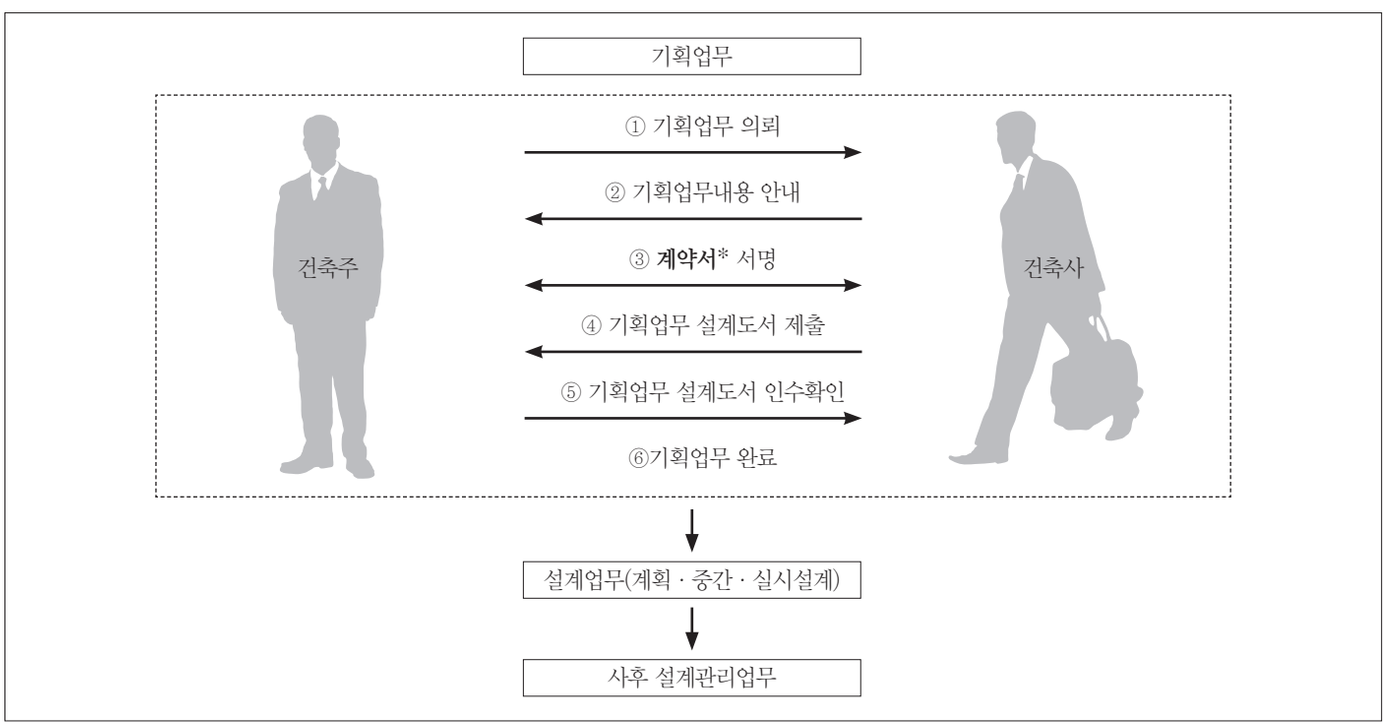
○ 미국(AIA)과 영국(RIBA)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규모, 프로젝트 수행빈도, 계약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의 표준 계약서만 보급되어 있어,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이나 업무의 단계별**(기획업무－설계업무－사후설계관리업무)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개발 · 보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 문화 정착을 통해 건축시장 질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기획업무 수행에 따른 절차와 방법, 계약서 작성 등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 건축기획업무 절차도



* **계약서**
이 계약서는 '기획업무'에 대한 절차 및 대가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이 계약서의 활용은 의무사항이 아님.

[참고자료]

대가의 산정방식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 등의 인건비로써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 ·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써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써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주1)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

등급	노임단가	국가전문 · 기술자격자	실무수련자 (5년제 인증대학교)	기타 학력자
건축사	319,299원	국가전문자격자		
건축사보(특급)	245,203원	기사(10년 이상) 산업기사(13년 이상)	실무수련(9년 이상)	
건축사보(고급)	199,093원	기사(7년 이상) 산업기사(10년 이상)	실무수련(6년 이상)	
건축사보(중급)	175,860원	기사(4년 이상) 산업기사(7년 이상)	실무수련(3년 이상)	
건축사보(초급)	134,313원	기사 산업기사	실무수련	전문분야의 석사, 학사, 전문학사 (경력3년 이상)
기능자(고급)	144,136원	기능사(7년 이상)		
기능자(중급)	141,106원	기능사(3년 이상)		
기능자(초급)	107,668원	기능사		기술계 고등학교(1년이상 경력)

주1) 건축사보 등급분류는 기술자격자 및 실무수련 등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음.
주2) 노임단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제18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 · 공표한 가격(2013.1.1. 시행)에 준해서 작성되었음.

건축기획업무 계약서

의뢰인과 건축사는 건축기획업무의 내용과 대가 등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개 요

□ 용 도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2. 업무의 내용

기획업무의 내용			의뢰내용체크	비고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 공정표		심의 · 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기존 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추가업무				

주) 기획업무의 내용은 「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의 별표1과 같음.(준용)

3. 수행기간 : _____년____월 ____일 ~ _____년____월 ____일

4. 기획업무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 및 공표한 가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 직접인건비(참고자료 참조)

구 분		단 가	투입인원	투입일수	소 계
건축사					
건축사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자	고급				
	중급				
	초급				
계					

■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참고자료 참조)

1) 직접비 (직접인건비+직접경비)	2)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120%)	3) 창작 및 기술료 {[1)+2)] × 20~40%}	대 가 [1)+2)+3)]
원	원	원	원

5. 계약금액 : 일금_____정(₩_____)(VAT별도)

20____년____월____일

의뢰인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

건축사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

협회소식

제47회 정기총회

제30대 회장에 김영수 회원, 감사에 김득수 회원 당선
회장 직선제 통과,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은 부결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7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457명 중 435명의 성원을 보인 가운데, '정관 개정의 건',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 7개의 안건이 상정 · 처리됐다.

오전 10시 15분 강성익 회장의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유명을 달리한 회원에 대한 묵념과 황정복 이사의 건축사헌장 낭독이 이어졌다. 내외빈 소개에서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 쿠렐바타르 에데네사이항 몽골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소개됐다.

이어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가 협회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건축사'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시장확대를 위한 법 · 제도 근거마련 및 개선, 건축사 경쟁력 확보, 미래를 위한 대비와 투자, 협회의 위상제고 등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협회와 건축사의 미래를 향해 노력했던 지난 2년을 큰 영광으로 알고, 앞으로도 백의종군 하는 마음으로 협회와 건축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으며,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였고, 감사패 및 공로패, 단체표창, 표창장 및 장학증서 등이 수여됐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6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다음 추대회원에 대한 추대 보고, 주요업무 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서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대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호의안'과 '제3호의안', '제4호의안'이 먼저 상정, 원안대로 승인됐다. 중식 이후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1호의안인 '정관 개정의 건'과 '제6호의안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이 쟁점으로 제1호의안은 축조심의 끝에 원안대로 승인 됐으며, 제6호의안은 부결됐다. 최대관심사였던 제7호의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최영집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영수(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이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감사선출에서는 김득수(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회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사 10인의 선출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됐다.

제47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제1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3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
- 부결됨.

▲ 제7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김영수 회원
- 감사(1인) : 김득수 회원
- 이사(10인) : 신임 회장에게 위임함.

※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참조

제47회 정기총회 전경

명예회원증 수여(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장)

김영수 제30대 신임회장

김득수 신임 감사

2013년도 시도건축사회 총회 일정

일자	건축사회	시간	장소	비고
3/7(목)	충북	10:00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신관 2층	
3/8(금)	광주	10:00	신양파크 호텔	
3/14(목)	경기	10:00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경북	10:00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3/15(금)	전남	11:30	샹그리비아 비치 관광호텔 8층 연회장	
3/18(월)	전북	16:00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	
3/19(화)	부산	15:00	농심호텔 대연회장	
3/21(목)	대구	16:00	(가창)스파밸리 애지앙 1층 (대연회장)	
	대전	10:00	대전 서구 탄방동 587번지 오페라웨딩 4층 컨벤션홀	
	충남	14:00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 홀	
	경남	14:00	경남도청 도민홀	
3/22(금)	제주	15:00	제주 KAL 호텔 2층 회의실	
3/25(월)	울산	16:00	울산MBC컨벤션웨딩 2층	
3/26(화)	인천	10:00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3/27(수)	서울	14:00	본협회 1층 대강당	
3/28(목)	강원	10:00	속초 대명리조트	

2013년 2월 28일 기준

■ 제2회 이사회

2013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감사규정 개정의 건, 건축설계 기획업무 계약서 제작 보급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회칙의 건, 건축사공제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 조정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정관개정의 건, 2012년도 결산의 건, 협회발전기본계획 5차년도(2013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제47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제47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2013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2013년도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참가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원 추대의 건, 친환경건축연구원장 선임 추인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감사규정 개정의 건
  - 제47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찬성 : 5명, 반대 : 10명)
- 제2호 : 건축설계 기획업무 계약서 제작 보급의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3호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의 건
  - 경기도건축사회에서 가능한 협회정관에 맞도록 재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공제조합 사무실 임차료 등 조정의 건
  - 다른 정부위탁업무의 사무실 임차 현황 비교표를 작성하여 추후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 보완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부칙에 '임원의 경과조치'로 차기 회장부터 적용을 명시
    ▷대의원의 임기변경 2년→ 3년
- 제2호의안 : 2012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5차년도(2013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아래의 사항을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감사워크숍은 임원 및 시도임원 합동워크숍 때 통합 · 운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은 합
    ▶ 시도건축사회 감사워크숍(직무교육 등) 9,000,000원, 본부 및 시도임원 연수사업 30,000,000원 → 본부 및 시도임원, 시도감사등 연수사업 39,000,000원으로 변경

▷ 임직원 문화체육 행사비 2백만원 증액
▷ 임원직무비 중 '상근부회장 업무추진비 ' → '상근임원 업무추진비'로, '임원 업무추진비' → '비상근임원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관련 예산 중 '상근부회장 업무추진비 월 2백5십만원, 연 3천만원' →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월 2백만원, 연 2천4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액

• 제5호의안 : 제47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을 제6호의안으로 추가하고, '임원 선출의 건'은 제7호의안으로 순연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85명)를 원안대로 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제47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2013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9호의안 : 2013년도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참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추대함.
• 제11호의안 : 친환경건축연구원장 선임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추인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업화주택 관련 제도개선의 건
– 공업화주택의 설계 · 감리 업무도 건축사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위원이 사무처에 제출하면 이를 정리하여 위원장 확인 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기타의 건
①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②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에 대하여
③ 실내건축 제도개선 관련 연구보고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 제1회 건축위원회

제1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 건축위원회 운영의 건
– 2012년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의 자료를 정리하여 차기 건축위원회 또는 같은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제공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연속성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안임.
• 제2호 : 용역발주제도 개선의 건[건설기술관리법 건축분야 표준과업지시서 마련의 건]
– 협회가 건축 제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건축분야 표준과업지시서 제작이 필요함.
• 제3호 : 기타의 건
– 건축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1년간 활동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배포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2013년 2월 14일(목요일) 오후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1회 전통건축 TF

제1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지난 1월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통건축 TF위원회 활동보고서 검토의 건
– 전통건축 TF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수정 · 보완하여 총회 회의자료에 첨부하기로 함.
• 제2호 : 한옥관련 책자 발간의 건
– 자료수집 및 정리 등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준비하기로 함.
– 협회에서 발간되었던 「한국전통건축」책자의 연속발간물로 발간키로 함.
– 책자에 수록할 작품의 사진자료, 도면, 원고 등 지침을 작성하여 지침에 맞는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2013년 전통건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전통건축 TF팀의 위원회로의 승격을 건의하기로 함.
▷다음 회의는 3월 26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1회 정책소위원회

제1회 정책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설계시장 정상화 방안" 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 정리의 건

– 위원 각자 아래 서식에 의하여 문제점과 방안을 1.23일까지 제출하여 최종 정리키로 함.

[서식] 건축설계시장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분 야	문제점 도출	정책 방안	비 고
민간설계시장 분야	· 차별 없는 최저대가 수주형태 · 상담, 기획 계획설계 무료서비스 · 업무활동 사업 무료 컨설팅	· 민간설계용역대가 기준제정 · 포괄업무 용역대가에서 행위별 용역대가 기준마련	
공공설계분야	· 최저가 용역대가 적용 · 용역수행기간 미흡 · 부가, 추가업무 강제포함 · 관습적 업무대가 조정	· 최고가치 추구 용역 대가 실천 · 부가, 추가업무 대가 정상지불 · 관습 타파 적극 대응	
건축설계 업역 및 법제도 분야	· 다양한 업무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함 (건축분야 및 보수체계)	· 업역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 제2호 : 2013년도 실천계획(안) 검토의 건

– 2013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의견

▷ 연구기관의 세계, 국내 경제전망과 건설경기 전망이 건축설계 시장전망과 연계성을 갖고 있으나, 협회 자체 내의 지난년도 설계시장 업무량, 용역대가의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시장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시장체감 등을 조사하여 건축설계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체계수립 필요

▷ 분야별 실천과제에 대한 위원 의견 정리 내용 : 협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7대 추진분야의 57개 실천 과제를 예산과 실효성에 따라 과제 조정 ·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선택과 집중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성과위주로 시행되어야 회원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임.

▷ 분야별

1. 협회 발전분야
2. 건축사 업무지원 분야
3. 법 · 제도 개선 분야
4.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분야
5. 대국민 홍보분야
6. 국제분야
7. 위탁업무 분야

■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ALACE 컨벤션 초청의 건

– 관련 자료를 본협회 담당관계부서와 준비하여 대표단을 구성 및 참석하기로 협의 함.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개최에 관해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제2호 : 제47회 정기총회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 2013–2017 UMA–KIRA Working Plan은 이승석, 이근창 위원이 영문으로 작성 및 사전에 UMA에 송부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함.

– 담당위원 – ARCASIA 회장 : 이승석, 이윤석, 전성호, 이근창 위원

UMA 대표단 : 오동희, 임희선 위원

– 건축물탐방 및 영접 · 환송 등 상세일정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행사별 담당위원

일자	행사내용	담당위원
2.25(월)	해외대표단 영접 (UMA 회장 및 관계자)	차후 협의
2.26(화)	해외대표단 영접 (ARCASIA 회장)	조인숙
	건축물탐방	이윤석, 이승석
	KIRA-UMA 실행계획 논의 2006~2010 KIRA-UMA 실행계획 갱신	이승석
	본 협회 회장주최 환영만찬	신춘규, 이근창
2.27(수)	제47회 정기총회 명예회원증 및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 · 수여대상자 : ARCASIA 회장 Tan Pei Ing	임희선
	협회투어	전성호
	증식	임희선, 전성호, 오동희
	건축물탐방	오동희
	환송만찬	차후 협의
2.28(목)	해외대표단 환송 (ARCASIA 회장)	차후 협의
3.1(금)	해외대표단 환송 (UMA 회장 및 관계자)	차후 협의

– KIRA–UMA 실행계획 논의 회의는 오전 중(11시 경)에 개최하기로 협의 함.

• 제3호 : 2013년도 UIA PPC 회의 참가의 건

– 신춘규 국제이사, 조인숙 위원장이 참가하기로 협의 함.

• 기타사항

– 국제위원회 운영매뉴얼의 건

– 홈덱스 주최 2013 서울국제건축박람회 (13.2.14~17)에 관한 건

– ARCASIA 웹사이트 운영의 건

– ARCASIA 제1회 임원회의 관련 C지역 부회장 서신에 관한 건

– 2016 안탈라야 엑스포 국제 건축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에 관한 건

– 긴의사항

■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제1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최종보고서 작성의 건

– 2012년 12월 21일에 개최된 '우리도시 되살리기' 세미나 결

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의 목차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담당위원들이 작성한 후 차기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 서론 : 연구의 목적 – 신경선 위원

▷ 본론 : · 사업지 선정(답사기, 유사사례 분석) – 장미경, 한상미 위원
· 수행과정(환경분석, 대전시 개발계획) – 정영태 위원
· 프로그램 적용 – 강정연, 박영희, 임혜숙 위원
– 소프트웨어 측면(유지방법–주민자치단체, 순환임대주택 등)
– 하드웨어 측면(세미나 발표자료 활용)

▷ 결론 : 위원장

■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우리도시 되살리기' 최종보고서 작성의 건

– 최종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담당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목차별(별첨)로 검토하고 차기회의까지 파트별로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보완한 후 차기회의에서 확정하여 2월초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작키로 함.

■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임대관련 협의 건

– 2층 서측의 공실은 건축사교육원의 전용교육장으로 사용토록 정하되, 이사회에서 정한 정부위탁회계기준에 따른 임대비용을 납부토록 하며, 6층 공간은 임대를 원칙으로 입주 능력의 입주사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여건도 조사하여 차기회의에 3개정도의 안을 정하여 협의토록 함.

■ 제1회 후보자합동토론회 준비소위원회

제1회 후보자합동토론회 준비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후보자합동토론회 개최의 건

– 후보자합동토론회 개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결정하고, 공통질의문항을 붙임과 같이 선정함.

〈붙임〉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합동토론회 공통질의서

□ 토론회 세부사항 협의내용

○ 사회자는 중립성확보를 위해 회원보다는 건축학과 교수 중에서 선정키로 하고, 1순위 이상진(숭실대 교수), 2순위 김혜정(명지대 교수) 순으로 이유림 위원이 섭외키로 함.

○ 좌석배치는 기호 순으로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배치하기로 하고, 발언순서는 좌석배치 순서에 따라 질의문항별로 로테이션으로 진행하기로 함.

○ 후보자에 대한 개별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공통질의문항 6개항을 선정함.

〈붙임〉 공통질의서 참조

– 선정한 질의문항 6개항 외에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의 질의사항을 참조하여 1/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함.

○ 방청석 질의는 토론회시간 여유에 따라 사전에 신청 받아 진행하기로 함.

– 1인 1후보자에게 질의토록 하고, 특정후보자에게 질의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자가 적절히 배분하여 질의토록 함.

○ 토론회개최 소요예산은 약 100만 정도로 책정함.

– 속기록작성 50만원, 사회자 30만원, 기타 현수막, 문구, 다과비용 등 20만원

■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회계년도 수지결산서안 심의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의함

• 제2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재검토 의견과 2012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사안별로 해당회계 예산안을 증감 조정함.

■ 제2회 기획위원회

제2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 중 회장직선제에 관한 건

–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위원장과 신만석 위원이 작성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함.

• 제2호 : 협회 조직 및 경영진단 제안서 작성에 관한 건

–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협회 운영(사업 및 조직)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한 후 이사회에 제출키로 하고, 차기 회장 취임 시 인수인계서에 제안서를 넣기로 함.

• 제3호 : 감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현행감사규정을 조항별로 심의축조하고 감사의 범위 및 권한 등의 개정(안)을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함.

• 제4호 : 2012년도 수지결산에 관한 건

–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의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심의함

• 제5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건

–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등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소위원회가 1차 심의 · 조정하여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시도회장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함.

▲기타사항

• 경기도건축사회 회칙은 본협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협회와 경기도건축사회 집행부의 연석회의 후 이견이 정리되도록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연금 향후 추진계획의 건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번 제47회 정기총회('13.2.27 예정)에는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기로 함. 아울러, 건축사 연금사업의 실현을 위해 금년에는 '연금기금 조성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함.

▷ 건축사 업무대가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안 및 회원 교육을 통해 스스로 제 값을 받도록 유도하는 윤리적 접근방안 병행 검토

• 건의사항

– 2013년도에 건축사 연금에 관한 운영규정 및 세칙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건의

■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기총회 표창대상자 심의의 건

– 회장, 담당이사, 시도건축사회장으로부터 추천된 공로회원 및 모범직원상의 추천대상자를 검토하여 회장께 건의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함.

• 제2호 : 직원 인사 조정의 건

– 원안과 같이 직원 인사를 조정하기로 함.

– 4급 → 3급(2인), 5급 → 4급(5인), 특별채용(1인), 팀장 보직 부여(3인)

■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제1회 장학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장학생 심의 결정의 건

– 2013년도 협회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13년도 장학생〉

– 정진호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재학생)

– 현지훈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재학생)

– 안찬원 (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재학생)

– 이학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김용섭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강동우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재학생)

– 이태규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신정훈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공경민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재학생)

– 하정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재학생)

■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의 건

– 제30대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함.

▷ 사회자와 진행순서, 토론회 준비사항을 점검 확인함.
▷ 시도건축사회에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용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개최토록 함.

• 기타사항
– 제출된 후보자별 선거공보 파일과 원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지난 회의 시 지적한 오탈자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함.
– 대부분의 후보자 선거공보가 원고보다 다소 변화가 있으나, 편집디자인이 당초보다 세련되게 상향되어 회장선거공보로써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므로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3. 2.15일까지 500부를 제출받기로 함.
– 오늘 회의에서 승인된 선거공보 파일을 각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E-mail발송을 허용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1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자격등록일자 조정의 건
– '13년 2월말까지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일자 순으로 재조정하되, 등록일자는 5월 한 달간 주단위로 부여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자격등록증 및 등록카드 교부방법의 건
– 현행처럼 시·도건축사회를 통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잔여 등록증은 본회에서 취합하여 우편발송하기로 함.
• 제3호 : 자기계발 인정의 건
– UD현장탐방 4차는 1시간, 석면해체작업 감리원과정은 2시간, 봉화군 군계획위원회 심의·심사는 2시간 인정하기로 하고, 대학 강의는 1년에 최대 2시간 인정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자격등록 홍보의 건
– 세움터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를 요청하고, 2월까지 등록현황을 본 후, 3월 회의 때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재논의 하기로 함.

▲기타사항
• 해외사례자료 국문번역본 홈페이지 게시의 건
– 해외사례자료는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기로 함.
• 2013년도 건축사등록업무관리회계 예산(안) 수정요구의 건
– 국제협력비, 전산시스템구축사업비, 조사연구비, 일반관리비를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김항년 위원이 예산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계획 승인 및 보완의 건
– 2013. 01. 03 국토부와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승인된 건축사실무교육 실시계획서의 보완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2013년 2월 7일 까지 시·도건축사회로부터 보완 서류를 취합하여 2월 말 국토부에 변경 승인 요청하기로 함.
– 윤리교육 및 전문교육의 정원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토부의 방침대로 60명으로 유지하고 교육비용 역시 현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제2호 : 교육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검토의 건
– 현재까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중요 부분들이 아직 개발 중에 있어 1차 open시 회원들이 혼란을 가져온 우려가 있으므로 3월중 최종 open까지 1차 오픈을 하지 않기로 하며, 그동안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수한 후 중간보고서로 대체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제3호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선택의 건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공인인증서는 제외하고 절차가 간편하여 대중적 이용이 가능한 아이핀, 휴대폰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 함.
• 제4호 : 각종 계약 추진의 건
–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업무는 원안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결정 하되, 출결사항과 관련된 교육기자재의 구매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에서 렌탈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하여 다음 위원회 때에 재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홈텍스 2013 서울국제건축박람회 부대행사, 하우징 브랜드페어,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참석에 대하여 자기계발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
• 실무교육 평가지는 붙임 양식대로 진행하되, 서명란을 추가하여 교육 출결 시 전자서명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건축사회의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시행 전에 미리 준비하되 첫 회에 한해 각 시·도건축사회에 일정량을 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함.

대한건축사협회 제30대 회장 선거 합동토론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오후2시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약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 제30대 회장 선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각자 후보들도 확실한 비전과 가슴 떨리게 하는 공약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승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각 5분)' '공통 질의응답(6문항/각 2분)' '후보자간 상호질의 응답(역 질의응답)' '방청석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각 3분)'의 순서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강석후, 이창섭, 김영수)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축사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기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의 '협회소식' 게시판 중 '본협회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물 게시'와 '건축문화신문' 제 152호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추대회원' 85명 추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25년 이상 보유한 만 65세 이상의 회원 85명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했다.

추대회원 대상자는 서울 총 27명, 부산 9명, 대구 6명, 광주 7명, 대전 3명, 울산 2명, 경기 9명, 강원 1명, 충북 3명, 충남 4명, 전북 5명, 전남 1명, 경북 3명, 경남 3명, 제주 2명이며, 이번에 추대된 85명을 포함해 추대회원은 총 697명으로 전체 회원 중 8% 비율이다. 신규 추대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강철구(주.동우), 김걸만(플라스), 김문철(주.강성), 김병완(주.대신), 김영곤(주.성일), 김유철(신도시), 김인하(정우), 문용진(주.보람), 박영건(주.범), 송영주(주.정우엔지니어링), 송평문(비욘드스페이스), 신건영(MC신영), 심성보(주.플랜에이), 오임석(주.서한), 윤희선(한인), 이민근(주.창진), 이운희(성광), 이인세(주.서울구조), 이중표(주.한스), 임승무(주.예), 임종현(원일환경), 장순용(주.삼아성), 조동영(일건), 최동규(주.서인), 최창혁(주.성진), 한규봉(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홍정길(타워)

▲ 부산/ 김우승(경진종합김우승), 김종륜(동산), 남상술(우림), 이경석(주.경림), 이봉춘(주.비전), 정승창(유림), 조태승(향도), 지호경(아키펌A&A), 현태근(도형),

▲ 대구/ 김태욱(대구), 도무찬(신도시), 박현일(홍인), 안덕근(주.전원), 임팔암(건축동인), 홍성규(주.이명이앤씨)

▲ 광주/ 강찬수(광림), 김상석(공간), 김성봉(동인), 김용주(씨에이그룹), 김후진(반석), 심상재(주.중원), 안태경(주.한길)

▲ 대전/ 류재성(토원A&C), 심상정(정), 정인협(중도)

▲ 울산/ 서천수(S), 윤승록(융진)

▲ 강원/ 원영명(원)

▲ 경기/ 김광일(광일엔지니어링), 김춘경(우신), 박종윤(삼보), 박철훈(한성), 박황인(주.제일엔지니어링), 안정환(주.삼풍엔지니어링), 오양근(오양), 최용범(대영), 최의준(주.디플러스원)

▲ 충북/ 김영욱(주.홍진), 신명철(주.정광), 이지훈(주.이지훈)

▲ 충남/ 김현용(홍성), 권백순(권백순), 염잠(신주), 조상연(유림)

▲ 전북/ 이병영(광남), 정진팔(정), 이상돈(주.세림), 엄주호(공간), 최영배(유.영창)

▲ 전남/ 손정호(은하)

▲ 경북/ 이철오(삼전), 장학선(주.대진), 전재기(아키텍)

▲ 경남/ 박형규(마산), 정부영(현대), 주재근(예창)

▲ 제주/ 김유봉(주.은산), 홍명섭(마로)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건축민원 우수 구청 후원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는 지난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에 걸쳐 지역회원들에게 인천시 관내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심의 등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설문 조사했다.

설문 결과 모범행정기관에는 부평구청이 선정됐으며, 이에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불우이웃돕기 후원물품 쌀 1,200kg을 부평구청에 전달했다.

강릉지역건축사회 '희망 나눔 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강릉지역건축사회(회장 김보규)는 지난 1월 24일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 원을 강릉시청 최명희 시장에게 전달했다.

원주지역건축사회,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원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진)는 지난 1월 7일 원주시청을 방문하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300만 원을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기탁했다.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 개최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강성익)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1일 14시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총 출자좌 49,538좌 중 28,499좌(57.5%) 참석으로(위임 26,906좌, 출석 1,593좌) 열렸으며, 상정된 5개의 안건 중 '제1호 의안, 공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 2012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제4호 의안, 차입금 상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상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제5호 의안, 운영위원 선출의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전임 회장(이의구, 이철호, 최영집)과 이사장(강성익)으로 운영위원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위원의 선임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강성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조합 출범 2년 만에 당기순이익 2억5천4백여만 원, 조합원 4,500개사, 출자금 49억여 원, 수수료수입 22억 원 여의 실적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의 지급 및 출자지분의 상승으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중 윤세한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정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문박디자인캠프디엠피 대표이사와 김혁 대표이사, 박형배 (주)토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오영모 (주)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영미 (주)건축사사무소 정건사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건축계소식

'건축사한옥연구회' 창립

대한민국 전통건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사한옥연구회'가 지난 1월 29일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총회를 열고 창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한옥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건축사 5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 초대회장으

강릉지역건축사회 '희망 나눔 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강릉지역건축사회(회장 김보규)는 지난 1월 24일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 원을 강릉시청 최명희 시장에게 전달했다.

원주지역건축사회,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원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진)는 지난 1월 7일 원주시청을 방문하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300만 원을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기탁했다.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 개최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강성익)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1일 14시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총 출자좌 49,538좌 중 28,499좌(57.5%) 참석으로(위임 26,906좌, 출석 1,593좌) 열렸으며, 상정된 5개의 안건 중 '제1호 의안, 공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 2012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제4호 의안, 차입금 상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상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제5호 의안, 운영위원 선출의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전임 회장(이의구, 이철호, 최영집)과 이사장(강성익)으로 운영위원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위원의 선임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강성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조합 출범 2년 만에 당기순이익 2억5천4백여만 원, 조합원 4,500개사, 출자금 49억여 원, 수수료수입 22억 원 여의 실적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의 지급 및 출자지분의 상승으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중 윤세한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정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문박디자인캠프디엠피 대표이사와 김혁 대표이사, 박형배 (주)토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오영모 (주)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영미 (주)건축사사무소 정건사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건축계소식

'건축사한옥연구회' 창립

대한민국 전통건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사한옥연구회'가 지난 1월 29일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총회를 열고 창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한옥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건축사 5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 초대회장으

로 민경철 건축사(다솜 건축), 부회장 조병섭 건축사(엘도 건축), 정현미 건축사(주.열림 건축)를 선출해 앞으로 2년간 연구회를 이끌도록 했다.

건축사한옥연구회는 건축사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며, 회원 간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한옥설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가집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대한민국 전통건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또한 연구회는 국내외 한옥 답사, 세미나(자체, 초청), 워크숍, 전시회개최, 한옥 관련 정책제안, 교육자료 및 보고서 작성, 수익사업(현상설계 및 연구용역), 대학생워크숍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사한옥연구회 네이버카페(cafe.naver.com/kirahanok)와 총무인 천국천 건축사(010-7408-7807)에게 하면 된다.

류춘수 드로잉 전시회 개최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문화원에서 류춘수 건축사의 '류춘수 드로잉'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붓을 이용한 동양예술의 특징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동서양 건축의 차이 및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회화작품들과는 다르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의 드로잉임에도 불구하고 류춘수 건축사의 드로잉 작품은 높은 예술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수년간 국가건축정책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2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재청,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발간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이야기와 다양한 문화재 정보를 담은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집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기법과 양식,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 · 공법 등 국내외 문화재 현장 속 이야기와 함께 수리 관련 법령, 문화재 관련 용어 등을 해설 수록했다. 더불어 문화재 일선 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수리업체 현황 등도 함께 실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문을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신간안내

길들이는 건축 길들여진 인간

이상현 지음 | 312쪽 | 효형출판

이 책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을 음미하는 건축의 미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축은 본질적으로 편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그 속에 사람들을 교묘히 길들이려는 사회학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길들임'과 '길들여짐'이라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양반집에서부터 궁궐과 도성(都城), 현대 도시와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간과해온 건축의 실체를 역설한다. 더불어 우리가 몰랐던, 또는 외면해왔던 건축의 또 다른 낯선 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새로운 시선의 건축 읽기를 제안한다.

1부「건축으로 길들이기」에서는 사회적 이념에 봉사하는 건축을 다룬다. 저자는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 공간 그리고 전통 건축에서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건축이 길들이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와 건축적 기법을 들어 설명한다.

2부「건축으로 길들여지지 않기」에서는 건축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길들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인간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적 이념에 맞서고, 건축물을 매개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를 고찰한다.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스티븐 홀 저, 이원경 역 | 416쪽 | 미메시스

이 책은 세계적 건축사와 작품을 소개하는 「미메시스 아티스트 시리즈」에 프랭크 게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안도 다다오에 이어 스티븐 홀이 추가돼 발간된 것으로 현상학 건축으로 알려진 스티븐 홀이 직접 소개하는 24개의 프로젝트가 들어 있다.

그가 직접 엄선하여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에는 그의 건축에 관한 지론 및 건축 진행 과정은 물론 작업 방식, 영감을 얻는 원천, 그리고 의뢰인들과의 관계 조율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외적인 형태로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글과는 차원이 다른, 건축사와 건축의 진정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프로젝트마다 자세한 설계도와 사진이, 그리고 그가 직접 그린 수채화가 수록되어 있다.

한동수_Han, Dong-soo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2년도 선정 '최악의 중국 10대 건축물'

10 worst Chinese architecture in 2012

1

2

중국이 개혁개방의 구호를 외치며 세계무대로 걸어 나온 지도 벌써 30여년이란 세월이 넘어 가고 있다. 그간 중국은 경제성장의 몸살을 앓으면서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도시가 건설되었고,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보장이 절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중국 역시 이러한 불문율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건축물의 수준은 이 나라의 면적만큼이나 큰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왕주(王澍)라는 건축사가 중국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플리츠커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건축계는 중국의 건축사와 건축시장을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건축물도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일보와 건축잡지 SPACE가 공동으로 건축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방 이후 최고와 최악의 한국 건축물을 선정하여 발표를 한 바가 있다. 이것은 여론을 동원하여 어떤 음모를 꾸며 특정인을 압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건축의 건강한 이성적 발전을 자극하고 교훈을 삼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하나인 건축창언망(建築暢言網)에서는 2010년부터 최악의 중국 10대 건축물 선정 작업[1]을 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6일 제3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선정 작업은 8개월간 네티즌 추천, 인터넷 투표, 전화 조사,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투표와 네티즌 추천, 전화 조사를 통해 1차로 뽑힌 50개 건축물을 놓고 최종적으로 10대 건축물을 결정하는 과정인 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로는 왕명현(王明賢, 중국예술연구원 건축예술연구소 부소장, 건축평론가), 고맹조(顧孟潮, 중국건축학회 교수급 건축사, 건축평론가), 포정위(布正偉, 중방집단건축설계유한공사 중진 총건축사), 주용(周榕, 청화대학 건축학원 부교수), 차비(車飛, 초성건축설계사무소 설립자, 주관건축사), 송영평(宋永平, 북경농업학원 원림예술설계과 교수), 진문령(陳文令, 조각가)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선택한 최악의 중국 10대 건축물을 순위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시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건축기능의 극단적인 불합리, 주변 환경 및 자연조건과의 극단적인 불일치, 표절과 모조, 맹목적인 외국 것의 숭배와 전통의 모방, 절충과 짜깁기, 맹목적인 유기물의 모방, 고의적인 상징과 은유, 괴이한 형태와 저속함,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시도한 것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4

5

6

7

8

9

10

1. 서안 신법문사(西安, 新法門寺)
2. 성도 신행정중심(成都, 新行政中心)
3. 상해 세계박람회 중국관(上海, 世界博覽會中國館)
4. 광주 소료교역소유한공사총부대루(廣州, 塑料交易所有限公司總部大樓)
5. 상해 선락사광장(上海, 仙樂斯廣場)
6. 소주 동방폭포대루(蘇州, 東方瀑布大樓)
7. 길림 광전중심(吉林, 廣電中心)
8. 하북 원보탑(河北, 元寶塔)
9. 하남 하읍조집향정부판공루(河南, 夏邑曹集鄉政府辦公樓)
10. 무한 강성명주호생대주점(武漢, 江城明珠豪生大酒店)

이번 제3회 선정과정에서는 제1회와 제2회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훈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는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에서의 높은 관심과 반향을 얻었다고 한다. 이 활동을 주관한 인터넷 사이트 건축창언망(建築暢言網)은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최악의 건축이 탄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선정 활동이 언젠가는 종식되기를 소망한다."는 말로서 최종 결과를 소개하는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원고의 주된 내용과 사진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 http://www.archcy.com/(建築暢言網)에서 인용하였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1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916	5,916	93	186	7	21	6,016	6,123	1,709	1,709	231	462	56	168	28	112	18	118	2,042	2,569	8,058	8,692
서울	941	941	22	44	0	0	963	985	868	868	124	248	41	123	11	44	12	71	1,056	1,354	2,019	2,339
부산	511	511	11	22	2	6	524	539	118	118	24	48	1	3	2	8	2	14	147	191	671	730
대구	492	492	22	44	4	12	518	548	69	69	17	34	2	6	3	12	0	0	91	121	609	669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6	66	6	12	1	3	0	0	0	0	73	81	364	375
광주	219	219	0	0	0	0	219	219	44	44	7	14	1	3	3	12	0	0	55	73	274	292
대전	263	263	6	12	0	0	269	275	32	32	5	10	5	15	1	4	1	13	44	74	313	349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3	6	0	0	0	0	0	0	22	25	211	219
경기	823	823	2	4	0	0	825	827	243	243	18	36	3	9	2	8	1	5	267	301	1,092	1,128
강원	199	199	2	4	0	0	201	203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28	235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38	38	4	8	1	3	2	8	1	9	46	66	275	297
충남	280	280	1	2	0	0	281	282	53	53	6	12	1	3	2	8	0	0	62	76	343	358
전북	263	263	5	10	0	0	268	273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7	309
전남	216	216	0	0	0	0	216	216	22	22	2	4	0	0	0	0	1	6	25	32	241	248
경북	396	396	4	8	1	3	401	407	39	39	4	8	0	0	0	0	0	0	43	47	444	454
경남	476	476	8	16	0	0	484	492	35	35	4	8	0	0	0	0	0	0	39	43	523	535
제주	138	138	0	0	0	0	138	138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4	155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692	100%	17
서울	2,339	27%	2
부산	730	8.4%	10
대구	669	7.75%	0
인천	375	4.34%	0
광주	292	3.38%	0
대전	349	4.04%	0
울산	219	2.53%	0
경기	1,128	13.00%	3
강원	235	2.72%	0
충북	297	3.44%	0
충남	358	4.14%	0
전북	309	3.58%	0
전남	248	2.87%	0
경북	454	5.25%	0
경남	535	6.19%	2
제주	155	1.79%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5,637	1,112
서울	1,075	788
부산	431	39
대구	520	16
인천	301	4
광주	144	21
대전	183	19
울산	160	7
경기	745	32
강원	169	7
충북	128	31
충남	184	29
전북	192	8
전남	143	35
경북	377	7
경남	529	13
제주	151	10
기타	205	46
비고	회원 : 5,120/비회원 : 517	대학 : 1,005/대학원 : 107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123	2,569	8,692	
비율	70.44%	29.56%	100%	
사무소수	6,016	2,042	8,058	
비율	74.66%	25.34%	100%	